

황화익 보살(서울시 복지대상 수상)
폐품 팔아 보시행…
30년 이웃도운 '보살'
A16·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9월 12일) · 주간

제962호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법구경〉

마음은 항상 용감하게
생각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은 항상 조심스럽게 하라.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당선

179표 얻어 129표 받은 보선 스님과 50표 차이
개혁 종단 이후 첫 연임… 청정성 회복 등 과제
"향후 4년 한국불교 도약의 시기 될 것" 소감 밝혀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당선됐다.

자승 스님은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179표를 얻어 선출됐다. 함께 유력 후보로 거론된 前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129표를 받았으며, 대우 스님과 혜총 스님은 각각 1표를 얻었다. 무효는 1표였다.

이번 선거에는 당초 박빙으로 예상돼 세간의 관심을 모았지만, 50표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거인단이 체재 안정을 통한 변화를 더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 직후 자승 스님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은 종도들의 지지와 참여를 당부했으며, 향후 포부도 내놨다.

자승 스님은 "종단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늠하는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총무원장' 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저의 당선은 청정한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종단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는 '토적성산(土積成山)' 을 언급한 자승 스님은 "이번 선거를 통해 모인 종도들의 혜안과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종도들에게도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처럼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종도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함께 해야 한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행풍토 진작과 종단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범여 스님〈사진 왼쪽〉이 10월 10일 179표로 제34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자승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10월 11일 열린 원로회의에서도 인준을 받아 총무원장 당선이 확정됐다. 사진= 박재완 기자

제33대 집행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대사회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지겠다는 계획과 앞으로의 다짐도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이제 과거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사회와 국민 앞에 더욱 다가서고자 한다"며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으로 국민의 정신문화를 향도하고, 우리 사회에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무연자비(無緣慈悲)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의 모습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국민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는 실천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개혁 종단 이후 임기를 모두 채운 첫 연임 총무원장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그만큼 향후 자승 스님이 내세운 종책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백양사 승려 도박 사태와 최근 무분별한 내부고발로 인한 종단 청정성 회복은 당장 자승 스님이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또한 과열됐던 선거 분위기를 잠재워 선거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자승 스님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실제 보선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공동선대위원장 영조 스님의 명의로 원로회의에 공문을 보내 총무원장 인준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일간지 기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장이신 도법스님을 중심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청규위원회 중심으로 쇄신안을 실천하고 다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승가는 화합이 우선이다. 선거를 함께 한 후보를 비롯 모든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새기고, 화합을 위해 만남의 자리를 다양하게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는 10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24명의 원로의원 가운데 재석의원 19명이 만장일치로 총무원장을 인준했다.

이에 따라 자승 스님의 총무원장 연임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임기는 오는 10월 3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3면

창간 19주년 특집 -현각 스님 e메일 인터뷰

한국불교에 바란다



쇄신의 완성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점을 짚어낼 수 있는 통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다. 한국 불교에 대해 스님이 던지는 쓴 소리를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만행〉의 저자 현각 스님과 '한국 불교의 과제' 를 주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배현진 기자

-현각 스님, 최근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몇 년간 유럽에 거주하며 세계각지에서 불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거지는 독일이지만 유럽 지역과 미국, 그리고 때로는 한국에 와서 가르치고 정진도 합니다."

-한국에는 현각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명한 스님 중 한 분이셨는데 왜 한국을 떠나셨습니까?

"저의 스승님, 숭산 대선사님이 2004년에 열반 하셨습니다. 그분이 열반하시기 전부터 많은 서양인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스승님이 한국에 안 계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게 될지 생각을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열반하시고 3년간 스승님의 위패를 모시면서 한국에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 사회 및 불교 사회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유명해지기 위해 계획하거나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유명해진 것은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정신수양을 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힘들기도 했고, 사실 여전히 유명세로 인한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 건강도 영향을 받아 구안와사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유명한 사람으로 한국에 거주하기 보다는, 조용히 혼자서 깊은 정진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법정 스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수련하는 데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제 이름이 너무 많이 알려졌을 때 이곳 강원도 산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왔고 동네 사람들이 내가 오고 가는 것을 보면, 단순히 '오, 그 할아버지 스님'이라고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코 크고 눈이 파란 유명한 스님은 한국에서 숨기 어려울 겁니다."

-유럽에서의 일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주하고 있는 도시에 작은 선 센터 "불이선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독일 및 유럽 타 지역에서 가르침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살고 있는 곳 보다 레겐스부르크라는 독일의 다른 도시에 더 규모가 크고 활동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떠도는 스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그곳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저는 더이상 어딘가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A5면에 계속

2013년 창간 특집호 INDEX

A 신행 6
외국 청년들 템플스테이 홍보 나선다

복지 7
불교상담개발원, 자살예방센터와 MOU



창간19주년 특집 14
박성배 교수의
간화선 핵심 '전의'

강의실 중계 21
통도사 한주 시명 스님

B



창간19주년 특집
노인 포교 현황과 과제 1~4
자비의 전화 현장을 가다 6
미리보는 불광咄 국제학술포럼 8
이제는 사찰도 신용카드 시대 14

창간 19주년특집 48면 발행

국보 '에밀레종' 복제해 타종한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인 국보 29호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다.

경주시는 2014년 말까지 예산 15억 원을 들여 에밀레종을 복제해 매년 타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밀레종은 문화재의 안전과 훼손 등의 우려로 타종이 영구 중단된 바 있다. 경주시는 시 주요행사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복제한 에밀레종 소리를 들려줄 계획이다.

원형의 모습과 소리를 되찾게 될 에밀레종 복제품은 청동재질에 높이 3.75m, 둘레 7m, 무게 18.9t 규모로 제작된다.

경주시는 2014년 초 에밀레종 복제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며, 종을 설치할 장소로 대릉원 인근 등 3~4곳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성덕대왕신종인 에밀레종은 신라 경덕왕이 부왕인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 742년에 제작에 들어가 771년 혜공왕 때 완성됐으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21C 文化遺産 매니지먼트 시대로...

서진문화유산은...

-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 실무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국보 · 보물 등 다양한 보존처리 경험과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 산 · 학 연구시스템 구축(국립공주대학교, 용인대학교, 건국대학교 등과 산 · 학 협력 협약체결 등)
- 국내 최초 문화재보존 컨설턴트, CRM(Cultural Resource Management)개념 도입
- HIP(Heritage Interactive Panorama) 국내 최초 기획 · 제작
- 박물관 전시 기획 · 설계
- 국 · 내외 전문가 그룹의 네트워크 형성



- 아름다운 사찰 및 문화재 360° 표현
- 불자들의 온라인 기도방(3D 참배)
- 신세대를 위한 온라인 포교 및 교육
- 홈스테이 활성 방안 제시
- 스마트폰 '앱' – 사찰 홍보 효과 증대
- 손쉬운 조작 – 접근성 용이
- 영구 기록보존
- 유료컨텐츠를 통한 수익창출

주요사업영역

- 문화유산 보존 – 석조, 목조, 종이, 섬유, 금속, 매장문화재, 유적보존, 벽화, 근대문화재, 3D스캔 및 비파괴진단, 모형제작 및 복제, 흰개미 방제, 훈증소독, 방연처리 등
- 보존환경 관리 – 예방보존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 보존방안 제시
- 보존 컨설팅 – 보존에 관한 자문, 설계
- CRM 용역
- HIP 기획 · 제작
- 박물관 전시 · 기획
-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
-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저변 확대 – 강의, 연수교육
- 문화상품 기획 · 개발
- 기타(출판 및 디자인 관리 제작)

주요사업실적

[국보 제 47호]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 보존처리공사 ❶
[국보 제132호]	징비록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사업
[국보 제285호]	울산 반구대암각화 학술(3D)조사 용역
[국보 제290호]	통도사 대웅전기단 및 금강계단 보존처리 사업 ❷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해인사 대장경판 DB를 위한 표준화작업 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방충방부사업
[보물 제146호]	창녕 관룡사 약사전 벽화 보존처리
[보물 제218호]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295호]	창녕 관룡사 용선대 석조여래좌상 보존처리공사 ❹
[보물 제925호]	하동 쌍계사 영산회상도 보존처리공사
[보물 제1242호]	합천 해인사 길상탑 보존처리
[시도유형문화재 제3호 외]	중국철제범종 보존처리 및 보호각 보수공사 ❺
[시도유형문화재 제139호]	수다사 명부전 벽화 보존처리 공사 ❻
[시도유형문화재 제165호]	봉선사괘불 보수사업 ❼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	광해군 내외 및 상궁옷 보수정비
	한성백제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토층전사 및 복원)
	신경주역사 신축공사중 유물복제 및 유구이전 ❽
	세계유산등재추진 공룡화석(발자국) 레프리카 제작공사
	연평도 전시자료 수습 및 보존처리, HIP제작, 기타...



보존윤리와 철학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

● 본사 : 경북 경주시 서부동 4-5 경주오피스텔 6010 ● 지사 :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D동 610호(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 전화 : 054) 771-9747, 02)2083-1520 ● 팩스 : 054) 771-9748, 02)2083-1521

서진문화유산(주) Seojin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Co.

자승 스님 당선소감

사회와 세계속에 한국불교 도약

지극한 마음으로 삼보전에 정례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종정 예하와 원로 대덕 큰스님 이하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종단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가늠하는 이번 선거를 통해 소납은 다시 한 번 '총무원장' 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소납의 당선은 청정한 수행풍토를 진작하고, 종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원하는 종도들의 의지가 모인 결과입니다.

토적성산(土積成山)이라고 했습니다. 한 줌의 흙이 쌓여 태산을 이루듯이 소납은 이번 선거 기간에 모인 종도들의 혜안과 고견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한 항상 초심의 자세로 스스로를 탁마하며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 를 열어가는 소임자로서 헌신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길은 결코 소납 혼자의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말처럼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종도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격랑의 바다를 함께 헤쳐 나가는 도반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수행풍토 진작과 종단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는 이제 과거의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사회와 국민 앞에 더욱 다가서고자 합니다.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으로 국민의 정신문화를 향도하고, 우리 사회에 고통 받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무연자비(無緣慈悲)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4년의 모습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국민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속에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는 실천과 도약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소납은 종단 행정을 책임지는 소임자로서, 종도의 일원으로서 승가 공동체를 더욱 굳건히 하고 사부대중이 진정 종단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미력한 소납을 위해 어려운 과정을 함께해온 선거 대책위원회 고문스님 및 위원장 스님들 이하 모든 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선의의 경쟁을 함께해 온 보선 스님 이하 모든 후보스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 원융화합의 큰 강물로 다시 만나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소통' 리더십 강점… 사회통합 노력 남달라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입법 · 행정 수장 두루 역임
현안 해결하며 종무 안정화

은정재단 이사장 활동하며
첫 청소년교리대회 개최 등
종단 포교 역사에 한 획도

33대 집행부 최고 성과인
대사회 사업 등 진두 지휘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자승 스님은 개혁 종단 출범 이후 첫 총무원장 연임이라는 역사를 썼다. 그만큼 자승 스님이 보여준 리더십과 종무행정의 방향에 종단 여론 주도층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반증한다.

자승 스님은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화사, 봉암사 선원 등에서 수선 안거를 하고, 수원포교당, 삼막사, 연주암 주지 등을 역임하며 수행과 가람 수호, 포교의 원력을 몸소 실천했다.

자승 스님은 1986년 총무원 교무국장을 시작으로 종단 종무 행정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후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하며 종무행정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에서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자승 스님은 제10대, 12대, 13대, 14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중앙종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맡아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종회 본연의 기능인 종법 입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 종단 각 분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 등을 원만히 회향했다.

자승 스님을 평가함에 있어서 포교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스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으로서 불교학자, 불교단체,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학금과 생활격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 3대 축제로 평가받는 나란다 축제를 개최해 전국의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오롯이 이어갈 수 있도록 불교교리경시대회를 열어 교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교교리경시대회는 처음 시작 당시 한국불교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회로 청소년 포교에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평가받았다.

총무원장으로서 제33대 집행부를 이끌면서도 적지 않는 치적을 남겼다. 최근 2년 간 종단의 위기상황 타개와 청정한 수행풍토 조성을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 을 펼쳐 한국불교의 위상을 제고했다.

무엇보다 자승 스님의 재직 시절동안 교육원과 함께 시행한 승가교육 체계 개편은 시대의 불사로 평가된다.

종단의 수행 종풍 선양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스님들의 수행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려 노후복지제도를 시행과, 한국불교 근현대 역사상 최대불사로 평가받는 '조계사 일대 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는 등 조계종 총본산의 성역화 사업을 한 단계 진전시킨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자승 스님은 이웃 종교와의 교류?협력과 사회통합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국내 7대 종단이 참여하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대표의장으로서 도덕성 상실 및 계층 · 세대 · 종교 간의 갈등, 생명경시풍조, 물질 만능 사상에 대하여 종교계가 공동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또한, 화쟁위원회, 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대강?용산참사?한진중공업?쌍용차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극단적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한 부분은 '불교의 사회화' 에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비방 · 폭로 얼룩진 선거, 투명해질 수 없을까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총평

후보들 상호 비방전 '눈살'
선거인단 구성 놓고 다툼
"선거제 변화 필요해" 대두

흔히 세간의 선거 관련 보도 기사를 접하다 보면 '복마전(伏魔殿)' 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복마전의 출전은 〈수호지〉에 나온다. 북송(北宋) 인종 때에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자 전염병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러 신주(信州)의 용호산에 은거하고 있는 장진인(張眞人)에게 홍신(洪信)을 보냈는데, 용호산에 도착한 홍신은 장진인이 외출한 사이 이곳저곳을 구경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복마지전(伏魔之殿)' 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전각을 보았고, 호기심이 발동한 홍신은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문을 열고 비석을 들추게 되었다. 그러자 안에 갇혀 있던 마왕 108명이 뛰쳐나왔다.

이후 복마전은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 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회면 선거기사에는 '복마전' 이라는 용어가 끊임없이 나온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역시 사회의 선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유력후보인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일 5일 남겨두고 상호 비방과 폭로를 이어갔다. '정법통신' 이라는 대포폰 괴문자는 스님뿐만 아니라 교계 기자들에게도 전송됐다. 서로의 승적 문제를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이어가며, 두 진영 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갔다.

이유는 선거를 양 진영은 선거일을 하루 남겨 놓고 나서야 "선거인단의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는 차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심사를 놓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중앙선관위는 10월 7일 열린 제281차 회의에서 마곡사 선거인단의 자격을 박탈했다. 마곡사 관련 안건 논의에서는 두 진영 소속 선관위원 간 대립이 최고조로 달했다. 마곡사 안건 결정에 있어서 비밀투표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원오 스님을 비롯한 3명의 선관위원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퇴장했다.

결국 선관위원 5명이 참석한 채 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1표, 반대 4표로 마곡사 선거인단 자격 부여 문제는 부결됐다.

후보 자격 심사 이후로 추진하기로 한 종책 토론회는 논의만 있었을 뿐 열리지도 못했다. 후보들이 앞 다퉈 종책을 내세웠지만 정작 서로 간의 종책을 상호 검증해볼 기회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다만 10월 7일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이 주최한 양 진영 대변인 좌담회가 열렸을 뿐이다. 후보자들이 각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자신의 종책을 알리는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조계종의 종책 선거는 이번에도 요원했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자승 스님 역시 10월 10일 선거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단 지도자를 뽑는 방식에서 추대가 가장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선거보다는 불교 전통의 방식인 대중공의에 입각한 추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약 추대가 안된다 차안으로 선거를 해야 하는데, 현재 321명 선거인단의 규모는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직선제에 준하는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선거는 끝이 났고, 승자와 패자는 갈렸다. 이제는 '화합' 만이 남았다. 선거를 통해 깊어진 감정의 골을 메우고 화합승가를 만드는 일은 피아를 나눌 일이 아니다. 신중일 기자



10월 5일 동화사와 마곡사 대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단 심사에 앞서 정략적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청정성 회복·교구중심제 등 숙제 산적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과제는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에 자승 스님이 연임하게 된 것은 종책의 연속성을 통한 종단 안정이라는 종도들의 요구가 맞닿은 결과다. 그만큼 종단 안팎으로 안정과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

가장 먼저 자승 스님이 풀어야 할 현안은 지난해 백양사 승려 도박 사태로 시작돼 내부 고발로 연이은 추문으로 실추된 종단의 청정성 회복이다. 승려 도박 사건 이후 '자성과 쇄신 결사'를 통해 대중공사 등 다양한 대내외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는 내지 못했다.

자승 스님은 청정성 회복과 쇄신 결사에는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본 의식부터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당선 직후 일간지 기자들과 따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쇄신은 3분요리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종단 청정성 회복과 수행종풍 증작에 대한 자승 스님의 밑그림은 종책 분야별 공약 중 △한국불교의 숨결, 청정 수행풍토 진작 △자성과 쇄신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승 스님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청규 제정과 총림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으며, 평생 수행 제도(기초 생활 보장) 연구와 실행 전략 마련을 통해 수행자가 아무런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교화에 힘쓸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호계원 심판의 공정성과 양형 객관성 확보를 비롯해 판례기속원칙을 정립해 종단 위계와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해서는 전 국민적 행동 캠페인으로 확대 전개하고 종단 각계 지도자의 대중공사 정례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자승 스님은 지난 9월 23일 종책 발표회 당시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의 최종 목표는 바로 청정한 수행풍토의 조성"이라며 "수행풍토 조성을 위한 안정적 수행 환경 마련과 계율의 엄중한 수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공약 '교구 중심제' 향방은

자승 스님이 이번 선거를 통해 내건 핵심 종책 공약은 '교구 중심제'다. 이를 위해 △교구법 제정 및 행정시스템 구축 지원 △교구발전위원회 설립 △주지 인사 교구 이양, 교구 인사제도 개선 △직할교구를 우선으로 한 교구 분구제 도입 △교구 내 거점사찰 선정 및 조계종지역연합회 활성화 등을 핵심 종책으로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은 교구의 사항 전반을 다루는 통합 법령 제정이다. 종헌 제17조 이하 지방종정법, 교구종회법, 교구종회의원선거법 등의 법령은 교구를 이루는 요소에 대한 부분적 규정이기 때문이다.

통합 법령 제정 내용으로는 △교구 정의와 지위 및 관할권 △교구종회의 구성과 권한 새로이 구성 △교구 행정기구의 편제 방식 변화 △재정 운영 및 기본 원칙 등 세부 규정 마련 등을 담는다는 게 자승 스님의 복안이다.

자승 스님은 종책발표회에서 "미래의 교구는 해당 지역의 수행과 포교, 전법을 총괄하는 진정한 자치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교구 중심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구본사 간 불균형'은 넘어야 할 숙제로 평가된다. 현재 교구본사는 지역별로 종무행정 시스템이나 사격이 적지 않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원화된 종무행정 시스템과 법령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 교구 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점도 필요하다.

연이은 내부고발로 악화된 여론
승풍 진작·청정성 해결책 필요

서비스 위주의 행정 개편 공언
포교원 전략·생산형으로 변화
'교구중심제' 공약 실현도 관심사



2007년 제33대 총무원장 취임 직후 용산 참사 피해자의 영정이 모셔진 요셉의 집을 찾아 분향을 올리고 있고 자승 스님. 사회 의제 해결을 위한 행보는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지속 발전시켜야 하는 것도 자승 스님의 당면 과제다.

자승 스님이 밝힌 종단 운영 8대 기조

1. 교구중심제 실현과 신도시 포교가 종단 운영의 미래입니다.
2. 대중공의와 신개념 종무행정, 비구니스님 권익향상으로 종단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3. 지속적인 자성과 쇄신으로 수행환경개선에 힘써 수행종풍을 진작하겠습니다.
4. 통합종단 출범 이래 최대 불사, 총본산 성역화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5. 종단 예산 1천억 시대 준비, 재정기반 구축은 승가복지 안정의 열쇠가 됩니다.
6. 지속적인 승가 교육 및 포교 혁신으로 세계 속의 한국불교 위상을 높여내겠습니다.
7. 불교문화를 21세기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8. 서민과 약자를 위한 종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시 비롯한 포교 혁신

교구 중심제과 함께 제시한 것이 신도시 포교이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와 신도시 지역의 포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하다.

자승 스님은 직할 교구를 우선 시행을 전제로 한 교구 분구제 도입과 광역시급 대도시에 포교 공동화 방지를 위한 공동 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신도시 사찰 건립 지원 방안 등을 내놓았다.

자승 스님은 종책자료집을 통해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로 갈수록 불교의 교세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 수도권 대도시에서 불교의 포교 공동화 현상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공동사무소 개원 등 변화하는 포교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처해나감으로서 불교의 도심 포교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착화 된 포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포교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많은 이유도 관리 행정이외에는 뚜렷한 종책을 생산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자승 스님은 포교원 조직 시스템 개편을 제시했다. 현재 포교팀, 전법지원팀, 신도팀 등으로 구성된 부서체계를 포교 종책 개발팀, 포교 콘텐츠 개발팀, 계층포교 활성화팀, 조직 관리팀으로 세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일선 포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전략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포교 콘텐츠를 생산해 나가는 전략형, 생산형 포교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회정책 진일보할 수 있을까

자승 스님이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재직 당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대사회적 의제를 풀어가기 위한 잇단 사업과 행보들이었다. 노동위원회의 출범은 불모지와 같았던 불교계 노동운동의 초석을 다졌고, 화쟁위원회를 통해서는 각종 사회 의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뤄졌다.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첫 공식 방문지가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자리였다는 점은 자승 스님이 사회 의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회 의제에 대한 활동은 워낙 인프라가 전무했던 부분이였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한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불교계 참여 운동형 NGO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당면 과제다.

이를 위해 자승 스님은 기존 위원회와 더불어 주민정책위원회, 인권위원회, 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사회적 의제에 대한 입체적인 대응을 이뤄나갈을 것을 종책 공약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또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지원법'을 신설하고 공모사업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회정책전문가 양성과정 설립 등 불자 인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눈길을 끄는 방안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종책들도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스님들이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비구니 권익 확대를 위한 종책안을 유력 후보에게 제시하기도 했고, 너나 할 것 없이 비구니 관련 종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해 참종권 확대를 비롯해 비구니부 신설과 특별교구 설립 등을 세부 종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종법 체계 중 비구니 스님 차별 조항 개정 추진도 약속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새 총무원장에게 바란다

청정 수행가풍 바로 세워주길

동국대 명예 교수 법산 스님



종단의 행정 수반으로서 수행 기강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다. 계정혜 삼학에 의한 가풍이 정립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한다. 또한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의 기본이 되는 승려복지에 더욱 신경써주길 바란다. 또한 그동안 선거로 인해 분열된 종도들의 마음을 아우르는 원장이 돼달라. 이를 위해서는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내려와 사부대중과 소통했으면 한다.

'상생의 내일'을 열어주십시오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첫 총무원장 연임에 성공한 자승스님은 지난4년 동안 한국 불교 중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해 오셨다.많은 국민들이 총무원장 스님께 거는 기대는 그래서 더욱 각별하다.

앞으로 우리 불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되살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서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지금사회에 자리 잡은 '우리'는 없고 '너와 나' 뿐인 작금의 갈등을 극복해서 화합을 이루고 경쟁과 균형의 조화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상생의 내일을 열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소통으로 국민신뢰 회복하는 조계종 되길"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먼저 출재가가 소통이 되는 종단으로 거듭나는데 중앙신도회도 미력하나마 일조하겠다. 신도들이 스님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내건 여러 가지 종단의 발전방향이 현실화 되고 불교의 미래가 밝아지길 기원한다. 특히 신개념 종무행정, 재정기반 구축, 불교문화의 21세기 신성장 동력화 등에 신도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과도 소통해 국민들이 불교를 신뢰하고 또 스님들을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출재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도 소통이 잘 되도록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자성과 쇄신을 완성시켜달라

조성택 우리는 선우 이사장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자성과 쇄신 결사'를 완성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결사가 용두사미로 결사가 끝난다면 한국불교의 변화는 요원한 일이다. 자성과 쇄신 결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식 개혁, 시대에 맞는 청규 제정을 비롯해 화쟁위원회의 이웃종교와 함께 할 수 있는 종교평화선언,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등이 함께 이뤄진다면 한국불교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재 무	종 천
학 장	덕 민	사 회	종 민
선 원 장	종 우	포 교	성 요
총 무	종 천	호 법	각 천
기 획	정 문	사 서	정 빈
교 무	정 수	회 계	성 명
		신도회장	이 영 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너와 나, 둘 아니게 볼 때 사회서 성공”

황수경 동국대 교수, 명상리더십센터 강연

“학교공부만 잘하면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사회지능(SQ)이 필요한 시대다!”

황수경 동국대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가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이사장 정경연) 명상리더십센터에서 개최한 ‘일상의 쉼, 몸 마음 통합 힐링 명상’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명상리더십센터는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마음 건강을 위해 황수경 교수를 비롯해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마가 스님, 장성화 해피로터스 명상연구소 대표, 서윤숙 명상마사지 심리상담연구소 대표 등 명사를 초청해 강연을 펼친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황수경 교수는 ‘명상과 힐링– 명상과 사회지능(SQ)의 시대’ 를 주제로 강연했다.

황 교수는 “미국의 카네기 공대 졸업생 1만명을 조사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니 ‘머리가 좋고 명석한 사람’ 은 15%에 불과했다. 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사람’ 은 성공률이 무려 85%였다”며 “달리 말하면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이 다른 어떤 업무능력이나 조건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며 사회지능(SQ)지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사회지능(SQ)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며, 상대에게 파장을 맞추는 경청 등 사회적 자각,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자각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황 교수는 “이러한 공감능력은 불교의 근본사상인 자리이타(自利利他)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한마음으로 연결돼 있는 연기(緣起)적 존재다. 타인이나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고정된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불이(不二)법으로 볼 때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위하고 살리는 둘 아닌 존재들이다. 이는 대승보살에 잘 드러나며 대승보살은 바로 21세기 인류가 지향하는 최첨단의 인간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행 스님 ‘한마음’ 가르침 강조
사회 지능(SQ)이 성공 요소 작용
불교여성개발원 11월까지 강좌
‘일상의 쉼, 힐링 명상’ 주제로


지혜로운여성 명상리더십센터에서 개최한 ‘일상의 쉼, 몸 마음 통합 힐링 명상’ 강연에 참석한 불자들

이어 황 교수는 사회지능과 공감능력을 키우려면 명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구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명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명상경영지도자로 활동하는 뉴욕의 유명 CEO인 마이클 캐럴은 〈Awake at work〉라는 책을 통해 마음수행을 할수록 업무 능력을 신장시키고 관계를 좋게 한다는 것 설명하고 있다”며 “명상은 마음 뿐 아니라 집중력 증가와 신체건강, 스트레스 감소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사회지능을 대행 스님의 가르침과 연결시켜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20여개 이상의 지원을 설립하고 현대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한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은 참선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하나되는 한마음인 것”이라며 “나와 타인이 둘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행복을 바라고 고통을 없애주려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문화상품, 전 세계에 알린다

불교문화사업단, ‘2013 디자인코리아’ 참가

1700년 전통이 서린 아름다운 불교문화가 21세기 현대적인 디자인의 옷을 입고 재탄생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은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3 디자인코리아’에 참가해 다양한 문화상품을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문화상품은 불교문화사업단이 자체 개발한 상품과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기념품,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수상작품 등 100여 점에 이른다. 문화사업단은 박람회 기간 동안 연화문 손수건 그리기 등 체험행사를 진행해 일반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미를 알릴 계획이다.

디자인코리아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지난 2003년 시작돼 글로벌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국내에 소개하고 우리 디자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해온 국제 규모의 디자인박람회다.

단장 정산스님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국불교가 지닌 우수한 문화콘텐츠가 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2013 디자인코리아’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출품한 불교문화상품 향로.

금강산 신계사 6주년 남북불교 하나로

민추본–조불련 10월 12일 합동법회 봉행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스님, 이하 조계종 민추본)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는 10월 12일 ‘금강산 신계사 복원 6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이하 합동법회’를 금강산 신계사에서 봉행했다.

이번 합동법회 참가대표단은 조계종 민추본 본부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총 22명이며, 북측은 조불련 중앙위원회 리규룡 서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동법회는 남북불교도들이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부처님전에 서원하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민추본은 “올해 들어 첫 민간차원의 사회문화교류 방북행사로서 이번 합동법회를 계기로 종교계를 비롯한 각 분야 교류사업이 활성화되고 남북간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고양시 일산노인복지관 어르신 체육대회

10월 18일 경기영상高서

고양시 일산노인복지관(관장 성화)은 10월 18일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미디어파크에서 제17회 노인의 날을 기념한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관장 성화 스님은 “2001년 5월 12일 일산노인복지관 개관 기념으로 처음 개최된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며 “모두가 하나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행사는 어르신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노인의 위상을 재정립하며 신개념의 노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행사는 풍물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오전 · 오후로 나뉘어 다양한 체육 경기,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가좌어린이집 원아들의 특별무대 등이 펼쳐진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후원으로 이루어진 행운권 추첨을 통해 행사 참여자들에게 공연 관람권, 가족식사권, 가전제품 등이 주어진다.

정혜숙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과 남가주사원연합회 등은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LA 한인타운에 열린 한인 축제에서 한국불교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LA에 널리 퍼진 한국불교의 법향

종단협, 9월 25~29일 한인축제 참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LA한인축제에 참가해 한국 불교 전통문화를 널리 알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9월25~29일 열린 LA 한인타운 내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 ‘한인의 날’ 축제에서 한국문화 홍보 및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종단협과 남가주사원연합회, 포교사단 LA지회 등이 연대한 가운데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홍보부스는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한 DVD 상영, 한국불교소개 영문책자 전시 및 열람, 한국불교 사진 전시, 현지 사찰 소개자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체험부스는 연등 및 연꽃 만들기, 석굴암과 석가탑 등 한국 문화재 만들기, 부채에 단청 그리기, 탁본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단장이자 종단협 사무처장 각우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아름다움과 전통을 널리 알려 한국불교 세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가주사원연합회장 묘경 스님도 “LA 불교의 단합과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맑고향기롭게 ‘나눔국민대상’ 수상

나눔 시민운동 인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사)맑고향기롭게가 10월 4일 제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2013’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맑고향기롭게는 불우이웃 돕기 활동 등의 후원이 실천하는 시민운동의 모범사례로 그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나눔의 실천은 꼭 큰 기부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작은 기부라도 실천해서 모인 사랑이야말로 큰 사랑”이라며 “정부도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맑고향기롭게는 “맑고 향기로움이 사회적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보건복지부와 KBS가 주최하고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추진위원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유공자를 발굴 ·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정혜숙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大韓佛教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박덕수

총무원
총무원장 장도정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도웅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이보광
규정부장 이갈지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조용문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 김형구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총장 정병조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 TEL 043)423-7100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대한불교관음종

현대불교신문 창간 19주년을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관음종 국제학술대회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8-3(종로 63가길 31) 전화 02)763-0054 팩스 02)763-5851 www.kwanum.kr

“한국불교 지나치게 상품화·선불교 훼손”

현각 스님 e-메일 인터뷰 <A1면서 계속>



현각 스님은 … 하버드대 재학시절 숭산 스님을 만나 출가했다. 현재 독일 뮌헨에서 불이선원을 열어 서양인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유럽으로 처음 갔을 때 규모가 큰 한국 불교 사찰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한국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한국의 전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느꼈고, 특히 서양스님이 외국에 큰 규모의 사찰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불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으며, 때문에 저도 외국에 사찰을 설립하는 것을 통해 보답하고 싶습니다. 전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사찰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으로 와서 보니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양에 사찰을 짓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설계사, 변호사들과 회의를 하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 하는 등 많은 노력과 참을성을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신심있는 서너 그룹의 재가 불자님들이 몇 년 동안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금적으로 저를 지원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현재는 영어번역 작업을 하면서 월세와 의료보험료와 같은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승일 뿐 입니다. 오로지 참선수행 할 뿐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이나 행정실무와 관련하여 해박하지 않고, 관료문제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사찰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저는 사찰을 관리하는 많은 주지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정신적인 수련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작업에도 많은 정신력을 쏟고 있으니까요.”

-추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방랑자 입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정신을 열 수 있는 기술을 깨우쳐주고 제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진실되고 근본적인 선은 건축물과 구조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선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속세에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 ‘기술’ 이요?

“네, 기술이지요. 참정신을 여는 기술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왜 ‘기술’ 이라고 부릅니까?

“알고 계시다시피 절대, 선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도 교조도, 어떠한 체계에 대한 믿음이나 신조, 신앙도 아닙니다. 화두선은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선, 절, 예불, 주력/진언, 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등, 동일한 문구를 반복합니다. 특정한 자세를 취하고 호흡 기술 또는 소리를 통해 개념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본래 타고난 무한한 정식적인 자유를 깨우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마음 기술’ 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매우 과학적인 스승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생을 마감할 무렵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을 단지 내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마십시오. 내가 한 말들을 시험해보십시오.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한 말이 진실 된 것 같으면 나는 진실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말이 거짓 같으면 나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과학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E=mc2’ 에너지 보존법칙이나 상대성이론을 믿고, 이것이 우주를 설명해준다고 이해하는데, 이는 그것이 단순히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수의 과학자들이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값이 ‘E=mc2’ 를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선불교는 종교보다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양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과학적이지 못한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상에 의해 얻는 과학적, 기술적 통찰은 깊이 존중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날 한국 불교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 입니다. 물론 저는 한국 불교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중점적 기술인 선 불교, 즉 참선, 화두 선이 한국 불교를 우리가 강조해서 서양으로 전파 할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종교와 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양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는 선불교의 큰 가르침을 과거의 종교적 표현으로만 전파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자연스러운 회의감과 함께 투명하게 소개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우리의 가르침은 과학과 현대 기술과 함께 발맞춰 가야하며,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의 소중한 보물이 지적이고 책임감있게 소통되지 않는 것을 보면 자연스레 걱정이 됩니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중 하는 것을 보면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비구니가 비구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서양의 시각만이 아닙니다. 저의 스승인 숭산 대선사님께서 1972년 서양에 가셨을 때, 그는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서양의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법랍 순으로만 앉습니다. 비구니가 하루라도 저보다 먼저 출가 했으면 저보다 먼저 앉고 저는 그 뒤에 앉습니다. 서양인으로서 저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렸습니다.

지금은 2013년 입니다. 비구와 비구니들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 있어야 하며, 그들에 대한 차별은 전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계의 교육받은 어느 사회에서도 지지 받지 못하는 사회적 차별의 전파 때문에 한국 불교가 교육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 받을 때 마다 부끄럽습니다. 한국은 여성 대통령을

비구와 비구니 스님 동등한 대우받아야
템플스테이, 정신적 깨달음 강조안해 문제
한국불교 선 수행, 서양에 전파할 자산

당선시킨 나라가 아닙니까? 유럽의 가장 강력한 정치인, 독일의 안젤라 메르켈 수상 역시 여자 입니다. 한국 불교는 변화하는 현대 사회를 당연한 자세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25년 넘게 수행해오셨는데 한국 불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불교계는 현대화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변화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 문제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몇몇 종교는 현대적인 시각에 대응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에 의해 참선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참선은 혈압을 낮추고 뇌파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숨이 깊어지도록 도와주고, 의사 결정시 더 집중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술의 매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서양 스님들은 이것을 큰 실수라고 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불교를 ‘깨달음’ 에서 단순한 문화 차원을 강조하는 관광 수단으로 변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깨달음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찰의 포교방법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관여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템플스테이는 수행이 아닌 문화적인 프로그램임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한국 최고의 관광 자원인 아름다운 사찰을 극도의 효율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템플스테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걸까요? 성철스님과 구산스님이 상상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템플스테이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따른 성장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사찰 방문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이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 산업에 사찰과 전통을 이용하기로 결정한 결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이 쟁점은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 저는 템플스테이가 한국 불교의 전파에 있어 최선이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서양 스님들은 좋은 의도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우리의 가르침과 표현방법에 대해 자금과 정치적 영향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이 상황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독일인 제자와 동행했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로 스님이 되기를 원하는 제자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화계사로 갔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사리탑에 절을 하고 서양에 한국 불교를 전하고 있는 가르침의 본거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동행을 통해 제자의 신뢰를 높여주고 전통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 종탑 앞에 섰습니다. 석가탄신일을 위해 종탑 하단에는 아름다운 등이 달려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그림이 있는 큰 등이 있었으며 바로 옆에는 코끼리 그림이 있는 큰 등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코끼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아시아 불교국가에서는 코끼리가 부처의 이미지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그림은 한국 불교가 오늘날 어디에 와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 두 그림은 싸이가 강남스타일 말춤을 추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이것이 석가모니 그림 옆에 나란히 걸려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머릿속에 정말 강하게 각인됐습니다. 유럽인 제자 역시 이것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물어왔습니다. “스님! 왜 숭산 대 선사님의 위대한 사찰에 대중문화를 전파하는 이미지가 부처님의 그림 바로 옆에 나란히 있습니까?” 이것이 제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 불교인들의 자긍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지 국가의 성공과 권력때문에 한국 선 불교의 중요한 정신적인 이점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제일가는 보배는 불교 가르침, 그 중 한국불교의 화두선입니다. 왜 그렇게 천박하게 파괴해야합니까? 요즘 우리는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행사에 페이스북과 대중 매체의 관심도가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불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관광입니다. 부디 진실되고 본질에 맞는 이름으로 이것을 일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와 대중 매체 속에서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하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템플스테이는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속세와의 연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다른 종교들은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의 불교 자금지원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불교 사찰들이 정신적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다 문화사찰에서의 경험을 강조하게끔 요구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문화적 경험을 절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깨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모든 존재를 구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아프고 배고픈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기분이 좋지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템플스테이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이 정부에서 지원되므로 불교계 스님들은 여기에 가깝게 연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국 수녀님 한 분이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현 상황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병원이나 고아원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한 지원 자금이 성당과 관련하여 절대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리를 전파하는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에서는 왜 정부가 이렇게도 깊게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법에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두었는지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선을 가르치는 것은 제게 큰 즐거움이고 열정입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불교는 지나치게 상품화 되었고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자 상업적 문화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슬퍼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쳤던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몇몇 스님들이 관광객들에게 템플스테이 소개를 위해 베를린의 관광 박람회 부스로 초대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동료 스님들을 봤을 때 그 사진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관광 박람회에서 엄격한 승복을 입고 앉아서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해 사찰에서 연등을 만들도록 책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돈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깨달음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단지 수박 겉핥기일 뿐입니다.

아마도 경호 스님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정신적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 분은 생의 마지막에 다달아 조용하게 자기 수양에 임하기 위해서 홀연히 사라지셨는데,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여러분 앞에서 제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선가에서 여러분과 같이 자기수양을 위한 참선과 아쉬탕가 요가를 하며 함께 정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 033)339-6800 | www.woljeongsa.org

템플스테이 홍보 국제 서포터즈 결성

글로벌 템플스테이 홍보 자원봉사 교육 실시
미국, 캐나다 등 15개국 60명 참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서 온 60명의 청년들이 10월 9일 템플스테이와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모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서 온 60명의 청년들이 템플스테이와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모였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산)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10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 국제회의장에서 '2013 글로벌 템플스테이 홍보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T.P.S)'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우 스님(비로자나 국제선원), 하영태 대불청 연수국장 등 사부대중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이제 템플스테이는 불교인들만의 문화를 넘어 시민과 세계인이 참여하는 한국 대표 전통문화로 자리매김 했으며, 외국인의 참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자원봉사자 여러분은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느낀 그대로를 여러분의 이웃, 친구에게 이야기 해 템플스테이가 갖고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현대인들에게 전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우 스님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여러분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템플스테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서포터즈의 마음가짐과 자세' 를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첫날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내 ·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은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전세계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네오(24 · 남)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5년째 접어든다. 대학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불자로서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말레이시아의 불교와 한국불교의 차이점도 배우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 · 외국인 청년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2달간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 사찰 생활 익히기와 한국 불교 교리와 수행에 대해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은 △10월 1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체험 △10월 17일 템플스테이 음악여행 △10월 23일 불교역사 이해 △10월 30일 불교문화 이해 △11월 6일 불교교리 이해 △11월 13일 T.P.S활동 이해와 활동 모형 만들기 △11월 23일 불교수행(명상) 체험, 팀-웍 프로그램 △11월 27일 자원봉사의 자세와 역할 △12월 7일 미션수행 발표 △2014년 1월 18일 팀 활동 발표 및 소감 나누기 불교수행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한국 불교와 전통문화를 외부로 알리는 홍보자원봉사 활동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또한 교육 과정과 활동 기간 동안 서포터즈는 몇 개의 팀으로 구성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템플스테이 여행 로드맵 만들기, SNS홍보 및 사진 콘테스트, 템플 프로그램 모니터링, 외국인이 만드는 템플 프로그램 등의 여러 수행 과제를 진행하면서 템플스테이에 직접 참가해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모니터링과 제안을 하게 된다.

하영태 대불청 연수국장은 "지난 4월에 진행한 연등회 국제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 하반기에는 템플스테이를 활용해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 매년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자원봉사자를 배출해 한국불교와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청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10월 17일 오후 5시 남인사마당 야외공연장에서 '음악여행 콘서트' 를 개최한다. '이등병 편지' '가을 우체국앞에서' 를 작사 · 작곡한 김현성씨가 법정 스님의 산문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를 음악에 담아 들려준다. 또한 타악 퍼포먼스 그룹 '야단법석' 이 모듬북 연주 등을 선보인다. (02)738-1920 이나은 기자

조계사 · 지혜로운여성, 한부모가족지원 나선다

10월 5일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사진 왼쪽부터 이영호 센터장, 도문 스님, 정경연 이사장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과 조계사가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손을 잡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데 앞장선다.

지혜로운여성(이사장 정경연)과 조계사(주지 도문)는 10월 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모 · 두 · 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 · 두 · 다' 는 '모양새는 달라도 모두 행복한 가정입니다' 의 줄임말이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 중 하나인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취지로 201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문 스님, 정경연 이사장,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을 비롯해 조계사 방문객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영호 센터장은 "중국의 육조혜능선사도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해 훌륭한 선사가 됐듯이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에게 편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혜로운여성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추후 한부모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이해하고,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줄 것을 다짐했다.

또한 조계사는 한부모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과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및 이해 교육, 홍보활동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조계사의 다양한 행사와 법회 시 조계사를 방문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추후 타 사찰과의 업무협약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해교육을 보다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861-302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배첼러 부부의 명상 지도

약수정사, 10월 16일 명상교실 마련


스티븐(우) · 마르티네(좌) 배첼러 부부

스티븐(우) · 마르티네(좌) 배첼러 부부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로 알려진 스티븐 · 마르티네 배첼러 부부가 지도하는 명상교실이 열린다.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약수정사는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 해외포교의 선구자인 구산 스님의 제자였던 스티븐 배첼러와 마르티네 배첼러를 초청해 명상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갖는다.

배첼러 부부는 지난 4일 열린 구산 스님 학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두 부부는 영국 명상 휴양센터인 샤르팸 트러스트와 가이아 하우스에서 위빠사나를 가르치고 강연과 출판을 통해 전법하고 있다. (02)353-2154 이나은 기자

전통문화 보호에 나선 청소년 모여라

파라미타, 문화재지킴이 봉사대회

청소년문화재지킴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4회 청소년문화재지킴이 봉사대회' 가 열린다.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1월 23~2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다. 발표대회 참가 희망자는 파라미타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PPT 또는 영상으로 제작된 활동보고자료를 첨부해 11월 8일까지 파라미타 사무국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우수자에게는 동국대총장상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파라미타 총재상, 파라미타 회장상 등 다양한 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법륜 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가을강연

전국 40여곳서 진행

(재)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10월 14일 충북대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 · 경기 · 강원 · 경북 등에서 '2013 가을 법륜스님 희망세상만들기' 를 진행한다.

'2013 법륜스님 희망세상만들기' 강연은 2008년부터 시작한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전국 강연을 확대한 행사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민의 삶이 점점 고단해지고 우리 사회가 피폐해지면서 불안과 양극화의 심화로 오갈 데 없는 국민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그 대안을 찾아 희망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전국을 다니며 진행되고 있다.

법륜 스님의 강연은 강연자가 미리 구상한 것을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형식의 강연이 아니라, 강연장에 온 관객이 무엇이든 질문하면, 이에 대해 스님이 즉석에서 대답하는 쌍방 소통의 형식이다.

이밖에 평화재단은 법륜 스님의 '새로운 백년' 북콘서트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교사 멘토링' 전국 순회 강연도 함께 진행한다. (02)581-0581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총재 장각성. 회장 무산. 전국지부종단관리위원장 무공. 부위원장 지법. 재정관리총괄위원장 도현. 사무총장 대명

2013년 10월 현재, 256개 법인지부 종단이 가입된 한국불교 최대조직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 복지재단
SOCIALWELFARE CORPORATION W.F.B W.F

총재 안창길

전국지부 및 회원 모집 안내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법인관리위원장 무공. 대외협력위원장 운봉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2-43호 / 설립허가일 2012.4.9)
대법원등기등록번호 : 110321-0039311, 등기번호 : 003931

■ 사무처 : 서울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412호. 317호) ■ 전화 : 02)2198-5022~4. 2198-5441~2 / 팩스 : 02)2198-5025. 5443 / H.P 010-4167-3666

(사)전사련 강원 율원 율사 승가교육원 수강생 모집

- 모 집 안 내 -
일시 : 2013년 11월 6일(수요일) 11:00 입학식 / 장소 : 경기 화성시 매송면 숙곡2리 605-2
(사)대한불교반야수교원 천불사 代) 031)294-3568

사암연합회 강원 율원 율사 승가교육원 설립공고 및 교육실시

1) 총재 각성. 회장 무산. 사무총장 대명. 대외협력위원장 운봉. 재정계획관리본부장 도현. 전국지부종단관리위원장 무공. 증명대법사 성해
2) 교육 운영 교수님 : 학장 무공. 부학장 지법. 사무총장 대명. 사무국장 도선
3) 교육 과목 및 교수님
금강경 : 무공. 불교학개론 : 대명. 초발심자경문 : 월성. 범패/의식/작법/바라 : 총괄 월성 스님 및 의식 전문 스님.
불교한자역해이론 : 윤기순 (종교세계신문사발행인) 등 다수 별도 특별 교수 스님을 모시고 특강교육.
4) 교육일정 : 정규 2년 교육(4분기 학과) / 월 4회 매주 목요일 교육 (주1회 8시간 교육)
5) 교육일정 시간표
오전 10:00-12:00 / 오후 13:00-14:20 / 오후 14:30-15:20 / 오후 15:30-16:20 / 16:30-17:20
6) 교육 이수자 조건
종단 교육 이수 수료증 / 종단 중덕 품수증 발급 / 복지사 자격 취득 안내
7) 사암연합회 지원
종단 불교의식 일원화 / 종단불교의식,경 체계화 / 종단 제의식 행사 지원(전문 의식 스님) /
사암연합회 체계적 전문인 구성으로 연합회 조직 확장 (각 종단 지원 및 협조)
8) 교육 시간표 및 운영공고는 교계 신문 별도 참조

상기 위와같이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강원 율원 율사 승가 교육원 설립 및 교육을 실시 하오니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원 법인지부종단님께서 전원 가입 및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불기 2557(2013)년 10월 9일

(사)전사련 강원 율사 율원 승가교육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132번길 12-5 ■ 전화 031)294-3568. 02)2198-5022-4 ■ 팩스 02)2198-5025 핸드폰 010-8011-8414. 010-4167-3666. 010-3866-5358. 010-277-9724

상담개발원, 자살 예방위해 상담영역 확대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불교계 복지단체 업무협약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 스님, 오른쪽에서 네 번째)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박종익, 왼쪽에서 네 번째)와 10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불교계 복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상담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박종익)와 자살예방을 위해 불교적 대안을 공동모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지원과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공유 △자살예방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공동 관심사를 협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살예방 교육, 생명수호 캠페인, 자살위기 전문상담가 양성, 유가족 애도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원은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 5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신규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 설치대상 기관은 강원 지장선원, 전라 명상상담센터 '쉼', 전라 미타선원, 경기 보림사, 경상 보성선원 등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협약 체결은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중요성에 불교계가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자살예방에 대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 증대 차원에서 자살예방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느껴 맺게 됐다"며 "이미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자살예방센터 10곳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교계 사찰 및 불교상담심리사가 운영 중인 상담소를 중심으로 불교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익 센터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9년째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불교가 종교적 차원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등 자살예방활동에 부합하는 점이 많다. 앞으로 다양한 연계활동을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 9월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와 협약을 맺고 불교상담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연구하고 재단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불교상담을 교육하는 등 인적 · 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 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는 어르신 전문 상담 기관으로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에 불교사회복지 및 불교상담기법을 도입해 상담영역을 확장해 나간다.

황선미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은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을 통해 불교상담심리사를 양성해왔다. 현재까지는 상담자원봉사자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영역이 개인적 인맥을 통한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담사들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기관대 기관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지 역	기관 및 사찰명	전 화
서울	불교상담개발원	(02)737-7378
	성림사	(02)334-6465
	참나선원	(02)883-5554
	맑행복치유센터	(02)6338-7676
	서울사진치료연구소	(02)567-2750
	이경애심리상담소	(02)354-4647
경기	불법사	(031)663-0468
	보림사	(031)634-3150
	장경사	(031)332-8981
	정혜사	(031)576-8252
강원	지장선원	(033)436-7222
충청	만불선원	(042)222-3315
전라	영은사	(061)382-3373
	명상상담센터 '쉼'	(061)454-2303
	미타선원	(063)232-0996
경상	대구 보성선원	(053)621-3333

생명나눔에 환우돕기 기금전달

조계사 도문 스님 "시연 스님 백혈병 투병 소식 마음아파"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0월 4일 대웅전에서 열린 '우리동네 조계사' 2주년 기념법회에서 심정민 사무총장(왼쪽)에게 약정서를 전달했다.

조계사(주지 도문)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환우돕기 기금을 약정했다.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0월 4일 대웅전에서 열린 '우리동네 조계사' 2주년 기념법회에서 심정민 사무총장에게 약정서를 전달하며 "지난 달 생명나눔 선정환자인 시연 스님의 백혈병 투병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서 작은 정성을 모아 돕고자 이번 기금 약정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심 사무총장은 "시연 스님께 전화 걸어 조계사 불자님들이 마음을 모아 도와주신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정성이 헛되지 않게 꼭 나아서 보답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뜻있는 일에 힘 모아 보시하는 불자님들이 자랑스럽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치료비 모금 선정환자 시연 스님은 깨달음에 목이 말라 약학대학 재학 중 출가하여 스님이 된 후 수행정진 해 왔다. 올 초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아 투병하는 사연이 알려져 생명나눔실천본부 주관으로 치료비를 모금하고 있다. 4일부터 시작한 이번 조계사 환우돕기 기금은 동지까지 진행한 후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해 시연 스님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내 자식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내 자녀 바로알자' 프로그램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9월 14~30일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통합적 발달을 위한 '오색빛깔비빔밥'을 진행했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10월 22 · 29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 자녀를 바로알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2일에는 자녀와의 관계 및 불편한 문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며, 29일에는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해 익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복지관은 오는 10월 25일 지역 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겨울철 난방비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한 잔, 행복 충전' 일일호프를 진행한다. 한편 복지관은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통합적 발달을 위한 '오색빛깔비빔밥'을 진행했다.

9월 14~30일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4회기 과정으로 , 각 다른 가정이 푸드테라피를 통해 전문임상심리사와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부부와 자녀의 관계를 증진해 가정 내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4회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들이 모여 아동의 성장발달 주기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양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 부모역할강화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인형극 캠페인 및 유치원 ·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형극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신사복지관, 정기바자회 실시

10월 18~19일, 먹거리장터 · 다중지능검사 등 실시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련)은 10월 18~19일 양일간 IBK기업은행 응암역지점과 함께하는 정기바자회 '따사로이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복지관 이용자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따사로이 마을축제'에서는 다양한 의류(여성, 남성, 아동복)는 물론 잡화, 생활용품, 문구류 등을 전시 판매 한다. '무료 먹거리 장터', '캘리그라피 이벤트', '다중지능검사'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지역주민 500명에게 잔치국수, 떡볶이, 파전 등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마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은 먹거리 봉사, 축제 지원활동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판매 가능한 물품이나 사용 가능한 중고물품 등을 기부함으로써 '따사로이 마을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관장 보련 스님은 "은평구 내 지역주민의 관심과 애정으로 매년 이루어졌던 바자회가 올 해는 의미를 확장시켜 '마을축제'로 도약하고자 한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의 정성어린 복지기금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을 안에서 나눔과 도움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진정한 마을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02)376-4141

이나은 기자

중림복지관, 효사랑 나눔잔치 성료



복지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내 어려운 독거어르신들 120분에게 대접하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10월 8일 중림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한화생명과 함께한 '효사랑나눔잔치'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관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 내 어려운 독거어르신들 120분에게 대접하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식사가 끝난 후엔 전통 공연 및 트로트 공연과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기념품도 증정해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한화생명 강북지역본부 봉사단은 2012년 9월부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효(孝)사랑나눔잔치, 김장김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 후원과 봉사활동을 통해 중구지역 소외된 어르신들과 함께 해오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선재방과후교실 특별체험프로그램 '꿈을 키우는 아이들'(꿈.키.아)를 함께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원 각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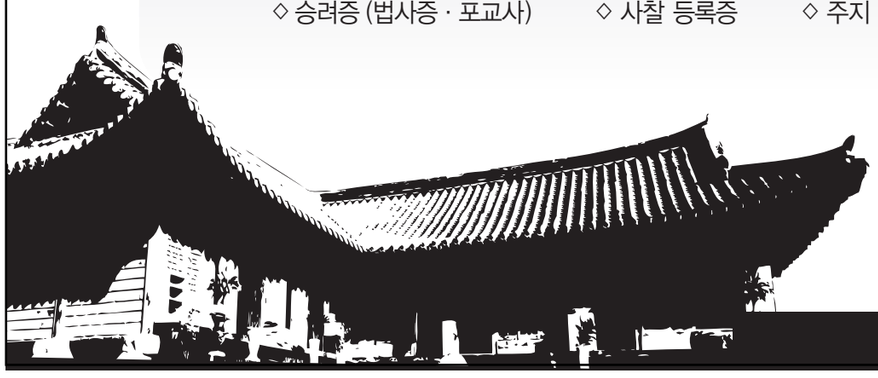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산 47-4번지 수도사
전화 041)531-3792 / 팩스 041)544-1080

◆ 불기 2557년 하계 종도 연수 교육 및 포살 대법회에 동참하신 종도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8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일 주 문



영축문화축제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사 도명 스님은 10월 13일 경내에서 개산 1368주년 영축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보살계 수계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10월 18일~19일 대적광전 앞 탑마당에서 팔만대장경수호 보살계 수계법회를 실시한다.



적광전 개금불사 점안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월 28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점안 법회를 연다.



고(苦) 땡 캠프
제주 원명선원 선원장 대효 스님은 제주도내 30개 고등학교에서 60명이 참가하는 苦땡 치유 캠프를 10월 19~20일 진행한다.



오색빛깔 다문화축제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10월 20일 제 2회 오색빛깔다문화 축제를 봉은사 경내에서 실시한다.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은 10월 25일 2층 법당에서 자성과 쇄신 용맹정진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 108대참회' 를 실시한다.(02)2650-2218



김교각 지장왕보살 대축제
남양주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은 10월 13일 김교각 스님 열반 1218년을 맞아 제16회 '김교각 지장왕보살 대축제' 를 개최했다.



힐링광장 '글로벌 친구 맺기'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10월 11~12일 삼광사에서 힐링광장 '글로벌 친구 맺기' 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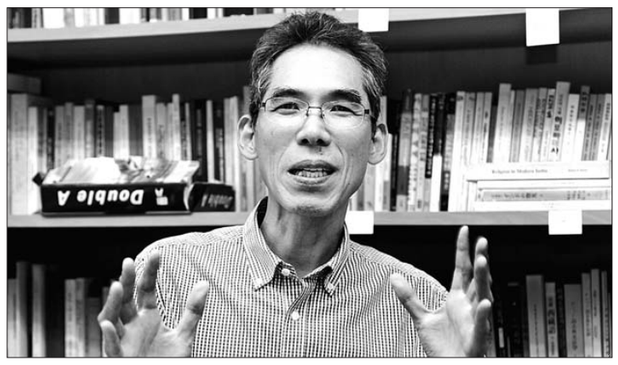
동양화가 지녕 스님 부산 개인전
시인이자 동양화가인 지녕 스님은 10월 20일까지 부산KBS 전시장에서 '지리산 산승의 말하는 풍경화' 를 주제로 첫 개인전을 개최한다.



부산 동명불원 사랑의쌀 기탁
부산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은 10월 7일 남구 용호3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가정을 위한 사랑의 쌀 20kg 20포를 기탁했다.

"한·일교류 답 찾기 3개월 일기썼죠"

일본에서 9개월 만행
귀국한 김호성 동국대 교수



2013년 4월 2일 안식년을 맞아 시코쿠 코치현으로 불교수행을 위해 떠난 김호성 교수가 9월 29일 귀국했다. 우경화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되고 방사능 위험이 높아지는 시국에 일본행을 선택한 그의 결정에 학계는 모두 놀람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안식년을 맞아 홀로 시코쿠의 코치대학에서 청강을 하고 사찰순례를 다니며 수행과 공부에 매진했다. 김 교수는 이번 시코쿠 행에서 〈바가바드기타〉를 완역했다. '거룩한 이의 노래' 란 뜻의 〈바가바드기타〉는 인도 힌두교의 3대 경전 중 하나로 18장 700송으로 구성된 인도철학의 바이블이다. 그의 번역노트에는 20년 동안 쌓은 그의 견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김호성 교수는 "그동안 학교에서 이 것을 가르치면서도 여러 일정에 완전히 번역하지를 못했다. 이번에 일본에서 문법적이나 문학적이나 꼼꼼히 번역작업을 진행했다. 번역의 과정 등을 담아 후학들이 공부하는데 길라잡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우경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느낀 점이 많았을 터. 일본에서 직접 겪은 일본인들의 마음과 한일관계, 특히 불교교류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3개월 동안 이에 관해 매일 일기를 썼어요. 답이 없더군요. 여기서 답이 없다는 말은 만장일치가 힘들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각자의 사상이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관계는 지속될 겁니다. 하지만 불자들이 그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호성 교수는 불자들이 민간교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일본불교사연구소를 설립해 불교를 축으로 한일교류에 나서고 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순례길을 걸으며 수많은 일본 사람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생각을 들었어요. 그들도 한국인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정형화된 모습으로만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민간 교류에 앞장서야
코치 대학서 청강…사찰 순례

김호성 교수는 한일 양국 국민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고 서로에 대해 반목하는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코치대학에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중 일본 아주머니들에게 한국어를 가르키는 학생을 만났는데 귀국 전 한국에도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일본 아주머니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호성 교수는 이어 불교인들은 불교인의 관점에서 한일 양국 관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마음의 상처는 그 상처조차 털어버림으로써 가능하다"며 불자들이 자비의 마음으로 일본을 바라봐 주길 당부했다.

김 교수는 또 그렇기 때문에 한국불교계가 일본불교계를 알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불교계에서 일본불교를 터부시 하는 문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혜능 스님의 경우 중국 혜능 스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용수 보살도 인도 용수 보살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란 스님 등 일본 스님에게는 일본 어떤 스님이라는 국명을 붙입니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일본불교도 알아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아직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용광로와 같아요. 반면 일본불교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대만 · 중국불교 뿐만 아니라 일본불교도 배움의 범주에 넣어야 합니다."

그는 일본 스님 중 잇펜 스님의 행화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잇펜 스님이 입적하시기 전 말하길 '나의 교화는 내 일생으로 끝난다' 고 말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과 자세, 우리들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철학이 중요한 것이지 옛 조사가 어땠다, 옛 말에 이렇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즘 우리 불교계는 돌아가신 큰 스님 선양이 활발합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보여야 합니다."

김호성 교수는 "학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학문을 후학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비판 받을 것은 받고, 더욱 뛰어난 후학들이 나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활짝 웃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타는 잇펜(一遍) 스님

김 호 성

이제 가시는 것입니까
팔백년 미뤄두셨던 길, 왕생의 여정
떠나시는 것입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두 손 모아서
온 중생을 향해서
허리 굽혔던 그 자세
이제는 해제
자유로이 떠나시는 것입니까
작년 여름, 뜻 밖에
뵈었을 때
깊숙이 파였던 깊은 炯眼
그 모습
한번 더 뵈어야지, 하면서도
四國 高知까지 와서도
차일피일하던 중생
더는 더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이제는 내 길 가련다
가시는 것입니까
붉게 타오는 불꽃 속에서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로 저 서쪽 하늘 향해서
날아가시는 것입니까
팔백년을 미뤄오시던 그 길
이제는 내 길을 가련다
떠나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남겨 두었던 마지막 그 길
기어이, 기어이
가시는 것입니까

2013년 9월 29일 高知에서



부산내원정사 석암장학회 전달식



부산 내원정사에서 운영하는 석암장학회(이사장 정련)가 10월 5일일 경내 만불전에서 '제78기 장학금 전달식' 을 개최했다.

내원정사 주지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정련스님은 불교학 전공 동명 스님과 영어통번역학과 박혜연 학생을 비롯한 동국대 재학생 13명에게 총 2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업에 더욱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대표 박성윤씨는 "학비마련의 고충을 덜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학업에 더욱 열중하여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며 "이 장학금은 많은 불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일붕문도중앙회, 일붕문도의 날 법회



(사)초대법왕일붕문도중앙회(회장 동봉)는 10월 10일 해군호텔 대회장에서 '제42회 초대법왕일붕문도의 날 봉축법회 및 회장 이취임식' 을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제15대 회장 의륜 스님, 16대 회장 동봉 스님, (재)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前 조계종 총무원장 의현 스님 등 7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동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붕존자님 탄신 100주년이 되는 2014년을 모든 문도와 함께 준비하여 일붕존자님의 큰 뜻을 잘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계 인사 축사가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제19회 불교인권상 후보자 공모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가 '제19회 불교인권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후보자는 △우리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넓히기 위해 도전 △인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노력 △청소년 인권감수성 및 또래 조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0만원(단, 두 단체나 개인 두 사람이 선정 될 경우, 상금은 조정 됨)이 주어진다. 추천 대상자의 공적 평가 기간 2012년 ~ 2013년 10월까지이며 추천서 마감은 11월 4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한다. 제출서류는 응모 또는 추천서 1부(임의 작성함), 공적 설명서 1부, 이력서 1부, 사진(반명함판) 1매, 활동사진, 신문기사 등 활동 스크랩 자료 1부 등으로 이메일 pencil56@empas.com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식은 11월 20일이다. **정혜숙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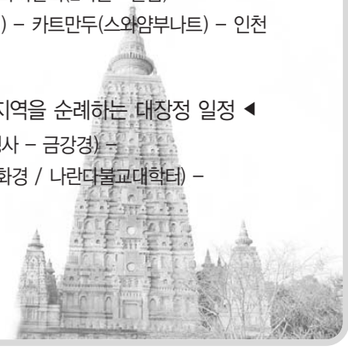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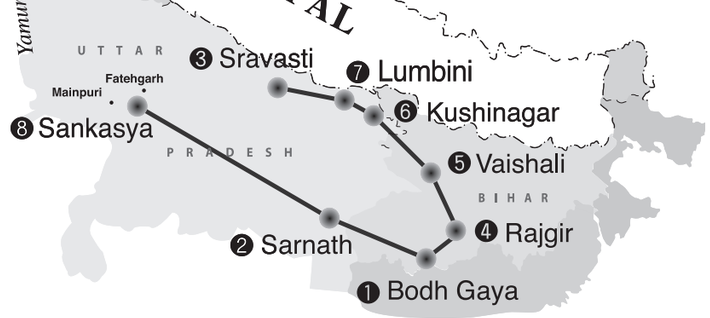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깨달음은 아상 '덜어내는 공부' 에서"

관음종 국제학술대회, '한국불교 되돌아본 50년 그리고 깨달음'

불교의 가당 큰 화두인 '깨달음' 에 대해 각 불교사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고찰한 자리가 마련됐다.

관음종은 '한국불교 되돌아본 50년 그리고 깨달음' 을 주제로 10월 10일 서울 낙산 묘각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깨달음' 에 대해 학자들이 인도철학, 초기불교, 인도불교 및 티벳불교 등 시대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한 논문 25편이 발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무명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의 기본적인 자세" 리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 을 '앎' 이라고 알지만 사실 '실천' 을 의미한다" 고 강조했다. 홍파 스님은 이어 "실천을 통해서 참된 나를 찾을 수 있다" 며 "참 나를 찾으면 인생의 굴곡과 부침에서 부귀영화를 초월해 지혜롭게 존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러한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연을 짓는 것이 수행인의 본분" 이라며 남은 생애동안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학술대회에서는 각계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홍파 스님이 내 놓은 깨달음 총론 20여 편의 불사는 한국불교 내부적으로 학문기관에서 행해져야 했지만 이제야 이뤄지게 됐다" 며 "논총은 불교를 믿고 신앙하는 불자들에게 이정표와 좌표가 될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행사는 우리 불교만이 아닌 중국과 일본의 불교정신을 더불어 살펴보는 자리로 뜻깊다"

불교시대사 따른 논문 25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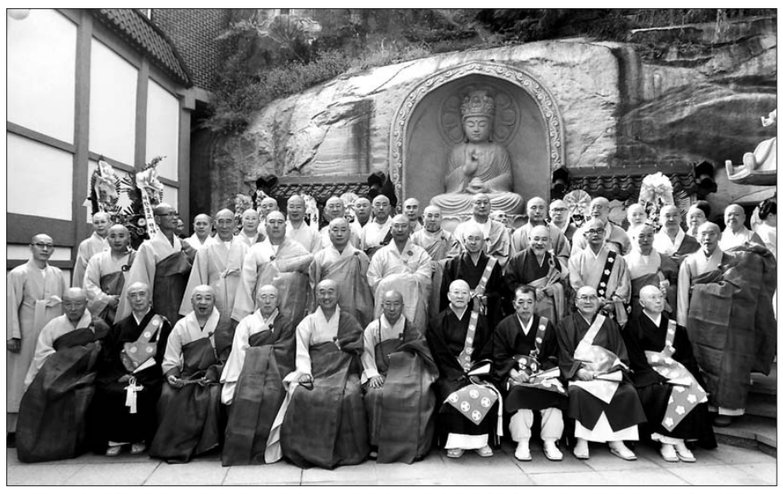
홍파 스님 50년 회고록도 출간

국내외 석학 등 300여명 운집

며 "한중일 불교가 우리 삶에 더 다가가기 위한 지혜를 함께 찾으며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송석구 前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장은 "한국불교는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오며 깨침과 때달음의 선각 풍토를 지니고 있다" 며 "불교의 사회적 참여 등이 조화된 현대 불교의 모습은 한폭의 심우도를 보는 것과 같다" 고 말했다.

박성배 뉴육주립대 스토니부룩대 불교학교수는 미리 보낸 축사문을 통해 " '깨달음' 은 어둠을 쫓아내는 밝음이란 뜻을 갖고 있다. 불교의 깨달음은 태양이 일체 차별을 넘듯이 천하만물을 고루 비추는 것" 이라고 말했다.


10월 10일 서울 낙산 묘각사에는 불자 300여명이 모여 '깨달음' 을 주제로 활발한 논쟁을 펼쳤다.

박 교수는 또 "깨침은 '깨다' 는 어원에서 나왔으며 이는 다시 돌아갈 아성이 없어졌다는 말" 이라며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공부' 가 무엇인지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아집과 아상을 공고히 하는 '보태는 공부' 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버리는 '덜어내는 공부' 를 해야 한다" 며 후학들을 독려했다.

이어 학술세미나에서는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 정승석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신규탁 연세대 교수 등 30여 학자들이 나서 △제1부 인도철학의 깨달음 △제2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의 깨달음 △제3부 인도불교와 티베트불교의 깨달음 △제4부 삼론 · 선 · 천태 · 화엄 · 정토의 깨달음 △제5부 한국불교의 깨달음 △제6부 대승기신론의 깨달음 △제7부 현대불교의 깨달음 △제8부는 해외특별기고 등 한국불교 전반에 걸친 깨달음을 조명했다.

한편, 10월 9일 서울 앰버서티 호텔에서는 홍파 스님의 50년 회고록 〈바람따라 물결이네〉와 학술발표 논총집 〈깨달음 총론〉 봉정식이 있었다. 노덕현 기자

40년 맞은 한국불교학회, 불교학 결집 이끈다

11월 9일, 동국대에서 창립 40주년 맞이 학술대회 개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가 불교학 결집을 위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내 100여 불교학자들이 불교학 연구의 모든 영역을 점점하고 발전방향을 새로이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불교학회는 11월 9일 오전 9시 서울 동국대에서 '결집 한국불교학 40년, 그 연구성과와 과제'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모두 5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분과는 인도 · 남방불교다.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초기불교(황순일 · 조준호), 부파불교(박창환 · 권오민), 중관학(남수영 · 문을식), 유식학(김치온 · 최종남), 인도불교사 · 남방불교사(안양규 · 정준영) 등이 나선다.

제2분과는 응용불교로 제1분과와 학명세미나실, 문화관 등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평래 충남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불교와 비교종교학(한성자 · 최종석), 불교와 서양철학(성청환 · 이희재), 불교교육학(정혜정 · 황옥자), 불교미술사(정우택 · 박은경), 불교와 문학(강도업 · 이성운) 등이 진행된다.

점심 이후 학명세미나실에서는 창립 40주년 기념식도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공로패 전달과 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국내 불교학자 100여 명 총결집

응용, 중국, 남방, 한국, 실천 5개 분과

52개 세부 연구영역 발전방향 점검

이어 기조강연이 진행되며 제3분과, 제4분과, 제5분과가 동시에 진행된다.

제3분과는 중국 · 티베트 불교로 좌장은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맡는다. 중국불교사(계환 스님 · 권기종), 천태학(이병욱 · 정문용), 화엄학(석길암 · 임상희), 정토학(김영진 · 최동순), 밀교 · 티베트불교(김영덕 · 장익) 등이 발표된다.

제4분과는 한국 · 일본불교로 좌장은 최유진 경남대 교수다. 삼국-신라불교(고영섭 · 남무희), 고려불교(이철헌 · 최연식), 조선불교(김용태 · 이종수), 한국근현대불교(김광식 · 김순석), 일본불교사(원영상 · 배경아) 등이 발표된다.

제5분과는 실천불교로 좌장은 성운 스님이다. 계율학(신성현 · 민벽공), 선학(혜원 스님 · 박재현), 불교여성학(조승미 · 송현주), 불교와 사회과학(이재수 · 조기룡), 불교사회복지학(이혜숙 · 이연수) 등이다.

모든 분과 발표 이후 동국대 상록원에서는 2013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40주년 축하연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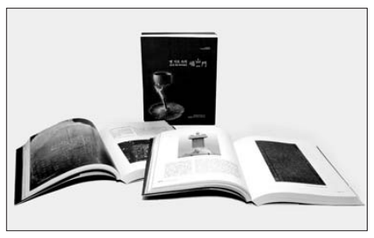
김용표 한국불교학회장은 "연구현황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방안도 함께 제시할 것" 이라며 "현대 세계 불교학계의 연구성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불교학의 세계화 전략도 모색할 것" 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제5회 원효학술상 공모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제5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부문을 비롯해 동서양의 사상에서 본 불교사상과 불교사상에서 본 동서양 사상으로 최근 5년 이내 발표 논문이나 저술을 응모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전임 강사 이상 교수와 박사 과정 후 비전임교수, 석박사 과정 학생이다.

저서는 2부, 논문(별쇄본)은 3부를 제출해야 하며, 학생 논문의 경우 교수(전임강사 및 그에 준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야 한다. 심사 대상작품은 최근 5년 이내(2008년 1월 1일~2012년 12월 30일까지)에 발표된 것에 한한다.(저서는 ISBN 등록본). 외국인의 경우 영어에 한하며, 한국어본 초록(A4 3매 내외)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2014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2014년 4월 중순 경 심사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02) 719-2606

중원문화재硏, 〈옛 기록 속의 굴산문〉 발간


〈옛 기록 속의 굴산문〉

구산선문의 하나인 사적 제448호 강릉 굴산산지에 관련자료가 집대성됐다. 문화재청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삼기)는 최근 강릉 굴산사지(江陵 崛山寺址)' 학술조사연구 사업 결과물로 문헌자료와 금석문 속에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굴산문(崛山門)에 관해 분석한 〈옛 기록 속의 굴산문〉을 발간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굴산사지에 대한 학술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고학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발간된 〈옛 기록 속의 굴산문〉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서류와 금석문, 각종 문집, 사적기 등에 실린 굴산문에 관한 기록들이 발췌돼 실렸다. 강릉 굴산사는 신라 하대에 형성되어 지방사회의 사상적 기반이 된 구산선문(九山禪門) 가운데 굴산문의 본산으로 고려시대까지 활발히 활동을 전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평론, 불교와 심리학 열린논단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소장 허우성)는 10월 1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불교와 심리학, 서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를 주제로 열린논단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논단에는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권석만 교수는 서울대와 호주 퀸스랜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계의 저명학자로 현재 서울대에서 '불교와 심리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와 역서로는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학술원 우수도서), 〈긍정심리학-행복의 과학적 탐구〉(학술원 우수도서) 등이 있다.

불교평론 측은 "불교의 심리학과 현대 심리학의 접합점을 모색하고, 방법론의 차이, 보완점 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02)739-5781

노덕현 기자

데미온 키온 교수 초청 워크숍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 인문한국연구센터는 10월 21~23일 불교윤리학의 세계적 대가인 데미온 키온 영국 런던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집중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강대 본관 5층 사이버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집중 워크숍에서는 △서구에서의 불교 △불교윤리학 △불교와 전쟁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불교문화연구소는 "불교의 교리들이 전쟁과 폭력 같은 현대사회의 비윤리적 문제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는지, 또 불교가 21세기에 이런 문제점들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지 모색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중요목조문화재 단청 조사 진행

중요목조문화재인 단청(丹靑)에 대한 정밀조사작업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10월 7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에 장식된 단청의 현황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훼손 멸실될 경우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중요목조문화재 단청을 정밀 조사한다" 고 밝혔다.

이번에 문화재청이 진행하는 단청기록화 정밀조사 대상은 중요목조문화재 138동이다. 이 가운데 올해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 법주사 팔상전(국보 제55호),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등 4동을 우선 추진하게 된다. 국보 제15호인 봉정사 극락전과 국보 제18호인 부석사 무량수전, 국보 제49호인 수덕사 대웅전 등의 고려시대 건축문화재의 건립 당시 단청은 완전히 퇴색된 상태이다.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나 밑그림 또는 다시 채색한 흔적은 적외선촬영을 통해 원형정보를 확인 후 진행한다. 이외에 사료조사, 3D 스캔, 안료분석, 채색조사, 문양모사, 원형모사도 작성 등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원효종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원수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법에 따라 종회법 제 3조 다음과 같이 종회의원 선거를 위한 각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원 수를 공고 합니다.

교 구	배정 의석수
서 울	2
강 원	2
대 전	2
충 북	1
전 북	1
전 남	2
경 북	3
울 산	4
경 남	2
부 산	4
제 주	2
계	25

종회의원 선거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종법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추어 종회의원 선거를 공고 합니다.

종회법 제6조 의거 각 교구 선거위원회의 구성
● 일시 :2013.10.11일(금) ~ 2013.10.21(월)

종회법 제7조 의거 종회의원 입후보 신고
● 일시 : 2013.10.22(화)
오전 9:00 ~ 2013.11. 5(화) 오후 6:00
● 장소 : 각 교구 선거위원회

종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의거 종회의원 전형
● 일시 : 2013.11. 6(수) ~ 2013.11.13(수)

종회법 제10조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부 판정
● 일시 : 2013.11. 14(목)

종회법 제11조, 제12조 의거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확정 공고
● 일시 : 2013.11.20(수)

2013. 10. 10

선거관리위원장 : 우석
선거관리위원회 : 자성. 선법. 해운. 원해

“단풍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보러오세요”

가을맞이 전남 문화행사 풍성


2012년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 본부가 진행한 무등산 옛길 희망걷기 대회 모습. 올해도 10월 20일 ‘제5회 대회’가 열린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남지역에서 화려한 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11월 1~3일까지 백양사에서 단풍축제를 겸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 풍광을 갖고 있는 것으로 꼽히는 장성 백양사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행사를 마련해 누구나 즐겁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행사는 11월 1일 오전 10시 백양사 본·말사의 모든 신도들이 참여하는 보살계수계산림법회를 시작으로 오후 1시 국악과 어울리는 문화공연, 2일 수안 스님의 사회로 진행되는 7080포크송, 3일 일반시민들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각각 개최한다. 행사기간동안 쌍계루에서는 비구니 사찰인 천진암 스님들의 사찰음식 시연과 전시회를 갖는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는 천연염색, 단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광주지역 불교계는 10월 16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회관에서 지난 6월 입적한 범능 스님을 추모하는 음악회를 연다. 이날 행사에는 노래하는 스님인 범능 스님을 추모하기 위해 광주지역 불교계 합창단이 연합해 불교음악을 선보인다.

특히 범능 스님은 생전 지역 불교합창단을 지도하며 부루나합창단 등 합창단 창단을 주도했다. 음악회에는 이런 범능 스님의 마지막 유훈을 담아, 스님의 유작앨범 ‘나 없어라’를 비롯해 스님이 노래와 만든 곡들을 합창단의 목소리로 들려줄 예정이다.

화엄사 10월 19일 ‘화엄음악제’
백양사 11월 1~3일 7080음악회
범능 스님 연합합창대회도 열려

음악회에서는 고규태 시인의 진행으로 부루나합창단, 카일라스합창단, 증심사합창단, 원각사합창단, 길상사합창단, 심진 스님, 정율 스님, 이동원, 천음실내악단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구례 화엄사**는 10월 19일 세계적 영성음악가들을 초청해 내적 평화를 기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희망의 음악회를 연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화엄음악제’는 ‘첫 번째 빛’을 주제로 빛의 의미인 영원한 자유와 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세계 각국의 음악들이 다채롭게 선보인다.

음악회에는 소리의 생태학자로 불리는 독일 출신의 스테판 미쿠스 씨를 비롯해 전문 국악단체 정가악회, 음악가 정재일과 카입, 원일 씨, 싱어송라이터 가수 최고은 씨 등 국내외 정상급 영성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061)782-7600

이와 함께 단풍이 지는 무등산 자락에서는 백혈병 환아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걷기 대회도 열린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0월 20일 무등산 청풍쉼터에서 ‘제5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무등산 옛길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소아암백혈병 어린이 치료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무등산 청풍쉼터에서 원효사에 이르는 5.35km를 걷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걷기 외에도 치료비 전달식, 문화공연, 백혈병환우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세지 전하기, 장기기증희망등록접수, 헌혈증서 모집 및 모금 캠페인이 같이 진행된다.

생명나눔실천본부 관계자는 “무등산 산행을 통해 환우아이들을 위한 기원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참가자의 즐거운 산행의 의미도 담고 있다. 매년 스님을 비롯해 기업체, 불교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환우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비는 5천원으로 도시락과 식수가 제공되며, 참가자에 한해 선글라스, 비타민, 상품권, 목욕용품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문화 알리는 야단법석

내소사 괘불재 1000여 대중 운집해 산사의 정취 만끽


10월 5일 부안 내소사에는 1000 여 대중이 모여 가을산사의 정취를 만끽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학)는 10월 5일 대웅보전앞 마당에 영산회괘불탱화(보물 1268호)를 내걸고 괘불재와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내소사 괘불재는 범종 33타에 이어 괘불을 대웅보전에서 철 당간에 내거는 괘불이운, 범패와 영산적법,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발원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문 낭독, 육법공양, 행복한 마음을 담은 기도의 시간인 통천, 음성공양, 괘불을 다시 법당으로 모시는 괘불봉안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괘불재에는 지용현 광주전남 신도회장, 김춘진 국회의원, · 김호수 군수, 광주 카일라스 합창단을 비롯해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해 성대하게 봉행됐다.

법광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내소사 괘불 부처님께서 나투신 것은 평등사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대중들은 탐욕과 미움을 돌려 차별없는 평등과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자”며 “일상생활에서의 행이 순수한 마음의 삼매가 되어 환희 묘약이 될 수 있도록 가피하여 달라”고 발원했다.

진학 스님은 “티없는 가을하늘처럼 이처럼 많은 대중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소사 괘불재가 지역민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산사에서 음악회를 즐기며 깊어가는 가을을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괘불재에 이어 한국전통무용단 ‘秀’의 특별공연과 가을산사음악회가 방송인 권영찬 사회로 진행됐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도신 스님을 비롯해 탤런트 김성환, 가수 김도향, 김정연, 박강수, 은빛무용단, 국악인 최영인 등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참석 대중들은 가을 밤 산사의 정취에 흠뻑 젖어들었다.

한편 보물 1268호 내소사 괘불은 높이 10.5m, 폭 8.17m로 조선 숙종 26년(1700년)에 제작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대중들에게 설법하는 모습을 담은 영산회상도이며 석가모니불을 비롯해 다보여래, 아미타불,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의 명호가 낱낱이 기록되어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청암사, 주민 위한 요사공간 마련

여수 청암사(주지 지암)는 10월 5일 요사채 낙성식 및 포대화상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취임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임제불교조계종 원로원장 진도 스님, 부종정 자은 스님, 원로위원 석보 스님을 비롯해 임제불교조계종 중요 관계자와 신도 2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행사, 법어에 이어 축하공연, 테이크컷팅 등이 진행됐다.

지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청암사 요사채가 신도들의 신행생활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산 스님은 이날 법어에서 “수행은 삼독심을 태워버리는 것이며, 이것이 복밭을 만드는 것이다”라며, “청암사의 새로운 공간에서 수행을 통해 복밭을 잘 가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완공된 요사채는 30평의 건물에 부엌, 화장실 등이 마련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청암사는 그동안 광주소년원, 전주소년원에서 ‘자비의 멘토’ 등 교정교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지역 우두리 마을 어른들 초청잔치를 벌이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안지역 4대 종단 공동 봉사활동 펼쳐

전북 부안지역의 불교, 기독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단이 종교를 넘어서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다.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와 부안지역 4대 종단 대표는 10월 10일 부안군청에서 ‘화합과 희망 프로젝트 사업’ 협약식을 열고 자원봉사 활성화와 사회통합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종단은 협력 체계를 갖추고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한편 신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첫 사업으로 11월 중으로 종단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남양주 슬로푸드 대회서 ‘불교음식’ 인기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아시오 구스토 · Asio Gusto)가 10월 1~6일 53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고 성공리에 마쳤다.

특히 이번 대회 4일에는 국제관 맛 워크숍에서 한일 불교음식의 비교 체험 코너가 열려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사찰음식의 국내 대가인 선재 스님과 일본 전문가인 후지이 마리 씨가 양국의 불교 음식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밖에 남양주시체육문화센터 내 야구장에서는 ‘걷기명상 및 빈그릇체험’ 자리도 마련됐다.

노덕현 기자

전북불교회관, 6일 켄 린포체 초청법회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륭)는 10월 6일 큰법당에서 티벳 선지식인 켄 린포체(인도 가덴샬체 사원장)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오른쪽 사진〉

이날 초청법회에는 김제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해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켄 린포체 스님의 법문을 경청했다.

성우 스님은 “절대 확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사불괴정은 불법승의 삼보와 가장 보편타당한 도덕인 계율에 대한 절대 확실한 믿음을 의미한다”며 “돈독한 신심과 부동의 신심으로 생활할 때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법회에 앞서 인사말을 말했다.

이날 켄 린포체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자들이 윤회라는 고리를 극복해 내는 마음자세와 실천행을 되새겨 보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며 “모든 생명체들이 지닌 근본마음인 보리심은 최상의 경지인 깨달음을 향한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이며 윤회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고 설했다.

켄 린포체 스님은 인도 문곳에 재건된 가덴샬체 사원의 총괄 책임을 맡은 사원장으로 2009년에 14대 달라이라마(뗀진갸초)에 의해 책봉됐다. 가덴샬체 사원은 티베트불교 겔룩빠의 3대 대표 사원(대붕, 가덴, 세라) 가운데 하나이며 대만에도 그 분원이 설립돼 있다. 켄 린포체 스님은 당초 세계순례대회에 초청되었으나 세계순례대회에 불교계가 불참함에 따라 한국불교계의 뜻에 따르겠다며 참석하지 않고 전북지역의 사찰을 방문하고 이날 법회에서 설법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조 실 현봉근일
회 주 송암혜승
회 주 원조각성
주 지 남전호성
부주지 등운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재무국장 두견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우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륜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탄하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운
안성장애인복지관 관장 이호걸

템플스테이 둘째 · 넷째주 토 ~ 일(1박 2일)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 054)833-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종 정 법정 홍인
총무원장 혜 상

입종 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 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도 일 동

※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장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총무원 054)632-2799, 011-228-7813

지역 간 사찰 유대와 협력 도모

부산 수영구불교연합회 창립



부산 수영구불교연합회 창립법회와 초대회장 취임식이 10월8일 유토피아 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부산 수영구불교연합회 창립법회와 초대회장 취임식이 10월8일 유토피아 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초대회장에 영주암 주지 범산 스님이 추대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상임부회장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효원 정사, 유재중 국회의원, 박현욱 수영구청장, 신무흥 수영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

수영구불교연합회 초대임원에는 수석부회장 도오 스님(백룡사), 부회장 상영 스님(서운암), 총무국장 법우 스님(영주암), 재무국장 대공 스님(대광사)이 감사에는 관행 스님(극락선원), 일오 스님(옥련선원)이 임명됐다.

범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산사의 단풍이 곱게 물들어 가는 아름다운 계절, 곡식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에 수영구불교연합회가 새롭게 창립된 것은 부산불교의 소중한 결실"이라며 "지역 간 사찰의 유대와 협력을 통해 소외 받고 고통 받는 불자들을 따뜻하게 끌어안는 중생구제의 '나눔의 불교' 를 향해 굳건히 매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범산스님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길을 걸어 온 대덕스님들과 공덕 높은 재가불자들의 행보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항상하길 기원하며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16개 구연합회가 한마음이 되어 불교도시 부산에서 국제불교 도시 부산으로 원력을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초대회장에 범산 스님 추대

유토피아 관광호텔서 취임식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은 격려사에서 "동거동락하는 것이 가족이다. 수영구불교연합회의 창립을 계기로 부산불교계가 가족처럼 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며 "올해 네 번째로 창립을 맞게 된 수영구불교연합회는 부산불자들의 조직화와 현대화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부산불교연합회도 함께 동거동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국장 법우 스님은 "수영구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지역구의 보다 집중적인 불법홍포와 부산불교의 조직화 불사를 견인하기 위해 수영구와 남구가 통합되어 있는 것을 분구하여 새로이 창립하게 됐다"며 경과보고를 통해 창립의 취지를 전했다.

특히, 수영구불교연합회는 부산불교연합회가 16개지역구의 불교조직화의 기치를 내건 이후, 2013년 들어 기장군불교연합회, 사상구불교연합회, 부산진구불교연합회에 이어 네 번째로 창립하게 됐다. 이후 10월 19일 창립을 앞두고 있는 남구불교연합회까지 가세하면 올 해 부산지역에 새롭게 출범하게 된 구불교연합회는 총 5곳이 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청암사, 친환경 자연음식 대중에게 선사

산사마당 유미사찰음식 바자회


청암사 산사마당 유미사찰음식 바자회 장면

청암사가 10월 6일 제7회 산사마당 유미사찰음식 바자회를 경내에서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학장 지형 스님 주지 상덕 스님, 박보생 김천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는 '가을 속에 진리 속에 마음 열고 환희롭게' 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찰음식 5점을 소개하고 사부대중에게 유미사찰음식 바자회를 열었다. 행사는 경내 곳곳에서 사찰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친환경적인 자연음식' 을 직접 맛보며 사찰음식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주지 상덕 스님은 "사찰음식은 산과 들에서 나는 천연 무공해 재료로 오신채와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식이라 자연의 맛과 향을 담은 담백하고 소박한 음식"이라며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건강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암승가대 학장 지형 스님은 "사찰 음식의 기원은 유미죽으로 하루에 깨 한 톨, 보리 한 알만 먹고 정진하던 부처님께서 육체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며 수자타란 여인이 유미죽을 올리면서 불교음식의 기원이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날 바자회에 앞서 청암사승가대 학장 지형 스님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인 속가 고모 박채희 씨의 건국포장을 국가보훈청으로부터 전달 받기도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약사선원 약사여래불 가피 대법회

10월 17일 해운대 벡스코서

신비로운 티베트의 밀교 수행법을 현대인들에게 맞게 적용하고 대중화를 시도해 온 '보리선수(菩提禪修) 부산 약사선원' 이 티베트 밀교수행을 체험할 수 있는 대중법석을 마련한다.

보리선수 부산 약사선원(주지 법생 스님)은 10월17일 해운대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약사여래불 가피대법회' 를 개최한다. 송정수련관 완공을 맞아 특별기획한 이번 법회는 한국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첫 대중법회로 현대적인 티베트 밀법을 체험할 수 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으며, 불자 외에도 종교가 다른 이나 일반인들의 참석도 가능하다. 특히, 중국어 동시 통역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동참도 가능하다.

이날 법회는 보리선수가 자체 제작한 아름다운 선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대표적 수행법인 '오체투지' 를 실수하는 체험으로 법석을 열게 된다. 이어 법생스님의 현대적인 티베트 밀법으로 안내하는 법문과 음악이 가미된 약사여래심주, 관세음보살 염송으로 법회가 진행된다.

특히, 법문에 이어 심신의 이완과 선정을 체험하는 수행과 기도가 진행되고 회향은 감로수를 대중들에게 뿌리며 마무리 된다.

보리선수 약사선원은 '진푸티 상사' 가 창시한 현대적 밀교 수행법인 '보리선 수행법' 을 지도하고 실천하는 도량이다. '진푸티 상사' 는 티베트 설산에서 200여명의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구하고 수련을 거듭한 끝에 현대인들을 위한 수행방법인 '보리선 수행법' 을 창시한 수행자이다.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세계 30여개 지역에서 선원을 개원해 수행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보리선 수행법은 만트라와 명상음악, 수인법을 가미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한편 약사선원은 현재 부산을 비롯한 서울과 안산, 대구에 각각 지원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051)702-7746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홍수피해 등 여름 흔적 지울 때


사찰마다 여름 지우기를 통해 사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여름이 지나면서 교란된 계단돌. 사진은 경기도 ㅂ사찰

예년에 비해 이번 여름은 홍수나 더위로 인해서 어떤 사찰이 재해를 입었다는 좋지 않은 소식은 없었던 듯하다. 절에 따라서는 흙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개울물이 넘쳐 농작물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계단돌이 교란되기도 하는 등 조그마한 피해가 있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상하거나 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뉴스가 될 만한 큰 피해는 없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피해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는 자세는 필요해 보인다.

한 계절이 지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다른 계절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계절을 준비하려면 지나간 계절의 흔적을 지워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여름에 있었던 피해의 흔적을 지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사찰의 스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필자가 설계해서 만든 교화공원의 광장 귀퉁이 벽돌이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스님의 걱정하시는 얼굴이 생각나 즉시 공사를 했던 회사의 임원에게 연락을 해서 현장을 가보았다. 보니, 광장 귀퉁이 부분에 물이 차면서 지반이 내려앉아 포장이 부분적으로 교란되어있었다. 배수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사찰안팎의 환경에서 나타나는 여름의 흔적은 흙을 움직이거나 돌을 쌓아 새로 공간을 조성한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특히 생태적으로 민감하고 취약한 구조를 가진 곳을 건드리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을 지나거나 땅이 꽁꽁 얼었다 풀리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 스님들은 가급적 땅을 건드리지 않았고, 땅을 건드리더라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만치만 건드렸던 것이다.

아담한 산사를 보고 "왜 절집 마당이 저렇게 작아? 넉넉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라고 투덜댄다면 옛 스님들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 것이다. 오래전부터 스님들은 땅이 가진 생태적 수용능력을 잘 알아서 땅이 견딜 수 있을 정도만 손을 댔던 것인데, 무지한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다.

아무 탈 없이 여름을 보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환경적 피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사부대중이 건강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찰이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한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사찰마다 여름지우기를 할 때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총림대중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kr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화 061)392-7502 / 전송 061)392-2081


신라문화원 경주 남산 불적 답사 회원들이 낭산의 유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낭산의 들판을 걷고 있는 답사 회원들



황복사지에서 답사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답사 회원들이 낭산의 폐사지를 살펴보고 있다.

낭산, 신라 천년 불교를 지탱한 수미산

狼山

낭산에서 바라보는 남산

천년 고도 경주에는 오악이 존재한다. 동악 토함산, 서악 선도산을 비롯해 남악 남산, 북악 금강산, 중앙의 낭산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낭산이 중앙의 위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산의 중요성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의 10월 경주 남산 불적 답사는 오악의 중앙에 있는 낭산을 순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옛 경주의 중심 '낭산'

최민희 신라문화원 부설 연구소장에 따르면 경주의 지형 조건이 문화 형성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내산과 외산으로 나눠지는 경주의 산악지형은 국도 수호의 방벽 역할을 했으며, 특히 신라 왕궁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낭산은 여러 의미에 있어서 진산의 역할을 했다.

실제 삼사(三祀) 가운데 대사(大祀)를 받들었던 산이 바로 낭산이었던 점에서도 이 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낭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유적들도 모두 산악신앙과 연관해 자리 잡았다. 신라의 진호국가가 도량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천왕사가 낭산의 남쪽에 있으며, 왕실의 기복을 위한 원찰인 황복사는 산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

최 소장은 "사천왕사와 황복사가 있었다는 점은 신라가 낭산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 근거"라면서 "무엇보다도 진호국가의 이념과 산악신앙이 불력(佛力)의 가호 속에 있었던 신라사회에 있어서 낭산은 바로 왕실의 안녕과 기복을 위한 중심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소장은 "낭산이 단순히 호법적인 성격에만 머물지 않고 산 자체가 신앙적 차원으로까지 승화됐다는 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낭산을 신앙적으로 숭상했다는 증거는 '낭산(狼山)' 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구마라집 한역한 〈불설미륵대성불경〉에는 미륵불이 중생, 제자 등과 함께 도래해 오르는 산이 바로 '낭적산(狼跡山)' 이다. 이곳에서 미륵불은 육만 억 년 동안 세상에 머물며 중생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법안을 얻게 한다. 이렇듯 낭산은 신라의 건국 사상과 이념이 불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초이다.

불교, 신라와 경주를 지키다

낭산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곳은 바로 사천왕사와 망덕사다. 현재 사천왕사와 망덕사는 폐사지로서 당시 유구만이 남아있다.

두 사찰의 유래는 밀접히 연관이 있다. 사천왕사의 경우 문무왕 19년(679)에 창건한 것으로 당나라가 그들의 도독부 군사를 공격한다는 핑계로 50만 대병을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자 문무왕은 부처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당나라에 알려지자 곧 사신 악붕구를 보내 이를 확인하게 한다. 신라는 사천왕사 아닌 새로 지은 다른 사찰을 보였는데 악붕구는 "이것은 사천왕사가 아니다. 망덕요산의 절이다"라고 하며 끝내 들어가지 않았고, 신라는 그에게 황금 1천냥을 주었다.

매수된 악붕구는 당으로 돌아가 "신라가 천왕사를 창건하고 황수(皇壽)를 빌고 있다"라고 보고했다. 즉 본의는 아니었으나 망덕사는 당나라 사신을 속이기 위해서 창건된 사찰이 됐다.

그 만큼 사천왕사는 낭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이다. 실제 사천왕사는 신라 칠처가람지의 하나로 선덕여왕이 도리천이 있는 곳이라 하여 신성시하던 곳이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타난 선덕여왕의 유언에서 이 같은 사상이 그대로 묻어난다. 선덕여왕은 유언으로 "자신이 죽으면 도리천에 묻어 달라"고 했으나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여왕은 도리천이 낭산의 산정임을 일러준다.

사천왕이 거주하는 사왕천은 불교세계에서 사바세계의 중심지로 보고 있는 수미산의 중턱에 위치하고

미륵불이 도래해 설법한다는
낭적산이 '낭산' 의 지명 유래
경주 오악 중 중앙에 위치해
신라 문화 발전에 중요 지점
왕릉 · 사지 등 당시 영화 증명

있는 곳으로 그 꼭대기에 부처님의 나라인 도리천을 두고 있다. 이 같이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의 설화에서는 서라벌의 가운데 산인 낭산을 수미산으로 생각하려 했던 신라 불국토 사상의 일면을 살필 수 있다.

최초의 신라 쌍탑가람 '사천왕사'

사천왕사는 폐사지이기는 하지만 문화재적으로 그 가치가 높다. 특히 가람배치에서 이 같은 점이 잘 나타난다.

통일 전의 신라 사찰들은 모두 금당 앞에 1기의 삼층 또는 5층석탑을 세우는 일탑 일금당(一塔 一金堂) 식의 사찰조영 방식을 따르다가, 통일 이후에는 금당을 중심으로 동서 양면에 쌍탑을 세우는 쌍탑가람 식으로 변모한다. 사천왕사는 통일 이후에 발전하는 쌍탑가람식에 의한 최초의 사찰이다. 가람배치는 금당을 중심으로 동탑과 서탑이 있고 북방으로는 좌경루와 우경루가 있어서 마치 본존불이 안치된 금당을 중심으로 사천왕이 배치된 것과 같은 특이한 가람형태를 이뤘다.

이제는 남아있지 않지만 1922년 발간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수한 당초문의 와당과 사천왕 부조의 전이 출토됐다고 한다. 선덕여왕 때에 사적을 남겼다고 전하는 양지 스님의 걸작품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현재 이곳의 사지는 초석 등 기본구조는 원위치에 남아 있는 편이나 일제강점기에 금당지와 강당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철로가 개설됨으로 하여 사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국방 사찰이라 할 수 있는 사천왕사와 낭산의 지맥을 갈라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외적을 방어하는 사천왕을 모시는 사천왕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지맥을 갈랐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라면서 "현재도 철길이 낭산의 남단에 존재하고 있고 사천왕사지 앞으로 도로가 가로질러 나있는 관계로 유적지 보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낭산의 부처님을 품은 衆生寺

현재 낭산에는 중생사(衆生寺)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사찰이 있다. 주변의 유물로 보아서 이 일대에 상당한 사격을 지닌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나 원래 사명(寺名)은 알 수 없다. 근세에 이곳에 사찰이 새로 건립되어 최초에는 선덕사(善德寺)라 하였으나 근래에 새로이 중생사라고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 일대는 낭산의 중간 지점으로 석불을 위시해 불대좌 등이 산재된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문무대왕의 화장지로 추정된 능지탑이 위치한 유서 깊은 곳이다. 중생사 대웅전으로 서쪽 약 110m 지점 밭 뚝에는 하반신이 흙 속에 매몰된 채 머리 부분이 소실된 석불입상이 있다. 불상의 총 높이는 220cm이고 보살상의 머리 부분은 보관형태를 나타내어 높이 솟았고 보관 아래에는 화문의 테를 돌렸다. 큰 귀에 풍만한 얼굴 모습은 보살상이면서도 위엄을 지닌 당당한 모습이다.

또한 신라하대로 추정되는 마애삼존상을 중생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 있다. 이 불상들은 문무대왕의 화장지로 추정이 되는 능지탑과는 남북으로 250m의 거리를 두고 일직선상에 놓여 그 제작 동기가 의도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답사단은 선덕왕릉과 진평왕릉, 황복사지, 보문사지들을 둘러보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라의 산악신앙을 만날 수 있던 낭산. 앞으로막한 모습과는 달리 낭산에 담긴 신라인들의 불심은 태산보다도 높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사 · 신라문화원
11월 경주 남산불적답사

- 주제 : 신라인들의 수미산을 찾아서
- 일시 :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도시락, 필기구
- 동참 비용 : 2만원 (회원, 학생 1만8천원)
- 문의 : 054)774-1950, www.silla.or.kr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미얀마 불교 이야기

13. 군부정권과 불교 그리고 아웅산 수치

불교 공동체 운동 민주화의 발판 마련

네 윈, 쿠테타 이후 26년 군부통치
불교국교화 철폐 및 불교지원 중단
정부 주도의 불교통치 진행에 승단 반발
회유책으로 국립 불교대학 건립하기도

1962년 쿠테타로 인하여 우 누의 시대는 마감하고 네 윈의 시대가 시작됐다. 네 윈(Ne Win :1911~2002)은 이후 1988년 7월 77세의 나이로 퇴진하기까지 26년간에 걸쳐 미얀마에 군부 통치했다.

네 윈은 우 누와 함께 미얀마의 현대 정치사에 있어 가장 유명한 두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미얀마 중부의 프롬 지방 출신으로 1941년 그의 나이 30세에 아웅 산과 함께 중국의 남쪽 하이난도(海南島)에서 군사훈련에 참가한 '30인 지사' 의 일원이다. 나이는 아웅 산보다는 4살 위였으나 두 사람은 아주 각별했다고 한다. 그는 우 누가 수상일 때 부수상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며 종교성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리고 1958년 불교국교화 문제로 정세가 혼란스러울 때 군 총사령관으로서 우 누 수상을 대신해 내각을 맡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쿠테타 정권이 그러하듯이 네 윈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철폐하고 민심을 사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 대상은 불교 국교화로 추진된 정책들이었다.

먼저 불교국교화 철폐를 선언하고 헌법에 근거한 불교 지원을 정지시키고 '불교평의회' 또한 해체시켰다. 방송에서의 불교 설법을 제한해 특정한 행사일에만 허용하였다.

더 나아가 쿠테타 이후 첫 해 동안은 외국인의 미얀마 불교 성지 순례도 허용하지 않았다. 1965년에는 불교대학과 불교승가 지원 법규를 모두 무효처리하였다.

또한 승단을 예속화하기 위한 시도로 정부 주도의 승려단체(Monks Union)를 조직해 승려증을 발부받도록 했다. 군부는 이와 함께 정권을 비판하는 승려들을 구금하는 동시에 많은 사찰들을 또한 폐쇄시켰다. 1년 뒤에는 승려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정부기관인 종교성을 통해 승단을 관리하였다.

1980년에 이르면 군부는 승단의 통제를 본격적으로 단행한다. 앞선 1979년에 군부 주도로 승단 대표 승려 1,219명을 선출하고 다시 33명의 승려로 최고승가회의체(Supreme Sangha Council)인 'Sangha Maha Nayaka' 를 결성한다. 승단의 통제와 예속화를 위해 승려들을 위계화시키고 전국의 모든 승려들이 이 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에 많은 승려들이 항의하고 거부하였다. 한 승려가 항의의 표시로 소신공양하자 결국 의무 등록은 철회되었다. 1985년에는 고등학교에 정규과목으로 불교를 도입하고 양곤과 만달레이의 불교 대학교인 'The State Pariyatti Sasana University' 에 정부지원을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파고다의 수리와 보수 그리고 증축 등의 불교진흥에도 나서게 됐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 탄압 정책도 오래갈 수 없었다.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운동 성지인 5 · 18 묘지를 참배하는 아웅산 수치 여사. 수치 여사는 광주인권상도 수상했다.

이러한 조치와 시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군부정권은 불교 지원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군부정권 또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승단의 사회적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군부정권은 차츰 승단에 대한 압박 대신 유화와 회유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전 정부와는 달리 불교에 주어졌던 많은 지원이 축소되었고 승단과의 긴장은 지속되었다.

군부정권을 이끄는 네 윈은 1965년의 승단 모임을 주도하면서는 스스로 불교 포교에 앞장 설 것을 밝히기도 했으며 1983~84년에는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맞은편에 네윈 파고다라고도 알려진 'Maha Wizaya' 파고다를 건립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다른 군부 실세들에게 여러 지역의 파고다 건립과 보수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했다.

군부정권은 1990년 종교성을 불교 포교와 발전을 위해 재편하고 1998년 양곤에 국립대학인 국제 상좌불교 대학교(International Theravada Buddhist Missionary University)를 열기도 했다. 이 학교에는 다른 나라 학생들도 입학할 수 있으며 학비와 기숙사에서 숙식 등이 무상으로 지원됐다. 군부정권은 소수민족 지역에 불교 사찰과 파고다를 건립하는 등의 불교포교에 적극적이며 또한 2004년부터는 외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의 미얀마 선교를 공식적으로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1988년 이후 계속적인 정부 주도의 불교중흥 및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2007년 승려들이 주도한 '샤프란 혁명' (Saffron Revolution)이 일어났다. '샤프란' 은 승복을 의미하는데 승복색깔을 내는 염료이며 향신료의 이름으로 군부정권이 승단을 통제하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아웅산 수치

미얀마의 현대 정치사에 있어 우 누와 네 윈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아웅산 수치' (Aung San Suu Kyi) 여사다.

수치 여사는 군부정권 당시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그녀는 미얀마 독립의 주역으로 전설적인 존재가 된 아웅 산 장군의 딸로 1945년 6월에 아웅 산 장군과 어머니인 킨 치 前 인도대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1947년 6월 아웅산 장군 암살당할 때 그녀는 겨우 두 살이었다. 1948년 독립 후 1960년에 인도 대사로 부임한 어머니를 따라 인도의 델리대학과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영국인과 결혼하여 영국에서 살다가 1988년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미얀마에 귀국하였다. 이 때 그 녀는 쉐다곤 파고다에서 40만 명이 모인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데 이 연설로 그녀는 일약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기수로 떠올랐다. 그녀는 미얀마 민주화 및 인권 운동의 공로로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녀는 한국에도 방문해 5、18 국립묘지 참배를 참배하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과 광주인권상을 받기도 하였다.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인 남편에 의하면 아웅 산 수치 여사는 가택연금 시 수많은 불교경전을 외우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위빠사나 수행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으며 수행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면 U. Pandita 스님의 'In This Very Life : The Liberation Teaching of the Buddha' (불광출판사 번역 – 〈바로 이번 생애〉)를 읽으며 극복했다. 그녀는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불교를 새롭게 이해했다고 한다. 그녀는 미얀마 불교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자유와 자비 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10바라밀의 실천을 중시함을 알았다.



미얀마 군부가 1998년에 설립한 양곤의 국제 상좌불교 대학교



위나야 스님을 친견하는 수치 여사

참고로 수치 여사에 영향을 미친 U. Pandita 스님은 원래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 센터의 마하시 스님의 후계자였지만 독립하여 Paditarama 위빠사나 수행센터를 세운 이다. 양곤의 Paditarama 위빠사나 수행 센터는 미얀마인은 물론 수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곳으로 네팔, 호주,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에도 분원이 설립돼있다.

수치 여사에게 또 다른 큰 스승은 따마냐 서야도(Thamanya Sayadaw)로 알려진 위나야(U Winaya, 1910~2003) 스님이었다. 스님은 까렌 주(Karen State)에 주석하였는데 수치 여사가1995년 가택 연금이 해제되자 곧바로 찾은 이 이기도 하다.

수치 여사는 2002년 2차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뒤에도 위나야 스님을 찾아 가택연금 시 닦은 위빠사나(vippasana) 수행을 점검받았다고 한다. 수치 여사가 멀리 위나야 스님을 찾은 이유는 단지 수행에 대한 점검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위나야 스님은 오랜 사마타 수행 외에도 독자적인 불교공동체를 형성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나야 스님의 불교공동체는 1979년 소박한 스님의 처소에 불과했다. 이어 갈수록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1980년 중반 300여 명, 1990년대 말 1000여 명으로 점차 불어났다. 1997년에 이르러서는 7000 명 규모로 공동체 구성원이 늘어났다. 이 구성원들에는 미얀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미얀마의 여러 소수민족들과 인도인, 중국인들도 포함됐다. 특히 까렌(Karen)족 난민들이 4000여 명 공동체에서 머물고 있었다.

위나야 스님의 불교공동체는 군부 통치와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 것이다. 불교공동체의 절에서는 2개 학교가 운영됐는데 13명의 승려교사들이 약 375명의 학생들을 지도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위나야 스님의 불교공동체는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게 됐다.

이 곳에서는 위나야 스님의 가르침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식문화였다. 위나야 스님은 자비의 실천을 강조했는데 그 실천으로 채식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좌불교권 스님들은 탁발문화에 따라 육식에도 걸림이 없었다. 하지만 위나야 스님은 예외적으로 채식을 고집했다.

수치 여사, 1988년 대중연설로 민주화 앞장
가택연금시 위빠사나 수행하며 마음다스려
위나야 스님 가르침 하에 자비실천 서원
채식 등 불교적 삶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줘

이런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불교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채식을 하였다. 불교공동체가 자리한 수행처로부터 사방 4~5Km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채식을 하여 식료품 가게는 물론 식당에도 육류 음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술이나 마약 등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발적인 보시금과 가구당 한명의 울력으로 지역 정비 등이 진행됐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위나야 스님으로부터 자비실천과 사마타 수행 등 큰 영향을 받았다. 수치 여사는 위나야 스님의 영향으로 엄격한 채식주의자의 길을 걷게 된다. 위나야 스님은 군부정권을 비판하고 수치 여사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다.

그는 군부정권의 어떠한 승직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초대에도 응하지도 않았다. 또 군부정권 인사들의 개인적인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95년 당시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국가 법질서 회복 1서기관(SLORC)이었던 킨늉(Khin Nyunt)이 위나야 스님을 접견하고자 찾아왔지만 스님은 사진 촬영 조차 거절했다. 스님은 킨늉의 자동차 보시 또한 거절했다. 킨늉은 1984년 북한 테러범에 의한 양곤 아웅산 테러사건 시 정보국장(Chief of Intelligence)이었고 수상도 역임한 인물이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봉은사 BONG EUN SA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02)3218-4800 | www.bongeunsa.org

“얼음이 ‘액체·기체’ 되듯 수행도 꾸준히 열 가해야”

간화선 핵심 ‘전의’ (몸바꾸기)

박성배 뉴욕주립대 교수

재미 불교학자 박성배 교수(뉴욕 주립대)는 간화선의 핵심사상인 ‘전의(轉依)’를 평생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글과 머리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수행 체험이 그대로 학문화하는 그런 연구이다. 2011년 여름 뉴욕 주립대 스토니브룩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 모임은 박성배 교수와 함께 ‘전의’에 대해 토론했다. 학자들은 박 교수에게 질문하고 박 교수는 친절히 그리고 자세히 ‘전의’에 대해 답을 했다.

그 내용을 단독 입수한 본지는 박 교수의 ‘전의’ 가르침을 간추려 싣는다. 독자 여러분의 ‘공부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박성배 교수는 … 1933년 9월 21일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박성배 교수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주변 사람들을 잃는 그는 의대에 진학했지만, 인문학 연구에 평생을 매진하기로 결심한다. 조계종으로 출가한 박 교수는 1955년부터 2년 동안 대흥사에서 전강 스님의 지도로 참선 수행했다. 1956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철학과에 들어가 1960년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63~1969년까지 동국대 교수를 지냈다. 1969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직을 돌연 사직한 박 교수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40대 늦깎이 유학에, 낮에는 노동판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보며 고된 생활을 했지만 1977년 버클리대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눈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곳에 한국학센터를 설립하고 소장도 겸하고 있다.

불교에서 수행을 말할 때면, ‘전의’(轉依 몸 바꾸기, ashraya paravrtti)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전의’는 간화선(看話禪)의 핵심사상이며 저의 평생 관심사입니다. 1983년 뉴욕주립대학교 출판사(SUNY Press)에서 펴낸 저의 영문판 저서, 〈Buddhist Faith and Sudden Enlightenment (Chapter 16, Revolution of the Basis, pages 126-132)〉에서 저는 ‘전의’를 ‘Revolution of the Basis’라 번역했습니다. 2002년 이 책을 한국말로 번역한 윤원철 교수(서울대)는 이를 ‘몸 바꾸기’로 번역했습니다.(〈깨침과 깨달음〉, 16장, 230-240쪽. 서울 예문서원 출판). ‘몸 바꿈’이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며 우리말의 ‘부활’과 비슷한 말입니다.

전의(轉依, ashraya paravrtti)

‘전의(轉依)’ 즉 ‘몸 바꾸기’를 이야기할 때면, 저는 예외 없이 ‘백척간두진일보 현애살수장부아(百尺竿頭進一步 懸崖撒水丈夫兒)’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백척간두까지 가는 사람도 드물지만 설사 갔다 하더라도 대개는 마지막 판에 물러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현애(懸崖)라는 말은 천길 벼랑 절벽에 매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구각에서 탈피 즉 환골탈태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에 ‘살수(撒手)’ 즉 ‘손을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삶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죽음이라고 무서워 했던 그 길이 진실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진짜 삶은 죽음이라 생각하고 실제론 죽음의 길이건만 그걸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바로 이때에 일을 치루는 것은 ‘힘’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겐 이때에 죽음을 택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똑바로 아는 데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에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얼음덩어리는 너무나 딱딱해서 ‘부자유’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얼음에 열을 가하면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됩니다. 물은 액체이기에 고체인 얼음보다는 더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유로워지려면 쉬지 않고 계속 더 열을 가해야 합니다. 열이 백도를 넘으면 물은 다시 기체로 변합니다.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다시 수증기로 변하는데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다른 몸을 봅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입니다.

불교의 수행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을 봅니다. 일생을 얼음 덩어리처럼 고체로 사는 사람도 있고, 물처럼 액체로 사는 사람도 있고, 수증기처럼 기체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의’란 말은 이러한 몸 바꾸기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몸 바꾸기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체 같은 몸을 바꿔 액체 같은 몸으로 사는 것으로 몸 바꾸기를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열을 가하는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몸을 바꿔 수증기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같은 몸으로 전의를 합니다. 공기라야 천하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불교적 수행을 이야기하면서 몸 바꾸기를 문제 삼지 않는 다면 어불성설입니다. 몸 바꾸기의 원동력은 한 마디로 말해서 계속 열을 가하는 ‘꾸준함’과 ‘치열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모기 한 마리를 죽였습니다.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자 모기떼들이 기승을 부리고 돌아다닙니다. 어제 밤에 그 가운데 한 놈이 저를 물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 놈을 때렸습니다. 모기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저는 이때 아무런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엔 그러다 아함경에 나오는 어느 비구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비구가 여행 중에 도둑을 만났답니다. 도둑들은 비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은 다음, 그 비구를 넘어뜨려 두 손을 길가에 있는 키 큰 풀에다 묶어 놓았습니다. 부처님의 불살생계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기 위해서이었을 것입니다. 그 비구는 풀에 묶인 체 거기서 한참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어서면 풀이 뽑혀 죽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어서지를 못 했던 것입니다.

그 비구는 풀 한포기 뽑히는 것 정도야 불살생계를 범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말하지만 그 내막을 드려다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그 다른 점을 들여다 보면 한쪽은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식이고 다른 쪽은 풀 한 포기도 뽑아죽게 하지 못하는 식입니다. 전자가 말만의 수행을 했다고 한다면, 후자는 쉬지 않고 꾸준하게 철저히 수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겉과 속이 일치하고 앞과 뒤가 일치하며 간단없이 버티는 수행과,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도 다른 수행은 다르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습니다.

불교적 수행의 핵심은 쉬지 않고 꾸준하게 열을 가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함경에 나오는 풀에 묶인 비구의 이야기도 알고 보면 그 메시지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열을 가했다 말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몸 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몸 바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꾸준하게 열을 가해야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고 현애에서 살수하는 몸 바꿈이 가능합니다.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되는 몸 바꿈은 열을 가했다 말았다 하는 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로 몸을 바꿀 때도 그렇고, 암탉이 계란을 병아리로 부화할 때도 이치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함경의 비구 이야기를 다시 음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몸바꿈’ 즉 ‘전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목들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의’ 없는 수행은 불교적 수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의(轉依)와 의단독로(疑團獨露)

참선을 이야기하는 이상, 無字十種病은 학자가 반드시 넘어가야할 고비입니다. 그래서 고봉의 선요도 대혜의 서장도 지눌의 간화결의론도 성철의 선문정로도 모두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모두들 참선한다면서 어딘가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책 〈깨침과 깨달음〉, 제 16장에 나오는 전의(轉依, 몸바꾸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문으로 전의(轉依)라고 말할 때의 ‘의(依)’자가 재미있습니다. 여기서 ‘依’란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또는 지금의 나를 나답게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란 뜻인데 이런 것들을 송두리체 뒤집어 엎어 버린다는 말이 ‘전(轉)’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의(轉依)’란 말에 대한 저의 어원적 해석입니다.

1975년의 일입니다. 버클리에서 한참 박사학위 따려고 서두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부산하게 이것 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집 응접실의 책상과 의자들이 엎어지고 벽에 걸린 거울과 그림들이 떨어지며 박살이 났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저의 지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것이 지진인줄 몰랐습니다. 혼비백산이라 할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고 박사학위고 가족이고 뭐고 아무 것도 남는 것 없이 모든 것이 일시에 다 없어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저는 우리들이 얼마나 땅에 의존(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의(依)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태교, 기독교, 회교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다분히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의(依)의 성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처님도 많은 경우에 의(依)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의 돈도 의(依)입니다. 가족이니 국가니 민족이니 하는 것들도 모두 의(依)입니다. 학자들의 지식도 의(依)입니다. 그런 의(依)를 송두리체 뽑아 내버린다는 말이 전의(轉依)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의식 세계에서 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불교의 유식학입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깨침 사상은 이론적으로는 다분히 유식학의 인간의식 이론을 원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종의 ‘참구문 활구참선’(參句門 活句參禪)(지눌의 간화결의론 말미: “참의문이 아니고 참구문이라야 하며 참구문에서도 사구참선이 아니라 활구참선이라야 한다…” 운운 참조) 세계에서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참선의 진면목은 의단독로(疑團獨露)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단독로가 되지 않으면 별짓 다 해도 도로아미타불을 면치 못합니다. 여기서 의단독로가 바로 전의입니다.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의단독로가 되지 않으면 전의는 물 건너간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A wrong address!”

성철스님에 따르면 “돈오돈수”는 삼관(三關: 세 가지 관문)을 돌파하고 정각, 묘각, 구경각의 경지(6식, 7식, 8식, 9식의 경지)마저 깨끗이 떨쳐버린 사람의 경지라고 합니다. 요즈음 돈오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를 몸짓문화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요즈음의 표현으로 “A wrong address!”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꼴과 똑 같습니다. 이를 저의 몸과 몸짓의 논리로 재정리해보면, 문제는 우리들이 몸짓문화의 감옥 속에 갇혀 자유를 잃고 노예생활이나 다름없는 비참한 꼴을 당하고 살면서도 이런 엄연한 사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든 역대조사들의 말씀이든 누구의 어떠한 말씀이든 그것이 몸짓문화 속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굳어져 있다면 그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무효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모두 사람 죽이는 독약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일체개고(一切皆苦)’의 참뜻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몸짓문화의 속박에서 벗어나 몸 문화 속으로 들어가 다시 살아나면 그 경지에서는 모든 몸짓문화가 다 그 속에 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응병여약으로 적절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선지식은 돈오돈수의 세계에서 3000계율을 다 지키면서 철두철미 더욱 치열하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식이라고 간판 내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발 그만 그 몸짓문화의 노예같은 냄새를 풍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망언을 용서하십시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기2557(2013)년 수능100일기도 접수

(고입,대입,교사임용고시,사법.행정고시,취업성취)



입 재 2013년 7월 31일 선본사 상단(갓바위 부처님전)

회 향 2013년 11월 7일 선본사 상단(갓바위 부처님전)

문의 및 접수처

선본사 종무소(극락전) 053-851-1868

중단 종무소(대웅전) 053-853-9877

상단접수처(갓바위 부처님전) 053-851-1869

동참비 10만원

대구은행 179-04-060280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성인사·삼도사



주 지 정비룡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남서리 19 TEL 054)791-5011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태하리 562 TEL 054)791-5457

‘보리’, 머물 자리 없기에 얻을 것도 없어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15〉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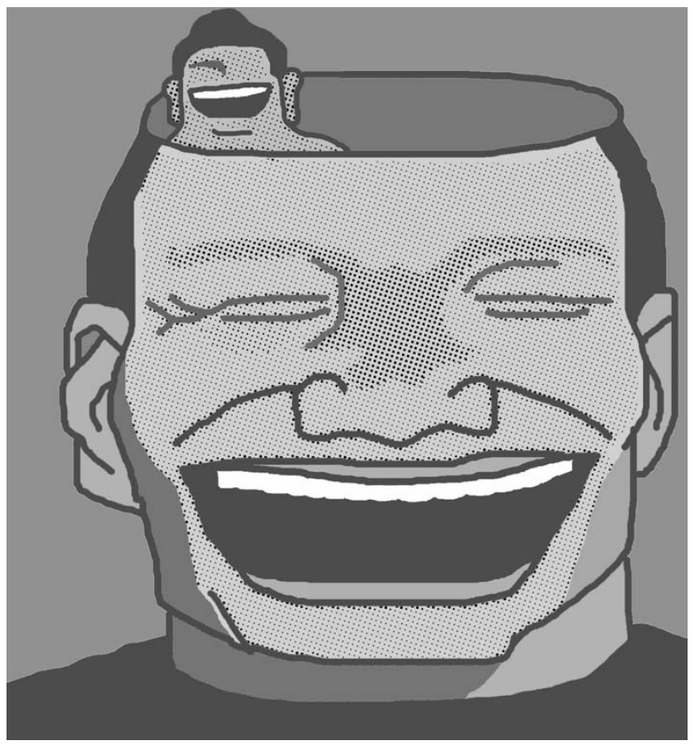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종일 말하면서도 일찍이 말한 적이 있던가? 종일 들으나 언제 들은 적이 있던가?

하루 종일 얘기한다 해도, 근본자리에서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루 종일 들어도, 근본자리에서는 한 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 밝은 거울에 사물이 비췄다 지나가듯이, 여여부동한 그 자리에 만사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 49년 설법하셨어도, 한 글자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다.

마음을 알고 쓰면, 인생 백년 삼만육천 일 아침마다 다만 이 자리의 반복일 뿐 달리 다른 일이 없다. 하루하루가 무상히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자리는 일찍이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것이다. 늘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다. 석존께서 평생을 설법하셨어도, 실상으로는 한 글자도 말씀하신 바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혜를 밝혀 이 자리를 잘 알고 쓰면, 삶은 풍요로워지고 매사가 순조로워진다. 한편으로는 활발발하게 매사를 처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자유롭고 여유 있게 지내는 것이다.

배휴가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황벽스님이 대답했다.
“깨달음에는 일정한 처소가 없다.

황벽스님은 배휴를 법거량이나 선문답의 형식으로 대하지 않고, 특별히 묻는데 따라서 자세하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런 질문에는 바로 입을 막아서 즉시 의심에 걸리게 하는 방편을 많이 쓴다. 깨달음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국한되지 않고, 동서남북 상하에도 구애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도 본래 자리에서 연기법에 의해 일어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부처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 달리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부처라 해도 별다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도 깨달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부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중생은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실상으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한 치도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것이다. 일체 중생이 있는 그대로 깨달음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다.

시공간은 본래 자리에서
연기법에 의해 일어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부처라 해도 별다른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 해도 깨달음을
벗어나 있지 않다

다만 부처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중생은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것일 뿐이다

보리는 얻을 것이 없다
그대가 지금 다만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만 내라
결단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다면 즉시 보리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리심을 발합니까?”

배휴는 궁금한 것이 많다. 중생이 이미 그렇게 완벽하게 깨달음의 당처에서 살고 있는데도 보리심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보리심을 잘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완벽한데 달리 보리심을 더하여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일 수도 있다.

“보리는 얻을 것이 없다. 그대가 지금 다만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만 내라.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다면, 즉시 보리심이다.

보리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본래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머리가 머리를 찾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중생은 업의 그림자에 가려서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지식과의 인연에 힘입어 전도몽상으로부터 깨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보리는 머물 자리가 없기에, 얻을 그 무엇도 없다.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머무는 바가 없다. 그렇기에 깨달음이란 얻고 잃고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머무는 바가 없이 자연스레 흘러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착하여 집착하면, 실상에 어긋나기에 고(苦)가 발생하는 것이다. 나뭇잎이 강물을 따라 흘러가듯이 머무는 바가 없는 흐름을 타고 가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일이 없는 무위(無爲)의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연등불의 처소에 있을 때 조금도 얻을 법이 없었기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授記)하셨다.’고 하신 것이다.

일심(一心)의 불이법은 불립문자 교외별전이므로 이심전심으로 전해진다. 사실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전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육조스님은 “우리들의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하지 않으며, 본래 구족하고, 본래 동요가 없으며, 그래서 능히 만법을 낸다.”고 하신 것이다. 본래 완벽하니 그 위에 조금도 더할 것이 없는 것이다. 머리에 머리를 더할 것이 없고, 부리에 부리를 더할 것이 없다.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임을 분명히 알아서, 마땅히 다시 보리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를 구족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애써 밖으로 향해 달려 나가는 치구심(馳求心)이 쉬어지게 된다. 무엇인가를 찾아 밖으로 구하는 것이 곧 외도(外道)다.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곧 본래 구족한 본심임을 굳게 믿어서, 함이 없는 ‘무위’의 길로 접어들어야 비로소 선(禪)을 공부할 분(分)이 있게 되는 것이다.

배휴는 알음알이가 많아서 지적 분별작용을 쉬지 못하니 자꾸 묻게 되는데, 이런 배휴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얻을 경지가 있어서 깨달아 얻어야 한다.’는 착각을 스스로 알아채는 것이다. 그 착각을 깨주기 위해서 황벽스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⑨①



이 유약은 독이기도 감로이기도 하다

乳藥

〈열반경〉

만병통치약은 있는가?

어떤 나라에 의사가 있었다. 어떤 환자가 오든 단 하나의 약만을 처방하는 의사! 그 약은 유약이다. 우유로 만든 약일 수도 있고, 우유 그 자체가 약으로 쓰였을 수도 있겠다. 그 의사에게는 유약이 만병통치약이다.

그러한 의사가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있어야 한다. 왕 역시 어리석었다. 그래서 늘 그 의사를 믿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진실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그 시절 역시 그랬다. 진실로 의학을 익히고 닦은 의사가 없지는 않았다. 스스로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은 순간, 그는 하산(下山)을 결심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의사를 찾아간다. 하지만 대뜸 의술을 뽐내는 대신, 의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그 문하에 제자로서 들어간 것이다. 역시 그랬다. 엉터리 의사가 정도(正道)의 스승일 수가 있겠는가. 48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시봉(侍奉)을 잘 한다면, 그 이후에 의술을 가르쳐 주겠노라 말한다.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는 가짜 밑에서 몸을 낮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다. 왕이 의사를 불렀다. 다행인지, 그는 제자를 데리고 갔다. 비서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진짜 의사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았다. 왕에게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다. 비로소 왕은 가짜 의사를 추방할 수 있었다.

이제 진짜 의사가 어의(御醫)가 되었다. 그의 부탁 : “온 나라에 유약의 복용을 금하게 하소서.” 왕은 의사 말을 따랐다. 그런데 어느날 왕이 병들고 만다. 왕을 진찰하고 난 뒤, 의사가 내리는 처방은 놀랍게도 “유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의사는 왕을 속이는 것인가, 놀리는 것인가?

항변하는 왕에게, 의사는 대답한다. “이 유약은 독이기도 하고 감로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해답

종교, 라는 말은 으뜸가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종교적 진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가르침이 가장 높은 진리라고 믿는 데서부터 종교신앙은 출발한다. 신앙의 깊이는 이 믿음의 확실성이나 절대성의 높이에 정비례한다.

종교적 믿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성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느덧 독선적인 도그마에 빠지게 된다. 우리 중에는 그러한 독선적 성격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과연 그럴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 밖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불교에 대한 이미지 중에는, “불교는 독선적이지 않다. 그래서 좋다”는 것이 있다. 물론 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사상적으로는 열려있는 종교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그런가? 나와는 다른 타자(他者)를 수용하는 개방성이 아직은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멀리 다른 종교나 가르침과 비교할 것도 없다. 같은 불교 안에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자기가 좋아하는 경전, 자기가 선호(選好)하는 수행만이 참된 것이라 여기면서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없는 것일까? 만약 없지 않다면, 언제나 유약만을 제시한 저 가짜 의사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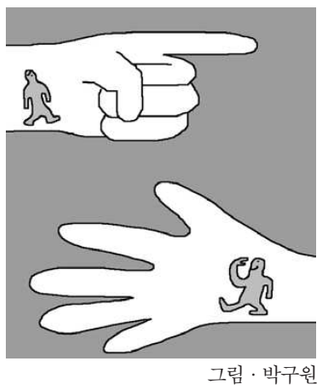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열반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유아(有我)와 무아(無我)가 배타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상대의 병(근기)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약(가르침, 수행법)을 처방해야 한다는 다원성 내지 개방성에 대한 강조로 읽고 싶다.

그러한 다양성 내지 개방성은 얼마나 나약하게 보이는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신보다는 흔들리는 속에서, 보다 진실한 해답의 추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십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5시)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오후2시)
◇저서 : 규명(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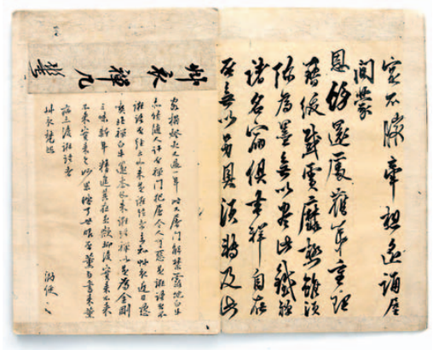
추사, 초의 선리탐구 모순 지적

추사는 제주 시절 백파의 선리를 비판하고, 초의의 선리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다. 다양한 불서를 참구했던 그가 의문에 봉착하면 자주 초의에게 묻곤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의 편지에서 확인된다. 최근에 발굴된 〈벽해타운첩〉에는 초의의 선리 참구가 잘못되었음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편지는 〈완당척독〉에 이미 수록된 것이지만 〈완당전집〉〈여초의〉에는 누락되었던 자료이다. 특히 〈벽해타운첩〉을 장황(표구)하면서 〈완당전집〉〈여초의〉6신의 일부의 내용인 "寔不勝牽想遙誦 居士間蒙恩飭 還處舊第 重理簪a感賈靡極 雖須彌爲墨 無以盡此 鐵禪諸名宿 俱吉祥自在否 無以 具 須轉及此"이 합첩(合帖)되었기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의 편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그네의 살림살이 속에서도 다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때에 또 푸줏간이 해금되니 노지의 백우가 사람을 따라 간다한들 (이것이 이상하다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선문에서 (도문해금을) 범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게 하니 이것이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인가.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금강경에 "여래는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라고 말했다는 대목을 초의는 아직 모르면서 근래에는 함부로 '북선의 지현선사가 노지백우를 삶아서 만든 진수성찬으로 대중을 맛보게 하였다는 일화' 를 들먹이면서 이것에 빗대어서 도리어 '여래가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들어서 참구하고, 이것을 금강삼매라고 간주하며, 정초부터 정진하니 여기에 올바른 도리가 있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실래(實來)를 불래(不來)로 여기고, 불래를 실래의 묘로 여기니 과연 세인의 애꾸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훈스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병은 다시 회복되었는가요. 여래는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란 말을 그대가 살펴보시길… 늑편(客榻燈火 又過一年 時又屠門解禁 露地白牛亦作隨人 R否 禪門犯屠 令人可惡 是 語否 不 語否 經云如來是 語者 未知艸衣 近日恣喫

北禪白牛 還參如來 語 禪以是爲金剛三昧 新年精進 其在是歟 抑復實來不來 不來實來之妙 果n了世眼否 薰與書來 薰病亦復 語者艸衣梵照 溺便)

이 편지는 추사가 〈선요 제21단락〉을 참고하여 초의의 선리 탐구의 모순을 지적한 것. 실제 이 편지가 어느 시기에 쓴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추사가 불교에 침잠되었던 시기가 제주 시절 이후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편지의 연대를 짐작할 뿐이다. 그가 언급한 노지백우(露地白牛)란 선어(禪語)는 「續傳燈錄」 卷2에 "북선지현(北禪智賢) 선사는 설맞이를 할 경우에 노지백우를 삶고 온갖 진수성찬을 빠짐없이 차렸다"에서 인용한 것. 추사는 금강경에 "여래는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라고 말했다는 대목을 초의는 아직 모르면서 근래에는 "함부로 '북선의 지현선사가 노지백우를 삶아서 만든 진수성찬으로 대중을 맛보게 하였다는 일화' 를 들먹이면서 이것에 빗대어서 도리어 '여래가 남을 속이는 말을 하는 자이다' 라고 한 것을 들어서 참구하고, 이것을 금강삼매라고 간주"하여 정초부터 정진한다니 여기에 올바른 도리가 있다고 여기는가"라고 질타한 것이다. 이어 추사는 "실래(實來)를 불래(不來)로 여기고, 불래를 실래의 묘로 여기"는 초의의 견해가 전도몽상(顚倒夢想)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추사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초의는 어떤 견지처를 드러냈을까. 혹 추사의 지적을 옳다 여겨 자신의 통찰을 서리 발처럼 성성하게 세웠던 것은 아닐까. 초의의 입처(立處)가 궁금하다. 한편 추사는 자신에게 차를 보내 주었던 훈 스님의 안부를 물었는데, 훈 스님은 초의의 제자인 향훈이다. 차를 잘 만들었던 그는 제주로 차를 보내 추사를 위로했던 인물이다. 그가 병중에 있음을 알렸던 지, 추사는 이 편지에서 향훈의 병환을 물었으니 향훈에게 보낸 그의 살가운 정이 훈훈하게 느껴진다.



추사의 친필 본인 〈벽해타운첩〉

백파 선리 비판, 초의 옹호하던 추사
초의는 어떤 견지처 드러냈을까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청봉 석정산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보각)

원로회
고 문 석홍섭
원로회장 석무공
부 회 장 석무겸 석만월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부 의 장 석월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만오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재무부장 석법담 사회부장 석혜주
정보부장 석보각 동원부장 석법원
행사부장 석지혜 의전부장 석근홍
사무총장 석초오

호계원
호계원장 석지원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감사원
감사원장 석지명
부 원 장 석법호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우암
부 원 장 석법승

교육원
교육원장 석보행
부 원 장 석대명
부 원 장 석운오
강원원장 석법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제 14기 영남(통도소리)범음범패 교육생모집"
범음(홋소리,짙소리) 범패(강쇠, 북, 태징)
• 기초 2개월 _ 도량석, 종성, 각단 예불, 불공, 시다림,
• 고 등 1년 _ 중노릇하는법, 상주권공, 구병시식등, 천도재,
• 전 문 2년 _ 시왕각배,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기초의식부터~ 전통전문분야등 범패의 모든 것)
개강일 2014년 양력 1월 6일 (매주 월요일)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폐품 팔아 보시행… 30년 이웃도운 '보살'

황화익 보살 (서울시 복지대상 수상)

빈 병 주우며 시작한 봉사

"아휴 뭐하러 여기까지 와. 얘기고 뭐고 더 할 게 없는데…"

지난 9월 9일 '서울시 복지상' 대상을 받은 황화익 보살(78)은 처음엔 인터뷰를 만류했다. 그는 30년을 넘게 남을 도우며 살았다. 그런 그가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더욱 듣고 싶어졌다. 끈질진 구애(?) 끝에 어렵게 시간을 받아내 지난 10월 3일 그를 만났다.

"저는 종로구 이화동 새마을 부녀회원 황화익입니다."

폐품 수집 하며 이웃을 도운 공로로 1985년 새마을 알뜰주부 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할머니가 신문에 직접 쓴 수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부녀회원으로서 할 수 있는 새마을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고심 끝에 폐품수집이 제격이라는 생각을 하고 월례회의 때 제의를 했지요. 회원들의 이야기는 찬반양론으로 갈렸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과 제가 살아온 과거 경험담으로 설득해 회원 각자 폐품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인 만큼 쑥스런 점도 없지 않았지요. 그러나 한번 마음먹은 일이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에 빈 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부터 꾸준히 보살행을 펼쳐온 그는 이제 '폐품 할머니' 로 불린다. 황 보살은 지금도 계속 폐품 수집중이다.

동숭동 황 보살집 대문 옆 간이 창고에는 깡통, 폐지, 빈 병이 수북이 담긴 포대자루들이 보였다.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동숭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모은 폐품들이다. 1주일정도 모으면 재활용 업체에 갖다 줄 만큼 된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웃주민들을 도왔다. 기껏해야 자루 하나당 3천원 정도 받지만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힘든 이웃에 양말도 챙겨주고 쌀, 연탄, 병원비도 보냈다.

새마을부녀회는 70년 대 농촌에서 '잘 살아보세' 로 시작한 새마을 운동이 도시로 확대되면서 만들어졌다. 아무 생각없이 가입한 부녀회였지만 이후 봉사는 할머니의 '삶' 이 되었다. 먹고 살기 바빴던 평범한 주부의 눈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보였다. 그때부터 폐지만 모았다하면 팔아서 주민들에게 밥 해 먹이고 필요한 데 쓰라며 돈도 쥐어줬다. 충남 계룡산에 갔을 때는 버려진 깡통 60개를 주워오기도 했다. 8kg 들이 쌀 한 말이 5600원이던 시절, 몸 아픈 어르신이 부실한 정부미로 죽 끓여 먹는 것이 안쓰러워 햅쌀 한 말도 사드렸다.

"아파서 다 돌아가시게 생겼었지. 교회서 할머니한테 2만원을 줬다는데 그 돈으로 병원에 갈까 쌀 살까 고민하고 있더라구. 그래서 내가 그랬지. 쌀은 내가 줄테니까 그 돈으로 병원 가보라구. 그 후 그 할머니가 나를 볼 때마다 그러더라구. 애기엄마가 준 쌀로 죽 끓여 먹고 살아났다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짠해지더라구. 큰 보람을 느꼈어."

지금까지 도움준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황 보살이 답했다.

황 보살은 어르신이 나중에 중풍 걸려서 꼼짝 못할 때는 머리도 깎아주고 말벗도 돼 드렸다. 임종했을때는 폐품 판 돈으로 넉넉히 조의금도 전했다.

자식없는 독거 노인들, 아픈 어르신들이 항상 황 보살 도움의 손길 1순위였다. 하루에 모은 빈 병은 돈으로 따져봐야 고작 몇 백원이 전부지만 얼마가 됐든 할머니는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했다. '폐품통장' 이라 불인 통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13개나 쌓였다. 그간 도움준 이웃들을 생각하며 차곡차곡 써내려간 후원일지도 지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듯 누렇게 색이 바랬다.

"1985년 신정에 김진영 할아버지 쌀 한말, 자식 없는 노인이라 고기사 잡수시라고 김제학 할아버지 5000원, 1985년 추석에 이아지 할머니 1만원짜리 옷 한 벌씩, 경추자 아들 불구자 라면 1상자 4400원 등등" 노트에 빼곡히 적혀진 후원일지 내용이다.

"남들은 명절이라고 선물 들고 왔다 갔다 하잖우. 그런데 동네 노인네들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 왔다 갔다하는 것만 마냥 쳐다보고 있더라구. 그래서 고기한 근이랑 쌀 한말이랑 사드리면서 명절 잘 보내시라고 했지."

이제껏 써온 후원일지를 넘기며 할머니가 말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한참 짚어 내려가다 잠시 멈춘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난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 이건 청소부아저씨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양말도 챙겨주고 저녁식사도 대접한 거야. 떡국 끓여냈더니 아주 맛있게 잡수시더라구. 그리고 이건 어버이날에 어르신들한테 스웨터 사드린 거고. 옛날에는 먹을 것도 귀했지만 옷도 마찬가지였거든. 요새야 싼 옷이 많지만."

스웨터 입은 어른들이 함박 웃음 짓는 모습만 봐도 황 보살은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환희심을 드러냈다.

남한테 주는 게 보람있어

폐품 팔아서 10원, 20원 모은 돈으로 황 보살이 도움 준 사람은 1년에 열 명 남짓한 작은 숫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봉사한지 30년이니까 지금까지 족히 300명이 넘는다.

돈만 모였다하면 주변 독거노인들이나 병원에 입원중인 이웃들을 찾아 위로금을 전달한다. 아픈 사람은 무조건 3만원. 황 보살만의 룰이다.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이지만 재력가의 기부금 3천만원에 견줘도 손색없을 만큼 마음이나 정성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전철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우리들로서는 한번쯤 곱씹게 되는 숫자다.

하루 벌어도 고작 몇 백원
그동안 모은 '폐품통장' 13개
한 푼씩 모아 쌀, 연탄 등 보시
봉사활동 시간만 2400시간
총 기부 금액 1000만원에 달해
아픈 사람 있으면 무조건 도와줘

손가락은 베이고 굽은 허리는 펴질 새 없지만 황 보살은 지금도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다. 무릎관절 수술은 물론 허리디스크, 눈, 치아 임플란트 등 병을 달고 사는 온 몸이 종합병원이지만 봉사정신 만큼은 투철하다.

이런 황 보살의 열정에 가족들도 두 손 두발 다 들었다. 깡통들을 마당으로 주워나르자 "구차스럽게 그런 일을 왜 하느냐"던 남편도 점차 황 보살 뜻에 동조해 무거운 것을 함께 들어다 주기 시작했다. 55년 전 남편의 연애편지를 아직도 간직하는 황 보살 옆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더 이상 없지만,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던 따스한 기억만은 아직도 새록하다. 간혹 가다 했던 타박은 황 보살이 다칠까 염려한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는 그도 안다.

"모든 잔소리들이 다 나를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으니 먼저 세상 떠난 남편에게 그렇게 미안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 함께 폐품 모으러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지."

시원찮은 몸을 이끌고 이렇게 폐지수거에 나서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황 보살은 "폐품 팔아서 모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는 게 보람있어서"라고 답했다. 그게 다다. 푼돈 모으면서 30년 지속해온 이유치고는



1984년 7월 16일. '폐품통장'의 첫 개설일이다. 폐품을 판 돈은 무조건 통장에 넣었다. 그 후로 통장은 13개나 쌓였다.



서울시 복지대상 상패에는 "이웃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한"황화익 님께 "천만 시민의 감사"를 전한다고 새겨져 있다.



황화익 보살은 … 1982년에 새마을 부녀회에 가입,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폐품 수집을 하기 시작했다. 이 공로로 1985년 새마을 알뜰주부 사례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꾸준히 빈 캔을 모아 독거노인, 아픈 어르신들을 30년 넘게 도와왔다. 지난 9월 9일에는 서울시복지상 대상을 수상했다.

약간 싱거울 정도로 간단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힘들게 뭐 있냐"고 오히려 반문 한다.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힘든 줄 모르고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됐지. 그냥 묵묵히 한 거지 뭐. 하지만 몇 번의 고비도 있었어 남편이 장사하다가 동네 사람한테 속아 쫄딱 망했거든. 그때는 정말 살기도 막막했었지. 그래도 봉사는 계속 했어. 그냥 했어. 내가 하던 거니까."

어스름한 새벽녘, 차가운 공기 마시며 빈 캔을 주웠다. 날카로운 유리조각에 손을 벨 때면 사는 게 이렇게 생채기 나는 거지 싶었다. 깊게 베인 상처도 스치듯 긁힌 상처도 때 되면 아물듯, 사람들을 챙겨주며 할머니도 치유되어갔다.

정직하게 몸을 움직여 이웃들을 도와주고, 고마워하는 그들 눈빛에 개운해져갔다. 자기 위로에 갇히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인의 웃음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던 시간이었다.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는 어느 시인의 말처럼 할머니의 삶도 어느덧 연분홍 연꽃을 닮아갔다.

좋은 일 하니 좋은 일 따라와

"혼자는 못하지.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

사실 봉사는 황 보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때로 빈 캔을 함께 주으러 다니는 친구 할머니도 있고 포대자루가 차면 리어카에 실어 날라주는 이웃집 할아버지도 있다.

좋은 일 한다고 동네 가게에서는 박스가 모였다 하면 황 보살에게 건네준다. 길 가에 떨어진 빈 병을 그냥 못 지나치고 황 보살에게 가져다주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모이면 얼마나 많은데"라며 그가 웃음 짓는다.

황 보살의 자녀는 1남 3녀. 그 중 아들은 그의 자랑이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명문대에 입학한 손자 칭찬에도 입이 마를 새가 없다. "주변에서들 그래. 황 보살이 이렇게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일이 또 돌아오는 거라고. 하하"

황 보살의 말끝에 붙은 웃음에 행복이 묻어났다. 인과율이나 공덕이란 단어는 모르지만 황 보살은 최소한 선업을 쌓으면 자신에게 복으로 되돌아온다고 믿었다. 초파일 되면 절에 가서 절하고 연등 켜는 여느 평범한 불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때로는 단순함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주는 울림이 더 크다.

새벽이면 폐지 줍고 아침 되면 근처 대학로 마로니에 경로당서 짬짬이 급식봉사를 돕는다. 점심때가 되면 종로복지관에 가서 포크댄스를 추고 장구도 치면서 합창도 한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황 보살이 알고 보니 노래자랑 1등 출신이다.

애창곡이 송미나의 '웃고살자' 라는데 "뭘 해도 다 재미있다"는 황 보살과 딱 어울린다 싶다. "봉사도 재미로 알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황 보살한테는 더 이상 질문이 필요없다. 남 챙겨주는게 좋고 그 성의가 전달됐을 때 받는 따뜻한 정에 30년 세월이 흘렀다.

건강하다는 것과 병을 주울 수 있다는 것. 황 보살의 행복 요건은 단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래서 예전도, 지금도 늘 행복하다. 황 보살은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폐품을 모으고 싶다며 말을 끝맺는다. 황 보살은 빈 포대를 폐품으로 채우듯 마음 속에 이웃을 담았고, 채워진 포대를 비워내듯 자신을 비우며 지난 세월을 살아왔다.

누군가가 버린 폐품은 또 다른 누군가가 두고두고 간직할 선물이 되어 돌아왔다. 황 보살이 만든 것들이다. 시간을 재료삼아 인연의 실을 잣는 황 보살의 마음은 이타행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간단하고 쉬운 진리 속에서 황 보살의 행복은 현재진행형이다.

글=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한 한복이 잘 어울리는 어르신 선발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다. 첫째줄 왼쪽 두번째가 황보살.

전법일기

한번의 수계식이 아이를 바꾼다

불자 어린이의 고민

병주의 엄마, 아빠는 모두 직장을 다니신다. 그래서 어느덧 1학년이 된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스스로 숙제도 하고 학원도 알아서 가야한다. 다른 또래 아이들 보다 덩치가 크고 의젓해서 누가 보든 듬직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아이다.

어느 날 좋아하는 태권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원차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가 문득 말을 건넨다.

"병주야!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그래? 그럼, 우리 교회 다녀라. 너처럼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는 교회를 다녀야 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 오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재미있는 게임도 많이 할 수 있어. 내가 교회 집사거든. 그러니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교회에 와. 내가 잘해 줄게."

기사 아저씨의 교회를 다녀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아이는 차에서 내릴 때까지 듣고 있어야만 했다. 특히, 좋아하는 영화를 보여준다는데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뒤 묻는다.

"음...그런데, 아저씨.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 먹고 싶어서, 제가 몸은 교회에 갈 수 있는데요. 마음은 벌써 불교에 등록 되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아이는 순진한 눈망울을 굴리며 말똥말똥 쳐다 본다.

순간, 당황한 집사기사님. "글쎄..."

저녁이 되어 직장에서 돌아오신 엄마에게 아이는 있었던 일을 이야기 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엄마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이 불교에 등록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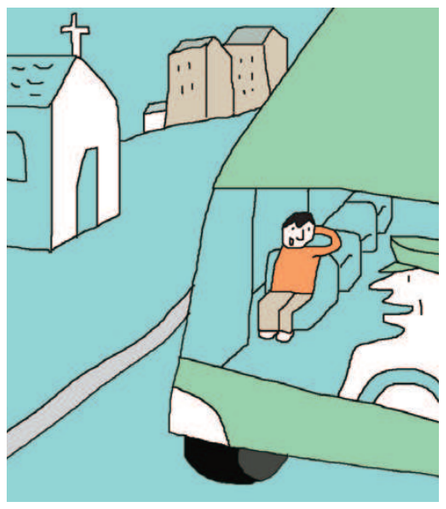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그런데 병주야! 마음이 어떻게 불교에 등록되는 거지?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의 질문에 나무라기라도 하듯 "엄마, 이번 여름 캠프에서 '증' 받았잖아요. 그거 등록증 아니에요?"

그제서야 그 '증' 이라는 것이 영어담마캠프에서 받은 수계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계식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인지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신심이 있는 병주에게 다시 시련이 찾아왔다. 옆집 형의 초대였다. 옆집에는 우연찮게도 목사님 가족이 산다. 병주는 9살인 목사님 아들에게 형이라 부르며 재미있게 잘 지낸다. 어느 날 그 아이가 병주네 우체통으로 초대장을 보냈다.

"병주야! 이번주 일요일에 우리교회에서 축제를 해, 재미있는 만화영화도 보여주고 맛있는 떡볶이랑 먹을 것도 많아. 나는 병주가 꼭 오면 좋겠다. 형아가" 엄마와 함께 우체통에서 편지를 발견해 읽은 병주는 다시 큰 고민에 빠졌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옆집 형아가 초대한건데…. 만화영화도 보여준다는데…." 아이가 망설이는 것이 역력했다. 순간 '이번에는 병주가 넘어가겠군나' 생각은 했지만,

"글쎄, 잘 생각해 봐. 너에게 온 초대장이니 네가 결정해야지."

'아이, 어쩌지? 만화영화 보여준다는데 한번만 갈까?' 하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청소를 하고 있는 엄마에게 달려와 "엄마, 편지지 좀 주세요." "왜?" "형아에게 편지 쓰게요."한다. 아이는 한참을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다.

"형아, 나를 축제에 초대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형아 미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라서 가기가 어려워. 형 안녕." 아이와 엄마는 고민 끝에 그 편지를 옆집 대문에 붙여 놓았다.

아이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려서 경험한 것들은 우리에게 친숙함을 주고, 그 친숙함은 상식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것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나는 오늘도 또 다른 병주를 만들기 위해 꼬마대장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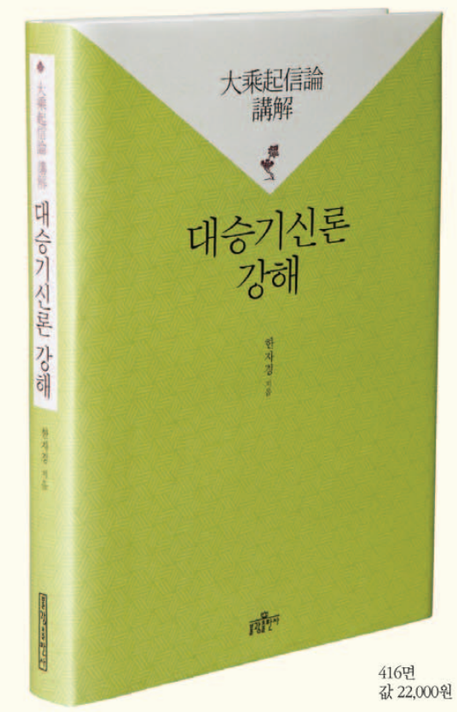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원효와 법장의 소(疏)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진여·생멸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고 상세하게 해설!

치밀한 구성, 정확하고 간결한 문체, 독창적인 사상체계로 중관, 유식, 여래장 등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회통하며 대승(大乘)의 대의(大義)를 논하는 대승불교 최고의 논서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講解
대승기신론 강해

416면
값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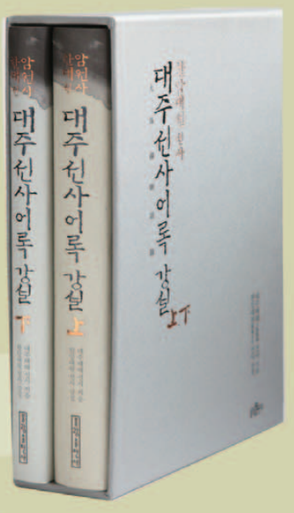


한자경 韓慈卿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칸트철학 전공)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유식불교 전공)를 받았다. 제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칸트와 초월철학』, 『자아의 탐색』, 『자아의 연구』, 『유식무경』,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불교철학의 전개』, 『칸트 철학에의 초대』, 『불교의 무아론』, 『21자(字)의 여정』,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의 맥』, 『헤겔 정신현상학의 이해』,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 등이 있다.

한국불교의 근간! 지금, 여기에 살아 있는
돈오선(頓悟禪)의 정맥(正脈)우리 시대 최고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간화선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한국불교!
그 뿌리는 돈오(頓悟)에 있고,
돈오는 『대주선사어록』에서 출발한다.



大珠禪師語錄
대주선사어록
강설(상·하)

대주혜해 大珠慧海 선사 지음
한암대원 閒庵大元 선사 강설

(상권)
돈오입도요문론 頓悟入道要門論
520면 32,000원

(하권)
제방문인참문 諸方門人參問
280면 18,000원

* 8월 이전에 판매된 29권의 『대주선사어록 강설(上·下)』을 새책으로 교환해드립니다.
불광출판사 (02-420-3200)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네팔, '부처님 탄생지' 문구 새긴 지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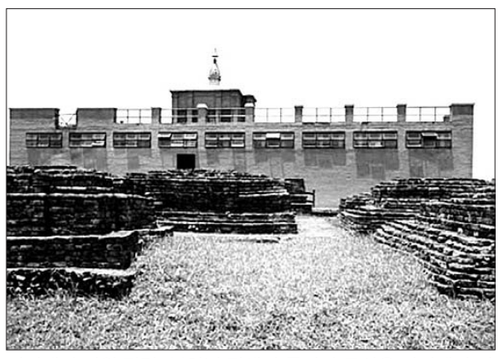
인도 TV 채널 'Zee TV'에 관련 광고 방영

'부처님 탄생지'를 명기한 지폐가 네팔에서 발행된다.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는 "네팔 정부가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라는 문구가 게재된 '100 루피' 지폐를 10월 중순부터 시중에 유통한다"고 보도했다.

새롭게 제작한 '100루피' 앞면에는 고타마 붓다의 어머니 마야데비(Mayadevi) 초상화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Lumbini: The Birthplace of Lord Buddha(룸비니: 부처님 탄생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와 함께 〈허핑턴포스트〉 지는 "네팔 정부가 NC TV(네팔), Zee TV(인도)를 통해 '신권 발행'과 '룸비니가 부처님 탄생지'라는 점을 부각한 방송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덧붙이고, "신권을 발행하고, TV 광고를 내보낸 것은 '부처님 탄생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겠다는 네팔 정부의 의지"라고 풀이했다.


마야데비 사원 전경.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동산은 마야데비 사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야데비 사원의 내경

이에 앞서 인도 TV 채널인 Zee TV는 지난 9월 8일 '부처님 탄생지를 인도'로 언급하는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해, 네팔 정부의 반발을 샀다. 이때, '카투만두 주재 인도 대사관'과 '네팔 케이블 TV 협회'가 중재에 나서 네팔 정부와 Zee TV 사이의 반목을 막을 수 있었다.

수디르 파라주리(Sudhir Parajuli, 케이블 TV 협회) 회장은 "나는 힌두교도이지만, 부처님께서 네팔의 룸비니에서 탄생하신 점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며 "화폐를 발행하고, 광고를 제작하는 것은 부처님 탄생지와 관련해 인도인과 세계인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탄생지'에 대한 오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도계 미국인 언론인 페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당시 CNN 기자로 활동) 씨가 CNN의 토크-쇼 '타임 매거진(Time magazine)'에서 '부처님 탄생지를 인도'로 언급했고, 이때부터 많은 세계인, 나아가 인도인이 '부처님 탄생지를 인도'라고 믿기 시작했다.

'부처님 탄생지'와 관련해 학자들은 "B.C. 623년 네팔 남부 평야에 위치한 네팔에서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B.C. 249년 세워진 아쇼카 기둥의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역시 '부처님은 네팔에서 탄생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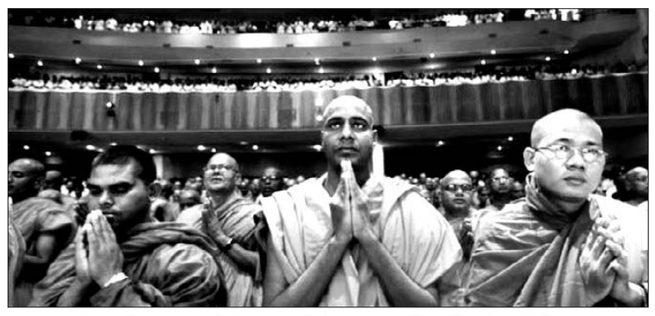
하지만 2010년 인도계 미국인 언론인에게서 시작된 부처님 탄생지 관련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인도 델리에 있는 불교재단의 쉐이라 디크쉬트(Sheila Dikshit) 회장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인도는 축복받은 곳이다. 인도에서 시작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세계 곳곳에 전해져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부처님 탄생지'에 대한 오해는 계속되고 있다.

〈허핑턴포스트〉 지는 네팔 관광청의 말을 인용, "탄생지 관련 신권과 광고는 부처님의 탄생지가 인도가 아닌 네팔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히고, "이 일은 올해를 '룸비니 방문의 해'로 정하고, 세계 각지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팔 정부의 '룸비니 관광 정책'과 맞물려 '부처님 탄생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시아 불교계 '하나'로 뭉친다

'미국의 소리(VOA)', "불교계 '연맹', 결성되고 있다"


지난 9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세계 평화와 불교' 주제 국제회의 전경

아시아 불교계를 회통할 '연맹(가칭)'이 결성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이하 VOA)가 보도해 주목된다. VOA는 "국가·민족의 벽을 넘어 각 아시아 불교계의 간극을 좁혀지고, 나아가 세계 종교로서 불교의 위상은 더욱 키울 새로운 연맹이 움트고 있다"고 전했다.

VOA는 연맹 결성준비위원 롭짱(Lobzang) 스님의 말을 인용, "지난달 33개국 불교계 지도자들이 인도 뭄바이(Mumbai)에서 '세계 평화와 불교(World Peace and Buddhism)'를 주제로 첫 국제회의를 개최, '새로운 연맹'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며 "이는 동시대 불교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맹' 결성의 단초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VOA는 "지난 9월 열린 첫 국제회의에서 앞으로 결성될 '새로운 연맹'은 인도 구자라트(Gujarat),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등지에 흩어져 있는 100개 석굴 보존을 비롯해 아시아 각지의 불교유산을 보조하는 것을 최우선을 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롭짱 스님은 "결성준비위원회는 '새로운 연맹'에 중국 불교계도 동참하길 희망한다"며 "지난 9월 국제회의에 베이징대학 교수 등 중국불교계 대표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무산됐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빤야와티 스님, 컬럼비아대학 초청연사로 나서

'쉬프만 강의' 미국서 손꼽히는 명사 강연 프로그램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첫 비구니 스님(상좌부)인 빤야와띠(Ven. Pannavati) 스님이 10월 8일 컬럼비아대학 초청으로 강단에 섰다.

미주리주 공영라디오(Mid-Missouri Public Radio)에서 발간하는 〈KBIA〉 지는 "빤야와티 스님이 '침례교도에서 불교까지'를 주제로 컬럼비아대학 부설 돌시 예배당(Dorsey Chapel)에서 학생과 교직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초청 강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KBIA〉 지에 따르면 이번 초청 강연은 '쉬프만 강의(Schiffman Lecture) 시리즈' 일환으로, 미국 사회에서 종교·인종·계층간 화합에 헌신한 빤야와띠 스님의 공로가 인정돼 마련됐다. 컬럼비아 대학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쉬프만 강의'는 정치·문화·교육·종교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 선보인 명사를 선정해 진행한다.

이날 강연에서 "모든 삶은 축복이며, 삶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신 본성"이라고 강조한 빤야와티 스님은 "우리는 경험을 평범한 의식 너머로까지 이끌어내야만, 그 과정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며 "지혜란 서구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쌓아야만 삶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빤야와띠 스님. 올 봄 'Humanitarian Effort' 상을 수상한 스님은 10월 8일 컬럼비아대학교 종교학과의 초청으로 강연했다. 스님은 하버드대학 특별 강연 일정을 가지고 있다.

〈KBIA〉 지는 "스님의 얼굴 표정은 풍부했고 손과 팔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 청중들 대부분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스님과 청중 사이에는 활기가 있어 보였다"고 강연장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노스캐롤라주 헨더스빌(Hendersonville)에 머물며 '단순주의(Embracing Simplicity)의 집'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 '집 없는 청소년'들의 재활을 돕고 있다.

〈KBIA〉 지에 따르면 △자기표현 양성 △예술·명상 교육 △직업 교육 △성인 멘토 결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주의의 집'의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도 적극 수용되고 있다.

빤야와띠 스님은 이번 컬럼비아대학 초청 강연에 이어 하버드대학 특별 강연에도 나선다. 오종욱 편집위원

영국 삼예링 설립자 초제 아콩 사망

英 티베트 불교계 '아버지' … 英 불교계 '비통'

영국 티베트 불교계의 '아버지' 초제 아콩(Choje Akong) 스님이 '살해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국 불교계가 '비통'에 휩싸였다.

〈더 텔리그라프(The Telegraph)〉 지는 최근 "스코틀랜드에 삼예 링(Samye Ling) 사원을 개원한 초제 아콩 스님이 중국 청두 지역에서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초제 아콩 스님은 1963년 영국으로 망명, 1967년 삼예 링 재단을 설립한 후, 스코틀랜들 덤프리스(Dumfries) 지역에 서구 최초의 티베트 불교 사원 '삼예 링'을 개원했다.

〈더 텔리그라프〉 지는 인도 다람살라 인근 규토(Gyuto) 사원에서 보도한 칼마파(Karmapa)의 말을 인용, "나와 어린 시절 함께 보낸 아콩 스님은 티베트 장경을 보급하기 위해 헌신했고,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 티베트의 미래를 밝혔던 사회운동가였다"고 덧붙였다.

청두 경찰국은 "아콩 스님의 살해 용의자는 '돈 문제'로 다투던 조카와 그의 사주를 받은 개인 운전수"라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영국 삼예 링 사원을 개원한 초제 아콩 스님

먹는 것은 'Yes', 말하는 것은 'No'

美 브룩클린 '묵언의 식사' 음식점 눈길

뉴욕 브룩클린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식사만 해야 하는 레스토랑'이 화제다.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 지에 따르면, 부룩클린의 그린포인트(Greenpoint) 지역의 '이트(Eat)'라는 레스토랑이 매주 일요일마다 '묵언의 식사'를 영업 정책으로 선보이고 있다.


묵언의 식사를 하는 손님들.

이곳의 일요일 영업 시작은 오후 8시로, 주로 인근 주민을 '저녁 만찬' 고객으로 맞이하고 있는데, 손님들은 주문 후 모든 코스가 끝나기 전까지 묵언해야 한다.

"인도 여행에서 보고 배운 '불교 수행법'에서 '묵언의 식사'를 생각했다"는 니콜라스 나우만(Nicholas Nauman, '이트' 수석 주방장) 씨는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이 일주일 중 하루만이라도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과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더욱 평온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곳의 저녁 만찬은 마치 명상과도 같은 것" 타냐 스틸(Tanya Steel) 〈에피큐리어스(Epicurious)〉 편집장은 "묵언은 그 자체만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찬을 하는 동안 그 '이야기'란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며 "이 점이 뉴욕커(New Yorker)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禪大韓佛教 曹溪宗
새롭게 변화하는 불법시대!
이땅에 부처님법 뿌리내리고 불교의 진리와 위상을 드높일 종도를 모십니다.
또한 새롭게 새로운 종단에서 종도의 단합및사회봉사와 종단 활동에 동참하실 스님을정성다해 모십니다.
입종안내
• 승적원부(본종입종양식 1통)
• 타종단승려는 승려증 복사본 1통
• 주민등록증 복사본 앞뒤1장
• 사찰전경 내외부 사진 각1장
• 반명함사진 4매 (대가사 수한 사진)
• 승려증,임명장,사찰등록증,발급
총무원: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55길9
禪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가입 문의: (02) 959-1825
대한禪報신문사 문의: (02) 962-3467
불교종단사업부 문의: 070-7391-7767
본 종단은 출판 및 불교사업의 수익금은 종단 운영기금으로 쓰입니다.
종도가 잘 되어야 종단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참회진언
타올
100% 순면...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땀 흡수 안되는 마타올은 북편...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 영산불교, 불교사의 새 장을 열다!

천만생을 가도 만나기 어려운 정법문중 부처님회상
와서 보고 듣고 귀의하면 영원한 행복의 길 열려

1. 부처님 없다 하면 가짜불교–2000년 넘게 껍데기 불교 믿어
2. 21세기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신 부처님–신불교 탄생
3. 부처님은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신 인류의 구원성자
4.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적 구원의 주체
5. 영산불교 부처님 회상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구원선
(1) 정법에 귀의하여 석가모니불 칭명염불 해야
(2) 현지사 천도재는 부모 · 조상님에 대한 최고의 효행
(3) 관음태교는 자손의 행복과 국가인재 양성 위한 최상의 선택
(4) 석가탑 · 다보탑은 부처님 세계의 탑과 연결된 무량의 복전
(5) 약사삼존불 상주하시는 약사성전은 불치 · 난치병 치유센터
(6) 미타삼존불 상주하시는 미타성전은 정토보살 되는 관문

1 부처님 없다 하면 가짜불교 – 2000년 넘게 껍데기 불교 믿어

◈ 부처님 실체 모르고는 불교의 참모습, 참행복 못 찾아

불교는 진정한 행복종교입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①금생의 행복 ②내생의 행복 ③영원한 행복의 3가지 행복을 모두 말합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생이 있음을 믿고, 윤회세계의 고통을 믿고, 해탈세계의 행복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께 귀의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는 불교의 심오한 진면목을 알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 2600년 동안 부처님 실존과 위신력 몰라–껍데기 불교 믿어

그동안 우리는 부처님께서 빛의 인격체로 실존하고 계심을 몰랐습니다. ≪법화경≫, ≪화엄경≫의 교설을 뛰어넘는 부처님의 무한한 위신력을 몰랐습니다. 불교학자들이 불(佛)의 삼신설(三身說)을 주장하고, 경전에도 그 근거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부처님의 실존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열반경≫의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비유나 방편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반열반 이후 2600여년 동안 아무도 부처님의 존재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없는 불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주적 진리의 종교로서의 불교의 진면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이, 불자들은 빈껍데기만 남은 불교를 믿어온 것입니다. 부처님이 없다고 하면 불교가 아닙니다. 가짜불교입니다. 이름만 불교입니다.



현지사 부산분원

◈ '무아론의 왜곡' 으로 부처님 부존재의 논거 제공

부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거의 근저에는 '무아론의 왜곡' 이라는, 불교사적으로 부끄러운 사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아론은 부처님께서 나를 포함한 현상계의 모든 존재의 '실체 없음' 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실천적 의미는 '나에 대한 집착과 욕심, 이기적인 생각' 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아론을 현상계의 존재가 아닌 '나의 본체' 인 영혼체마저 없는 것으로 왜곡하여, 마침내는 윤회와 해탈의 주체도 없고, 부처님도 보살님도 없는 희한한 불교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 큰스님이라는 분들이 법상에서 '마음이 부처' 라든가, '지옥과 극락도 마음속에 있다' 든가 하는 대망어를 함으로써 많은 중생들을 오도하는 지중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대망어죄로 인해 사후에 얼마나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2 21세기, 불신(佛身)으로 한국 땅에 오신 부처님–신불교 탄생

◈ 신불교 정법시대 열기 위해 불신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은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21세기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인 영산불교에서 다시 한번 만 천하에 선언합니다. 부처님께서 2600여년 전에 대열반에 드신 후, 대부분 불자들은 부처님께서 우주본체인 공과 하나가 되어 완전히 무(無)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라는 상적광세계에 불신으로 돌아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한국 땅에 몸 받아온 가섭존자 광명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큰스님을 붓다 만들어 데려가시기 위해, 신불교 정법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국 땅 춘천 현지궁에 불신(佛身)으로 광림해 계십니다.

◈ 21세기 보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실존' 중심의 신불교

부처님의 불신은 3가지 유형으로 존재합니다. 법신불 · 보신불 · 화신불입니다. 법신불은 부처님의 성품과 지혜가 우주본성과 완전히 합치된 비인격적 우주적 광명체이고, 보신불은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중생을 구제하시는 무량광 빛의 인격체이며, 화신불은 중생교화를 위해 보신불이 만들어낸 분신체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 형상을 가지신 보신불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들의 업장을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부처님입니다.


초파일 10만 봉축등으로 장엄된 현지사 전경

한국 땅에 오신 이 보신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광명 만덕 큰스님과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 개창하신 21세기의 불교가 바로 신불교이고 영산불교입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왜곡된 무아론' 을 바로 세워, ①부처님 실존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불교관을 정립하고, ②인간 본체인 영혼체가 윤회하고 해탈하는 주인공임을 주장하며, ③ 팔정도 칭명염불만이 불보살이 될 수 있는 정법 · 정통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 부처님 친견은 가장 확실한 부처님 실존 증거

부처님 실존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광명 만덕 큰스님과 자재 만현 큰스님께서 깊은 삼매에 들어, 광휘현란하고 청정 · 영롱한 억종의 빛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인격적 불신을 직접 보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후 십 수년 동안을 두 분 큰스님과 함께 하시면서 한국 땅 현지궁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마다 두 애제자가 올리는 공양을 드십니다. 여러 붓다님들과 함께 차도 드십니다. 회의도 주재하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지시도 하십니다. 법회 때는 큰스님의 정수리에 정좌하시어 무량광으로 참석 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공양도 받으시고, 천도재도 주관해 주십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중생구제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다. 이런 부처님을 없다고 하면 큰 불경이 되고 지중한 죄를 짓는 일입니다.

3 부처님은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신 인류의 구원성자

◈ 최초불이시고 우주법왕이시며 구원성자이신 부처님

≪법화경≫ 에서는 부처님께서 성불한 지가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나 되었다고 하면서 부처님의 구원실성(久遠實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겁생 동안을 스승도 없이 홀로 피나는 정진을 거듭하여 마침내 우주본체와 하나가 되어, 절대계라는 전인미답(前人未踏)의 심심미묘처(深深微妙處)를 인류 최초로 개척하신 최초불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불하신 후 수많은 불보살님들을 길러내셨고 무량의 중생을 구제해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의 주(主)이시고, 법왕이시고, 삼계의 지존이십니다.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신 인류의 영원한 구원성자이십니다. 붓다중의 붓다이시고, 모든 붓다들의 아버지요 스승이십니다.

◈ 부처님은 무량광의 무한한 위신력으로 인류를 구원

우주본체인 공(空)과 하나 되어 공의 질료와 정보와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처님은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위신력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능력은 불신을 이루고 있는 무량광으로부터 나옵니다.

무량광은 억종 색깔의 광명으로 이루어진 청정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입니다.자연의 빛이나 영적 세계의 어떤 빛과도 차원이 다른 우주 본원의 빛입니다. 중생이 보면 가루가 되어버릴 정도로 극도의 광도와 강도를 지닌 불멸의 빛입니다. 물 속이든 땅 속이든 마음 속이든 어디든지 비추지 않은 곳이 없는 신비의 빛입니다. 억종의 무량광 하나하나마다 특수한 역능이 있어 전지하고 만능자재한 위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중생의 지중한 업장을 소멸할 수 있고, 무주고혼이나 삼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천도시킬 수 있는 구원의 빛입니다. 사바세계를 들어 던져버릴 수도 있고, 모든 외도들을 조복시킬 수 있는 신력(神力)의 빛입니다.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혼체에 태산같이 쌓인 업장을 소멸 받을 수 있고, 극심한 고통의 삼악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해탈성자가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수장들도 불신을 갖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업장소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류구원의 종교는 진리의 종교인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4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적 구원의 주체

◈ 우주법계의 수많은 붓다님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부처님 한 분의 능력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우리 부처님이 길러내신 수많은 붓다님들이 있습니다. 다보여래불, 칠구지불모왕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보명불, 환희장마니보적불 문수보살, 청정행왕불 보현보살, 정법명왕불 관세음보살, 시방여래불 지장보살, 정명행원불 대세지보살, 해위등왕불 미륵보살, 산왕불, 치성광여래불, 명상불, 화광불 등등....

모든 붓다님들은 절대계에 삼신을 두고 있어 우주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현지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우주적 구원능력

우리 부처님을 비롯하여 이 수많은 붓다님들의 능력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그야말로 무한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붓다님들의 보신불이 부처님의 법신불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들어가면 하나의 우주적 광명체로서 단일 인격체가 되어 모든 붓다님들의 능력이 합해진 우주적 구원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법계 차원의 작업, 지구적 재난과 큰 전쟁의 방지, 우리나라의 통일과 인류평화를 위해 실질적 구원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현지사 대적광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절대계의 비로자나불과 하나로 연결된 세계유일의 불상입니다. 매월 음력 초하루에는 실제로 우주적 불력을 발휘하여 구원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불상을 모신 대적광전은 지구촌 보물 1호로서 무량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족통일과 국운융창, 큰 전쟁의 방지와 인류평화를 위한 두 분 큰스님의 간절한 발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5 영산불교 부처님 회상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구원선

(1) 정법에 귀의하여 석가모니불 칭명염불 해야

인간의 불행과 행복은 인과법에 따라 내가 수많은 과거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선악의 행위, 즉 업(業)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 업은 인간의 본체인 영혼체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우리 중생은 영혼체에 쌓인 태산 같은 업장으로 인해 죽으면 대부분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삼악도에 떨어집니다. 천도재의 결과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이런 악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회상을 만나야 합니다. 천만생에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회상의 정법에 귀의하여 칭명염불을 하고 업장소멸의 가피를 받는 것입니다. 금강경 읽고 다라니 하고 석가모니불 칭명염불을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생도 잘 살고, 죽을 때 잠자듯이 죽고, 사후에는 지옥 · 축생의 악도를 벗어나 천상으로, 해탈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헤엄쳐 가는 대신 부처님의 구원의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칭명염불과 함께 5계 10선 등 청정계율을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보살행, 즉 자비 이타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여 선근 보따리를 크게 키워나가야 합니다. 가장 큰 선근공덕은 부처님 회상에서 짓는 선근공덕입니다.

(2) 현지사 천도재는 부모 · 조상님에 대한 최고의 효행

효는 불교의 중심사상으로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덕목입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해드리는 것은 효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는 사후에 부모님의 영혼체가 받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짐승의 몸으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지옥에서 기약 없이 극심한 형벌을 받고 있는 부모님을 건져내어 준다면 더 이상의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도재는 최고의 효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도재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셔야만 실제로 천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가수배도 천도도 불가능합니다.

(3) 관음태교는 자손의 행복과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최상의 선택

태교는 태아의 일생을 좌우하며,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히, 관음태교는 부처님께서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직접 말씀하신 태교법이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삼매 중에 현신하시어 자재 만현 큰스님께 부촉하신 새로운 차원의 행복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으로 태아의 업장 정화를 통해 천재와 성현을 길러낼 수 있는 전인교육적 태교법입니다. 관음태교의 가풍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바로 행복을 물려주는 최상의 가보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관음태교는 세계적 인재를 많이 배출한 이스라엘의 전통태교와 영유아교육을 훨씬 능가하는 획기적인 국가인재양성 태교법임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관음태교는 전인교육적 태교법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자식교육을 포함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인 무거운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정책당국의 혁신적인 인식전환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산불교에서는 앞으로 '관음태교 국가인재 양성운동' 을 적극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4) 석가탑 · 다보탑은 부처님 세계의 탑과 연결된 인류의 복전

석가탑은 인도 영축산 영산궁에 있는 부처님 설법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탑에서 대적정삼매에 들고 나고 하시면서, 시방의 많은 불보살들을 위해 법문하십니다. 이 석가탑은 불과 이루신 두 분 큰스님께서 점안하여(2011. 4월 초파일) 영산궁의 실제탑과 빛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계유일의 석가탑입니다.

다보탑은 삼계지존이신 다보부처님께서 수많은 본화보살님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탑 중의 탑입니다. 다보부처님의 불국토인 보정정토에 있는 거대한 5층탑입니다. 2009년 4월 초파일에 불과 이룬 두 분 큰스님께서 점안하여 절대계의 실제 다보탑과 하나가 되었으며, 우주적인 불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유일의 다보탑입니다.

다보탑의 4각형태와 석가탑의 8각형태는 각각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불교의 영원한 진리를 상징합니다. 석가탑과 다보탑에는 부처님세계의 두 지존부처님께서 항상 탑 속에 계시므로 불자들의 성스러운 기도처로서 최고의 복전이 되고 있습니다.

(5) 약사삼존불 상주하시는 약사성전은 불치 · 난치병 치유센터

현지사 약사성전(강원도 고성 분원)에는 약사삼존불께서 상주하고 계시며, 약사정토에서 파견된 98분의 최정예 전문의(專門醫) 보살님들도 와 계십니다. 이러 약사성전은 지구촌에서 하나 밖에 없습니다. 약사부처님은 업병을 포함하여 현대의학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 · 난치병 등 만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의중대왕이십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술도 하십니다. 많은 치유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 미타삼존불 상주하시는 미타성전은 정토보살 되는 관문

대전에 있는 현지사의 미타성전은 미타삼존불께서 상주하십니다. 불과 이루신 두 분 큰스님께서 점안하여 서방극락정토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유일의 미타성전입니다.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께서 수년간 사유하여 만드신 완전한 해탈세계이며,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영원한 안락의 세계입니다. 현지사의 미타성전은 인연 있는 염불행자들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사 대전분원

▪ 현 지 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 033-243-1787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9-2 이센타워 15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195-2 ☎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1동 630-41 ☎ 02-453-5953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50-13 ☎ 053-654-5557
• 제 주 분 원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63 ☎ 064-783-5355
• 일 본 분 원 일본국 야마구치겐 이와꾸니시 히라타 ☎ 0827-34-1626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14-39 ☎ 042-525-5325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



대행선사 법어

현대불교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3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031-470-3100 (Fax)031-470-3116

행복한 삶 원하면 '마음 비움' 불사부터

조계사 관음재일 법회

시명 스님(통도사 한주)

참회하면 새 삶으로 건너갈 수 있다 했다. 좋은 것도 참고 나쁜 것도 참으라 했다. 일사불란, 번잡함 없이 마음을 탄탄히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스님은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 비움에 대한 불사가 먼저라는 시명스님의 법문을 들어본다. 정리=배현진기자



시명 스님은 … 통도사에서 경봉 스님 문하로 출가했다. 통도사와 해인사 교무국장 및 '해인', '등불' 편집주간을 역임했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수백 차례 이상 공연한 음성포교의 대표주자다. 불교텔레비전 '우리들의 찬불가'를 진행했으며, 불자들의 노래모임인 '불교성악회' 회장을 역임했다. '청산에 드는 마음' 등 음반을 발표했다.

올바른 원력을 세워야

불교에서는 원(願)이라고 하지 않고 원력이라 합니다. 원은 소망이지만 원력은 거기에 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한다고만 해서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보태져야 할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원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살다보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력을 세워야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성불하길 바라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바람이 있겠죠. 법당에 온 이유도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 힘이 부족하니까 부처님에게 격려 받으러 온 것일 겁니다. 세상사 헤쳐나갈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부처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습니다. 그러니 절에 올 때 원력을 세워서 가지고 나오십시오.

천수경을 독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세음보살을 닮고 배워 관세음보살처럼 살겠다 다짐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경의 근본은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는데 있습니다. 비록 원수라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 끝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살의 염원이 이 땅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나 자신의 원보다 먼저 관세음보살의 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 "천수경 독송하는 이유는 관세음보살처럼 살겠다 다짐하는 것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
> 사바세계는 기쁨 · 슬픔이 반반 좋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적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아야"

희망 없는 곳이 바로 지옥

부처님은 우리가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를 떠나길 바랐습니다. 왜죠?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고통의 도시로 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영원한 고통으로 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영혼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가려는 자, 나를 지나가라
나를 지나가는 자는 온갖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이처럼 지옥은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부처가 될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늘 고통을 받기 때문에 성불을 생각하기는커녕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절망스럽죠. 살아가는 데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은 결국 지옥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알고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지옥에 빠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회 없으면 새 마음으로 건널 수 없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선 참회를 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왔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고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잔에 물이 찼는데 새로 물을 채우려면 있던 물을 비워버려야 하는 게 이치입니다. 물이 꽉 차 있는데 더 채울 수가 없듯 우리 마음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불사는 마음비움에 대한 불사여야 합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면 있던 집을 허물어야 하듯, 일상의 모든 묵은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참회하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이 장애가 돼서 앞으로 나가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으라고 합니다. 멀리 뛰기 위해서는 몇 걸음 뒤로 멀리 물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참회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참회가 없이는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참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참, 두 번째 사참을 해야 합니다. 이참은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사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懺悔)라는 말 중 '참' 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 '회' 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참회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참회진언, '옴 살바못자모지사다야사바하' 란 말은 '일체 모든 불보살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참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조계사에 법문을 들으러 온다는 마음자체가 참회하는 마음입니다. 나쁜 마음으로 법당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께 근심 걱정을 던져버리고 가리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곧 참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탄탄히 해야

우리는 법당에 와서 서로에게 성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부처를 이루라는 말이죠. 과연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고치면 됩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손안에 있듯,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새기십시오. 나쁜 마음은 다른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자신부터 마음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1초 동안 75번이나 움직인다고 합니다. 컴퓨터가 계산하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바뀌는 속도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마음 즉 삼매에 들어가서 일체 움직임을 보지 못하면 일상이 평안해 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통일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햇볕과 돋보기로 불을 내려면 초점을 맞추어야 하듯이 마음이 하나로 정해지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마음을 제일 먼저 통일해야 합니다. 마음은 일심불란(一心不亂)이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모습 가운데 하나인 준제보살은 일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없애줍니다. 준제주를 독송하면 적정한 마음이 들어 어떤 어려움도 이 사람을 침노하지 못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이 침노하지 못합니다. 공기 중에도 결핵균 등 온갖 균이 떠다니지만 건강한 사람한테는 붙지 못하죠. 설사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능히 이겨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하다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비켜갑니다. 마음을 탄탄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바세계는 반쯤 반쯤 있는 세계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반쯤있습니다. 싫은 것도 좋은 것도, 선도 악도 반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기에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극락세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해서 살지 못할 세계도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반쯤은 살만하고 반쯤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참을 줄 모르면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경봉스님은 참을 인자 세 개를 가슴에 새기고 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아야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고진감래라고 생각하면서 넘길 수 있지만, 좋은 것은 여간해선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많이 취하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좋고 나쁘고를 떠나 만족한 삶을 살줄 알아야 합니다. 적은 것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거죠. 만족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루에 10번만 해 보십시오.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며, 나아가 시방중생의 원각이 청정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그 울림이 전체로 가서 시방세계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적 소양을 갖춘 청년 지도자 육성!
불교적 가치의 현대적 구현!
'나'를 돌보고 '세상'을 치유하는 불교!

현대불교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인문실용 융합형 인재 육성!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조선 독립 해법 불교의 ‘중도’에서 찾아야”



조선에서 온 붉은 승려

정찬주 지음 | 김영사 펴냄 | 1만 3천원

광대한 중국대륙을 누비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생을 바쳤지만 해방된 조국에서 간첩의 누명을 쓰고,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등 마지막까지 불운하게 살다간 운암 김성숙의 생애를 그린 소설이다.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얼룩져 있던 20세기 초, 강도 일본에 모든 것을 빼앗긴 조선은 독립을 염원하며 슬픈 역사 속에 잠겨 있었다. 수많은 조선인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아리랑을 부르며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상하이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소설은 조선에서 승려 생활과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1923년 26세의 나이로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아나키스트와 민족주의 혁명가로 활동했던 김성숙의 삶의 궤적을 쫓는다.

1969년 4월 12일 오전 10시. 쓸쓸한 그의 죽음으로 소설은 시작된다. 반생은 중국 대륙에서 풍찬노숙하면서 항일투쟁을 했고, 조국에서의 반생은 끼니를 걱정하는 가난과 투옥의 고초, 말년의 병마 속에서도 민족자주 노선으로 남북통일을 갈망했던 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펼쳐진다.

“1916년 11월 말. 금강산 유점사에서 온 19세의 청년은 땔나무를 하고 요사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는 일을 했다. 지난 봄날 승려가 되겠다고 용문사로 왔지만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주지스님은 여전히 잡일만 시켰다.”

김성숙은 1916년 양평 용문사에서 풍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지만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 승복을 벗는다. 처음 받은 법명은 성암(星巖)이고, 법호는 태허(太虛), 호는 운암(雲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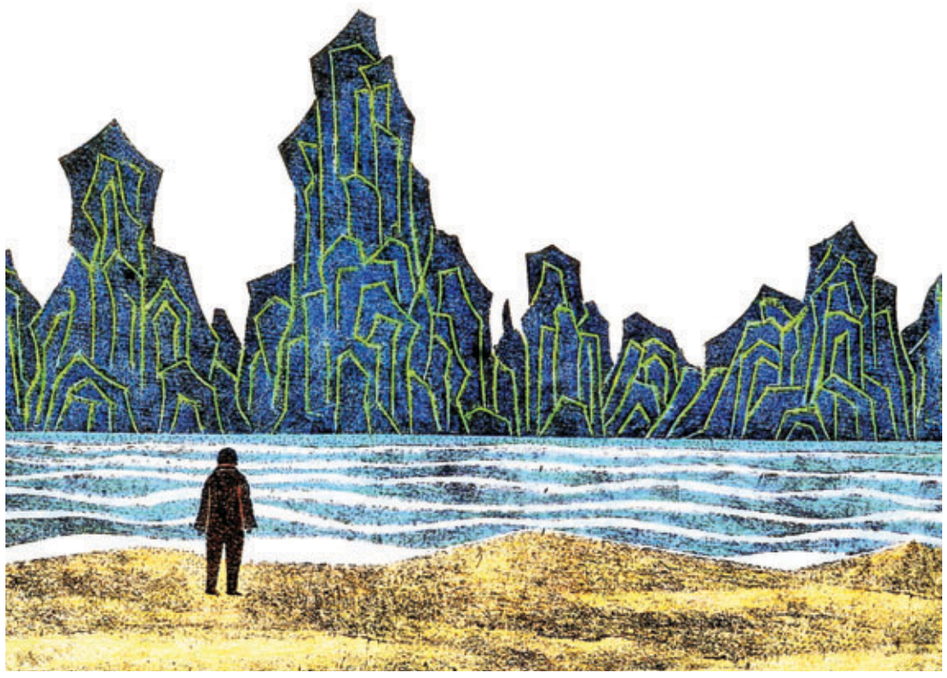
“주지스님, 비구계 계첩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절 밖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절 밖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독립운동을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뒤부터 깊이 고민해봤고 마침내 도달한 생각입니다.”

1916년 김성숙은 중국으로 망명을 결심하고 집을 떠난다. 봉천으로 가기 위해 원산, 청진을 거쳐 두만강을 건너려 했지만 국경수비대의 삼엄한 경계에 막히고, 기회를 엿보던 김성숙은 시절인연에 이끌려 용문사에서 불가에 입문한다. 월초선사의 뜻을 받아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지독한 고문을 견뎌낸다.

1923년 드디어 베이징으로 건너간 김성숙은 아나키스트로 변신하면서 테러 조직 의열단에 입단한다. 그는 조선의 독립의 해법을 좌파와 우파의 논리를 넘어 불교의 중도(中道)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제에 저항하기 위한 ‘협동전선의 필연성’을 외치며 잡지 〈혁명〉을 발행한다.



독립운동가 김성숙의 생애 조명
반생은 중국에서 풍찬노숙으로 항일
조국에서 반생은 가난 · 투옥 · 병마



2004년 7월 28일 운암의 유해는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으로 안장됐다.

1927년 항일투쟁 이론가로 거듭난 김성숙이 혁명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던 때, 장제스의 쿠데타가 일어난다. 앙드레 말로가 〈인간의 조건〉에서 생생하게 묘사했던 그 상하이쿠데타다. 중국 혁명가들과 김성숙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전사들은 이에 맞서 광저우에서 봉기를 일으킨다.

1945년 조국이 해방되고, 친소와 친미가 아닌 민족 자주를 열망했던 김성숙은 남한을 선택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고, 공화당의 요직을 회유받는 정치도구로 전락한 말년의 김성숙. 그에게 남은 것은 옛 동지들이 지어준 오두막 ‘피우정(避雨亭-비나 겨우 피하는 집)’ 뿐이다. 1964년 4월 김성숙은 그곳에서 천식을 앓으며 죽어간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니,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 죽음이었다.

반도와 대륙을 넘나드는 거대한 스케일의 소설은 철저한 자료 고증을 통해 마치 당시 풍운의 무대를 직접 누비는 듯한 현장감을 불러일으킨다. 긴 호흡이면서도 속도감 넘치는 문체로 조선인 전사들의 삶을 세밀하게 포착해냈다. 김성숙 외에도 혁명가 김산, 거침없는 테러 투쟁으로 일본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의열단원 오성륜,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하여 중국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천제 음악가 정율성 등 조국의 새벽을 열고자 고군분투했던 전사들의 삶, 조선 혁명가들과 모택동의 운명적인 만남, 막후 실력자 주은래와의 우정, 김성숙과 중국인 아내 두쥔후이와의 안타까운 사랑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암흑의 독립운동사, 중국 혁명사가 구도소설가인 저자의 손끝에서 부활한다. **박재완 기자**

선시로 만나는 선사의 마음

시심시불

해안 지음 | 운주사 펴냄 | 1만원



1901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해안(海眼) 선사는 14세에 불가에 들어 17세에 백양사에서 만암 대종사를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한다. 18세 때, ‘7일 용맹정진’에서 학명 선사로부터 은산철벽을 뚫으라는 화두를 받고 생사를 걸고 정진한다. 그리고 7일 째 되는 날, 다생겁래로 찾던 길을 찾는다. 1974년 음 3월 9일 새벽, 내소사 서래선림에서 입적하니, 세수 74세 법랍 57년이었다. 생전에 호남제일선객으로 불리었던 해안 선사의 시집으로, 1962년에 나온 첫 책에 싣지 못했던 몇 편의 시를 더하여 개정판으로 다시 엮었다. 소박하면서도 투박할 정도로 기교는 배제되어 있지만, 한 편 한 편 마다에는 선사의 번뜩이는 선기와 자유로운 정신세계, 불교의 정수가 오롯이 담겨 있다.

수행생활 중에, 혹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소회를 가감 없이 써내려간 글 속에서 선사의 품격과 대자유인으로서의 자유자재함, 대중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인간미를 만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모든 이원성 통합하는 생명의 힘…만다라

심연에서 찾은 고향

글 · 그림 김영옥 | 마그마 펴냄 | 1만5천원



“이번 무의식세계에서 만난 ‘심연에서 찾은 고향’은 어느 때보다 흥미로웠다. 심연 속에서 경험되는 교감을 다양한 색으로, 다양한 표정으로, 다양한 몸짓으로, 다양한 날개 짓으로 생동하게 했다.”

만다라 예술가이자 만다라심리치료전문가인 김영옥 원장(마그마힐링센터)의 6번째 작품명상집이다. 이전의 작품집이 예술가로써의 내면탐색의 과정을 보여주었다면 이번 ‘심연에서 찾은 고향’은 김영옥이라는 한 예술가의 마음자리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모두의 마음 고향을 전달하고자 했다. 즉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심연의 고향을 찾을 수 있는 힐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다라 회화다.

동양학자 조용헌은 그의 만다라를 ‘궁극적 회화’라고 평했다. 그의 작품이 생과 사, 선과 악 등의 모든 이원성을 통합하는 초월적 그림이라는 게 이유다. 이번 작품 역시 모든 이원성을 통합해 나가는 자기발견의 성취를 보여준다. 그는 이번 명상집의 의미를 ‘만다라를 통해 끊임없이 파고드는 생명의 원천을 만나고 그것이 인류의 젖줄인 모태였음을 깨닫는 것’이라 말한다. 다시 말해 〈심연에서 찾은 고향〉은 개인의 삶을 여러 갈래로 분리시키는 모든 이원성을 통합하는 생명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다. 작가가 이번 작업에서 새롭게 시도한 것은 돌의 새김 방법이다. 항상 새길 때 밖에서 안으로 사용하던 칼의 법을 이번 작업에서는 안에서 바깥으로 향했고, 그 활동의 범위가 커져 몸의 움직임도 평소 두 배의 힘으로 자극이 됐다고 한다. 이렇게 큰 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은 ‘심연에서 찾은 고향’에서 대지의 넓은 힘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에너지가 되었고, 그 기운으로 함께 비상을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작가는 “‘언제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다. 그러나 세상과의 소통이 자유로운 생활로 변해버린 지금은 어느 때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심연에서 찾은 고향이란 주제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보다 더 가까이 세상을 향하기 위해 시도한 작업이다. 5회까지는 나와 국가 그리고 민족에 대한 정체선 확립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변 생활 속 관계와 세상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고 이번 작품의 이유와 과정을 밝혔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3 ~ 10/9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우리 모두는 부처다	종사르 잠양 켄체	팡세
5	산사로 가는 즐거움	현종	공감
6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7	사찰음식이 좋다	일운	담앤북스
8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김기추	운주사
9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10	선시	석지현	현암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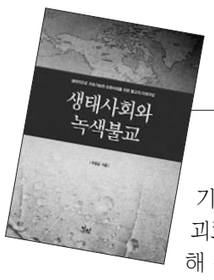


사진은 2012년 6월 20일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 기념촬영 하는 모습.

2012년 6월 20일 브라질에서는 '리우+20' 회의와 민간위원회 회의가 동시에 열렸다. 120여 개국 정상과 5만 여 명에 달하는 민간단체들이 모인 거대한 국제회의였다. 이 자리에서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논의 됐다.


2012년에 열린 '리우+20' 민간위원회 회의 장면. 이 회의에서는 녹색 경제 전환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했다.

연기적 가르침 '녹색불교'는 위기의 시대 해답



생태사회와 녹색불교

유정길 지음 |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4천원

근대와 탈근대를 동시에 포월(包越)
녹색불교의 패러다임은 미래의 희망
녹색 및 생명운동…진보적 계승자 돼야
녹색적 관점으로 불교와 사회 의제 재해석

1990년 전후 시기는 사회주의의 붕괴로 사회변혁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해 온 원력 보살들에게는 큰 혼돈과 좌절의 시기였다. 당시 변화를 분석하는 시각은 다양했지만, 소련이 붕괴하게 된 주목할만한 계기 중 하나는 당연히 고르바초프의 사상에서 비롯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정책이었다. 개혁과 개방이었다.

이후 92년 브라질서 7만여 명이 모여 역사상 최대 국제회의로 기록되는 유엔환경회의(UNCED)가 열렸다. 회의는 인류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개발, 진보를 외친다면 오히려 스스로 위기와 절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제까지 당연시된 발전 방식은 지속 '불가능' 한 것이며, 이제 그 방향을 바꿔 '지속가능한 발전' 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유엔환경결의' 를 했고 '리우선언' 을 통해 지구와 인류의 새 방향을 제안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전환' 에 대한 이야기이다. 생명, 생태, 평화, 녹색의 목적은 단지 자연환경 복원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관이며 미래의 사상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붕괴는 수많은 사회운동에 비전과 전망의 혼돈을 초래하면서 과거 과제와 새 과제 사이에서 혼란을 유발했다. 근대적 과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탈근대적 과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근대적 과제와 이와 반대로 탈성장과 생태민주주의라는 탈근대적 과제는 명백히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명확하게 탈근대적 과제의 입장에서 근대의 문제를 재조명하며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더 많은 풍요, 생산력의 발전, GNP · GDP라는 생산(Product)중심, 생산력주의의 진보는 그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과거의 진보는 직선적 세계관에 입각한 수직성장 선형발전론으로 미래세대가 이용할 자원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현세대만의 편익을 위한 자원 수탈을 강행하고, 다른 생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불교적 시각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은 다수의 반대를 외면한 채 4대강을 개발하고 원전을 당연시하는 토건족과 같은 논리의 세계관에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저자는 녹색 및 생명운동은 기존의 약자에 대한 배려, 평등과 민주주의에 관한 한 이제까지의 진보적 사회운동의 연장선에 있고 그것의 계승자이길 바란다. 그러나 기존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물질적 풍요가 곧 우리의 미래라는 시각에서 '생산력의 고도화' 를 진보라고 하는 생각은 명확하게 생태주의와 녹색, 생명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 이제 진보는 진화해야 하며 '진보' 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생명평화, 생태의 관점서 이제까지의 사회적 의제를 낱낱이 새롭게 해석한다. 불교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 또한 같다. 정치는 생태적 세계관과 분권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교육은 자연과 더불어 인간이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며, 복지도 생산력이 주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복지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자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평등은 곧 남성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여성성의 사회화를 제기하기도 한다. 동물에 대한 권리, 과학기술에 대한 입장, 토건과 국토개발에 대한 원칙 등도 점검하고, 생태적 시각에서 통일과 남북문제를 재조명 한다.

그는 불교의 근본으로 향한 노력과 현실로 가려는 노력 사이의 중도적인 통합을 중요시 생각한다. 한때 불교 내의 대립구도를 놓고 "민주대 반민주"라는 주장이 횡행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사회의 논리이며 본질에서 "불교적이냐 비불교적이냐"를 명확히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법을 올바로 구현하는 것이 곧 진정한 불교개혁이라고 그는 말한다.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의 개혁은 중요하지만 역시 근대적이다. 그러한 근대적 전망을 포괄하는 탈근대적 전망을 동시에 끌어안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포월(包越)이다. 그래서 정신과 내용 없는 시스템만을 문제 삼기보다 이제는 불교의 깨달음, 정신, 신앙과 눈 맑은 신심, 종교성 등을 깊이 살펴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백봉거사 '새말귀' 가 필요한 이유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안경애 편집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이 책은 백봉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한 것들을 간추려서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해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백봉은 기존의 전통적 화두수행법은 주로 출가자들을 위한 방편으로, 그것이 가지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을 걱정하고 내일의 삶을 걱정해야 되는 일반 재가자들이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밥 먹을 때나 대소변을 볼 때 조차도 화두에만 집중해야 하는 전통 화두법은, 생업에 종사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며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재가자들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봉은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우리 모두의 권리라고 말한다. 이것이 새말귀가 필요한 이유이고, 그가 거사풍 불교를 주창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백봉은 철저한 자기 살림살이와 독창적인이면서 명쾌한 선지로 학인들을 이끌어 주었으니, 그 가르침의 핵심은 '허공으로서의 나' 이다. 그는 허공으로서의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도리를 믿고 결정해 그대로 행하면, 일하고 밥먹고 빨래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견성의 도리가 되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초기불교와 명상의 상관관계는?



초기불교, 94가지 주제로 풀다

임승택 지음 | 도피안사 펴냄 | 1만5천원

저자는 초기불교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특정 부파의 주석문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지는 않지만, 초기불교에 대해서는 니까야 자체로 해명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니까야는 길거나 짧은 수많은 경전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는 붓다 자신의 가르침과 행적은 물론 주요 제자들의 교리 해설과 실천방식에 대한 언급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동일한 가르침을 이질적인 방식으로 중복해서 기술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한 제자집단들 사이의 상호 모순적인 견해라든가 긴장관계에 대한 묘사도 나타난다. 이러한 니까야의 구성은 초기불교의 가르침이 정연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 초기불교를 적용해 보게 하는 훌륭한 소스가 된다.

저자는 초기불교를 전공하는 연구자인 동시에 위빠사나와 요가 명상에 주력해 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경력과 관심을 반영한다. 매 주제마다 명상의 실천과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해명하기 위해 고심했다. 김주일 기자

선문과 교문 일치시킨 회통불교 설명



인간 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스님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2만원

이 책에서 보이는 〈원인론〉은 화엄종의 제5조이며, 선교일치를 주창한 규봉종밀(圭峰宗密 : 780~841, 당나라)의 저술이다. 제명은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힌 논서' 라는 뜻이다. 논주의 사상적 기반을 들어 일명 〈화엄경 원인론〉이라고도 부른다. 〈원인론〉은 우리 불교를 유교와 도교 및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서, 교법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니, 비교종교학의 효시라 할만하다. 또한 문학적 요소들을 풍부하게 갖추고, 인간세계의 역사를 통찰했으며, 세계관과 인생관을 이상적으로 밝혔으니, 문 · 사 · 철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논〉의 교상판석은 모든 교법을 망라했고 옛 단점을 보완해, 어느 교법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논설했으니, 팔만대장경 축소판이라 부를만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간략하고 뜻이 어려워 일반대중이 보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 책은 먼저 중요한 교상판석들의 개요를 보였다. 〈원인론〉은 원문을 실어서 번역했으며, 논주의 글과 해설문을 구별하기 쉽도록 이색을 사용했다. 정원법사가 해설한 〈발미록〉은 원문을 번역해 옮기고, 중요한 글은 원문을 실었으며, 각 장마다 요점을 정리했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구촌 최대 이슈. 360일이 일년이되는 대변혁으로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대우주에 초 공릉 빛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십경신 도통비법 당신에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최고급 인생으로 사는 도인 제왕 스승되는 천하비밀 수육보영진법사구계 득도 대법회

지구 축 변동으로 일년이 360일이 되는 대변혁 대우주의 빛으로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원 방 각 진법으로 120세 360세 도전 증상대운으로 비구니 보살에게 성불 득도 없는 무여열반을 넘어 우타라의 해인도법 초우주의 공릉 진법으로 성불 득도하는 전만고 후만고의 비밀법 한문과 한글은 우리말과 글로 천하를 다스렸던 단군 기원전 1565년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예성 지금의 충주 대한 마한 병한 진한 지구촌을 사등분하여 우리글 정음 38자를 삼세황제 BC 2182년 5월에 가림토로 사용 신라 설총께서 36자로 세종대왕께서 28자를 내 놓으신 것을 ○□△• 가감승제를 빼고 24자만 사용하고 영어 26자에 밀리고 있으니 이제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말과 글을 28자로 다시 찾아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전 세계 지구촌을 다스리는 일등나라 일등국민이 되는 천하 대 도법으로 지구촌 천지개벽에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인 것이고 대한민국을 사용하는 근본인 것이다.

※ 십경신일 8회에 걸쳐 대우주에 초 공릉과 특수 기공법을 받아 천지인이 하나 되는 법
첫째, 초우주의 특수 기법을 받아 만병을 고치는 공릉법이고, 둘째, 각종 종교인들이 받아 인체의 세포를 살리는 법이다. 즉, 도인이나 신선으로 사는 증상대운 팔자를 바꾸는 비법으로 이법은 역대 신선 도인들의 수행한 비법이며 경신일 마음을 정하고 초우주의 기법을 본인에게 접촉하여 마음에 병 정신에 병 육신에 병 잡신에 병 영혼에 빙의 병을 제도할 능력자 되는 십경신 진광의 초 공릉법이며 한방약방으로 못고치는 귀신병 중풍 치매 뇌와 정신병 기억 뇌하수체 신장 담랑 오장 육부 사대육신 종양등으로 수행기도 마장을 넘어 부귀 장수를 해결하는 초우주의 빛의 에너지로 도가의 기법 불가의 기법 신선의 기법 일체 유불선이 하나로되는 천하 대도법으로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비법인 것이다.



※ 이법은 대우주의 태양의 진법과 초우주의 공릉기법을 수행자의 마음에 문을 열어 현문에 넣어 대주천 소주천을 운행시켜 고질병도 해결하는 하늘땅에 감춰진 비법, 운명과 팔자를 고쳐 지구촌 도인 제왕 스승 되어 천하를 다스리는 최고의 도통 비법인 것이다.
(1) 관제를 제거하는 비법 전수 (2) 모든 잡신과 귀신 병을 제도하는 법 전수 (3) 천신, 만신, 마귀, 객귀, 병 소멸법 전수 (4) 임신, 불임병과 아들 낳는 비법전수 (5) 재산을 보호하고 부자되는 주문법 전수 종사자 철학가 및 어느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특수법. 이 법은 평생 직업에 구애 받지 않은 인격완성 도인되는 비법인 것이며, 최고의 지도자 인격완성 스승된는 법이자 수행인 것이다.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입제일 : 2013년 10월 20일 일요일 밤 9시
(간편한 옷 필기도구지참)
■해제일 :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밤 9시

☎ 02)821-6622 / 010-3239-3110 / 010-7228-8567
010-2481-3110 / 부산 010-8533-1601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유불선이 하나로 되는 웅조 미륵달마 불선도 총본산
사단법인 세계불교 달마조계종 진 불 선 원 태양의 집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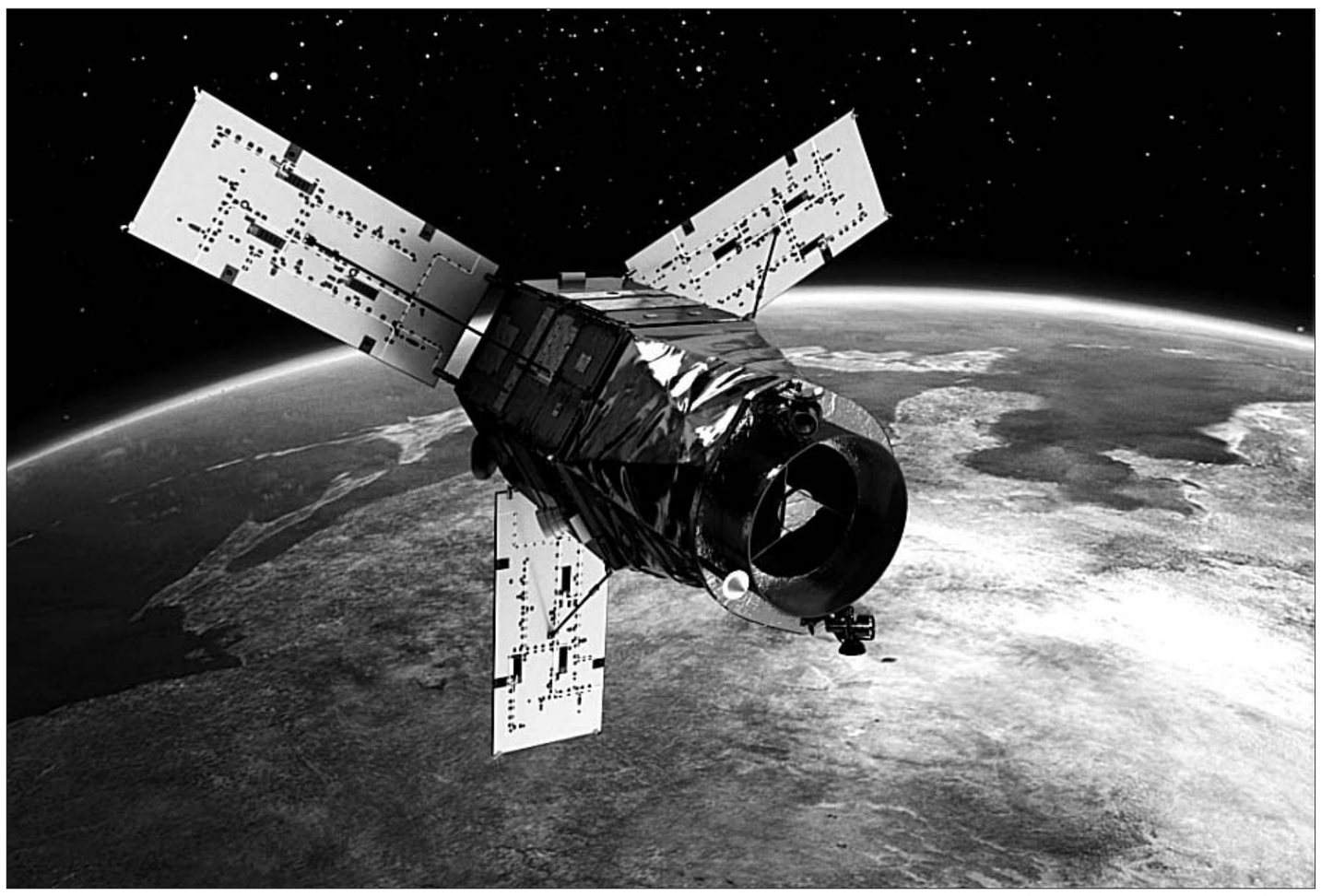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금강경과 문화예술 ㊦

류종민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금강경의 무위는 현대문화의 지향점



기계적인 천안이지만 인공위성은 지구에 있는 가정집 마당까지도 볼 수 있는 천안을 가졌다. 지구 꼭대기에서 찍었지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대상은 지구만이 아니다. 다른 천체, 별 등을 볼 수 있는 천안이 나날이 발전해간다.

후오백세 계법의 시대와 문화예술

오늘날 말법 시대의 모습을 투쟁견고시대(鬪爭堅固時代), 다툼이 굳어져서 견고한 시대로 본다. 나라간, 개인 간에도 투쟁이 있는 쟁투의 시대다.

18세기는 칸트가 말한 이성의 시대였다. 거기에 더해 칸트가 말한 오성(悟性)이라는 개념은,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진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지하는 것이다. 이성과 감성의 중간에 있는 사유능력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는 지성의 시대로 흘러갔다. 지성덕분에 우주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인간과 지구라는 작은 안목으로부터 벗어나 무한, 다중우주를 인지하게 됐다. 여러 개 겹쳐져 있는 우주 중에 우리는 물질로 돼 있는 우주만 보고 있다. 우주 속 나란 존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나지 다른 우주에 내가 또 있다고 한다. 게다가 과거와 미래가 혼재돼 어디든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구류중생 중 무색은 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닌 세계를 뜻한다. 부처님이 2천500년 전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오늘날 비물질로 존재하는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과학적 자료로 증명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수한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그리고 이제는 감성의 시대다. 문화의 흐름을 잡고 있는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는 연극, 음악, 영화 등 종합예술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감성이 연루되는 미적 세계다, 감성 그 자체로는 느낄 뿐이지 그걸 판단하지 못한다.

삼천대천세계를 부수면 미진
현대과학의 마이크로와 같아

칸트는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존재하나 그 사람과는 별개의 세계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판단할 수 있는 지(知)가 감성에 붙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풍부한 문화를 즐기려면 감성과 지가 합해진 감성지(感性知)의 안목이 높아져야 한다. 감상자가 작품의 반을 완성한다는 말이 있다. 작품의 반은 작가가 만들고 나머지 반은 감상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이를 향수(享受)한다고 하는데 향수한다는 것은 영어의 enjoy에 해당한다. 단순히 즐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름다움을 향수 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지 않으면 작품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복을 누릴만한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 복지국가는 주어진 복을 향수 할 줄 아는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21세기는 통섭의 시대다. 이성, 지성, 감성이 합쳐지고 종교와 과학이 상보적이 된다. 물질, 정신, 마음도 모두 합쳐진다. 어느 것이 더 뛰어나다는 이원의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녹아들어 융섭되는 원융(圓融)의 시대다. 그러므로 이는 쟁투의 시대로 표현될 수 없다.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좋은 것들을 취해 시대를 끌고 가야 할 것이다.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복된 세계가 될 수 있다.

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문화적 해석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은 무상정등정각이고, 어떤 중생도 다 갖고 있는 마음이다.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을 발한 자리는 멸도일체중생(滅度一切衆生)한 마음자리다.

일체 중생이 내 마음의 어떤 원인으로서 현현된 것이라면 내 마음이 멸도 된 다음 일체 중생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이 된다. 수많은 구류중생과 내 속에 있는 중생은 일치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아상 때문이다. 아상의 벽이 무너지면 그렇게 보지 못한다. 멸도된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 광명이 임할 수 있는 자리고 마음의 곳간이 깨끗이 정화되고 텅 비어 어떤 빛도 그대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

아응멸도일체중생은 보살의 발원이고 행원이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대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만 되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마음은 저절로 발해지는 것이며 그 자리는 청정해서 바로 불국정토가 임하고 있는 그 자리가 될 것이다. 이제 올 문화도 이러한 고양된 마음과 정신으로 확장 된다면 무상정등정각의 문화는 인류문화 최상 최고의 문화가 될 것이다.

오안(五眼)의 문화적 해석

18분에 나오는 5안, 그중 육안은 물질은 보되 비물질은 보지 못한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육근(六根)이라고 하는 여섯 뿌리의 첫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작용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다음 단계의 천안天眼은 육안이 진일보한 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눈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간의 장애를 무화시키고 색즉시공으로 공화시켜 보는 것이다.

매체에 의해서 천안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텔레(tele)-비전(vision)이다, tele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을 보거나 말할 때의 형용사다. 텔레파시(telepathy) 역시 상대가 멀리 있어도 감정을 전송하며 이를 읽어내는 것이다. 공감(empathy), 연민(sympathy)도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교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안은 과학적인 것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눈이다. 시공간 속에 빛의 파장으로 입력 되어있는 걸 열어 보면 과거도 알 수 있다.

기계적인 천안이지만 인공위성은 지구에 있는 가정집 마당까지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천체, 별 등을 볼 수 있는 천안을 가진 것이다.

지혜의 눈 혜안(慧眼)은 사건의 원인, 결과까지를 보는 눈이다. 천안에 대해서 해석하는 눈이며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보는 눈이다.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의 진리의 면모를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을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이는 육안에 비해서는 진화된 정신적인 눈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원인과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생성과 소멸을 연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혜안으로 사물을 비추어 보면 실상 이외에 염착할 것은 없다.

법안(法眼)은 객관적인 눈이다. 원인, 과정, 결과를 객관적으로 비춰보며 실상을 보고, 불안(佛眼)은 완전히 깨달은 전지전능한 눈이다. 이 눈에 비치는 모든 대상은 제도되는 입장에서 비추어 진다. 부처님은 미혹한 중생, 어두운 중생, 정신의 병을 앓는 중생, 어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생, 이러한 중생을 제도 하시려는 마음으로 보신다. 그리고 중생의 눈을 개안시킨다.

생명존중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인공적 가축사육의 피해가 재앙으로 나타나는 예는 많다. 먹는 사람이나 먹히는 동물이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식도락이라는 인간위주의 문명을 자성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고 있다. 제도를 받아야할 중생은 동물보다 인간일 것이다.

미진과 일합상(30분)의 해석

삼천대천세계를 부수면 미진, 아주 작은 단위의 가루가 된다. 티끌, 먼지며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지극히 작은 세계를 일컫는 마이크로(micro)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한 덩어리라고 하는 현상계의 모든 모양들을 부수었을 때는 먼지와 티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항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화합으로 뭉쳐져 있는 가상(假相)이다. 영원히 뭉쳐져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시간이 지난 후 부스러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멸하고 만다. 유위세계에 있는 것은 전부다 인연 화합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주의 모습마저도 그러한 연기(緣起)와 인연화합의 모습이고, 또 그 인연화합은 까르마(업)에 의해서 그렇게 될 뿐이다.

삼천대천세계는 즉비 세계며 실로 있는 것이라면 일합상(一合相)일 뿐이다. 모양의 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상계에서 변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닦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중시할 모습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법신여래의 견지에서 봤을 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다. '만법(萬法)이 귀일(歸一)이요. 일귀하처(一歸何處)인가' 는 화두로 쓰고 있는 말이지만, 하나로 돌아가는 자리 그것을 마음의 근본 자리라고 봤을 때 그 자리는 대단히 밝은 자리다. 여래의 밝은 당처일 것이다. 그랬을 때의 일합은 바로 뒤에 나오는 불가설(不可說)이다.

유위세계의 근원은 무위

지금까지 금강경과 문화예술을 개관하고 각분에 대한 연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과제는 문화비평, 문화인류학, 신화학, 미래학, 전통문화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예술에 대한 연관도 미학, 예술학, 예술철학, 각 예술의 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풍부한 문화를 즐기려면
감성지(感性知)의 안목 높아져야

근래 문명 담론에서는 문명과 문화에 대한 개념의 우위성에 대한 사적 고찰이 있었다. 문화는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전된다. 오늘날 종교는 문화와 연계되었지만, 이런 면에서 본다면 문화의 개념은 종교의 성격과는 다소 다르다.

금강경을 문화의 범주와 연계시키는 초점을 금강경의 무위와 무유정법의 상승법에 맞춘다면 현대문화예술의 지향점도 명료해 진다. 모든 유위세계의 근원은 무위다. 유위의 예술이 그 근원인 무위를 발견하고 본질에 접근해 감으로써 그 의미를 근원적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창작자의 입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예술의 향수를 창달해 가는 대중이 고양 될 때 가능한 것이다.

굳어진 가식의 자아가 사라지고 일체중생이 멸도된 무아의 참나가 밝게 빛나는 여래의 여여한 세계, 다함없는 시간과 공간속에 빛살로 다녀가는 생명의 본모습을 보게 하는 금강경은 문화에 다함없는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다.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불교승가교육원 제2기 교육생 大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한국불교 승가교육원은 한국불교전통을 자랑하는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보존회 분원으로서 불제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삭발염의한자나 승려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재반의식 및 수행법등을 보수, 교육, 하고자 범 종단을 초월한 한국불교 최초의 종합불교예술 승가교육원입니다.
최고의 교수진 구성으로 알찬 승가 재반 의식교육과 승려로서 갖추어야할 자질을 함양코자 본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교육내용

구 분	강의내용	요일	기간	시간	모집인원
기초학과 12주	• 승가기본예절 • 조석예경편(사참), 불공편, 요령목탁법 • 불공편 • 관음시식 • 천수경강의 • 반야심경강의 • 발우공양작법	목	3개월	2시~5시	00명
수계 및 수료	• 사미율의 • 부처님생애 • 초발심자경문 • 발우공양(실습) • 자비도량참법 • 수계 및 수료식(수계증 및 수료증 수여)	2박 3일			
범음범패반	• 예경편(사참), 각단불공편, 권공편, 영반시식편, 점안편, 대령, 관욕편, 배송편, 범패기능연마, 사물타법, 수행경문	화	6개월	2시~5시	00명
작 법 무 반	• 바라작법무, 나비작법무	목	6개월	2시~5시	00명

■ 개원일시 : 불기 2557년 11월 7일 (목) 오후 2시부터
■ 회향기도 : 마지막 회향시 수계 및 수료법회 봉행
■ 준 비 물 : 반명함판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1통, 가사, 장삼, 요령, 목탁, 필기구
(가사 및 장삼 미소지자는 별도 합동 주문제작)
※ 기타 자세한 내용문의는 본원 교학처로 문의 바랍니다.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한국불교 승가교육원
■ 접수연락처(교학처) : 051)327-5096 / 010-2314-1279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영남불교예술대학 한국불교승가교육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0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10월 중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몸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많다.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다만 엷은 가죽으로 그 위를 덮었을 뿐이니라. 너희는 꼭 알아야 한다. 그 몸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실로 잠시동안 즐거움이 있을 뿐,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비록 몸에 병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하라

– 증일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최 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교직경력 17년 스님 직강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금강송 분양
12년생 금강송 (높이 3 ~ 4m)
700 그루 보유
(10그루 단위 출하)
일반조경용, 사찰용,
전원주택용 등
문의 010 - 2573 - 2032

범음범패 실전위주 학인모집
점안의식,천도49제,구병시식,
산신,수륙대제,안택,
산사음악회 등,천수,사다라니
사물 송주 북,바라,
나비작법,회심곡 등,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사찰불공 접수 받습니다.
010-8829-4578 성불사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길상수련 명상
지역당 모집 안내
자격 : 불교인 00명,
50세이상 여성
장소 : 청룡사 02)522-0125
전철2호선 방배역 2번출구
면접날짜 : 양력 10월 20일(일)
오후1~6시까지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010-8677-2861

기도, 수행 함께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기 안산, 포교원)
010-9036-2131

최면 전생 빙의 특강
• 최면 우울증 심리치유 빙의치유
• 빙의, 몸안의 병 찾는법 (비법:6회완성)
• 수강즉시 상담가능 (실기위주 속성)
• 최면 배웠으나 활용이 안되시는 분
• 빙의를 확인하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055)221-5182

천상을 여는 지장 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 신병
천병 우울증 파킨슨
신장 고혈압 당뇨 몸이 붓고
병명 없이 아픈 분
스님 법사 문의환영
010-2418-6222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향기도의 비밀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불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참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전통 자연치유 비법으로 고질적인 악성 피부질환 해결합니다
010-3028-6579

지리산 깊은 암자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계실 분
(40~60세까지)
010-3267-5959

공양주 구함
(충북)
043)532-2072
010-5213-744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구 사명산 상운사)
010-3764-366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논산)
041)741-9800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에스24 등)

미륵존불 조성불사를 도와 주십시오
월하스님 글씨 병풍포함 3점. 서경보스님 글씨 병풍포함 4점. 일타스님 글씨 2점. 석주스님 글씨 1점. 수안스님 그림 3점. 석정스님 달마 병풍 1점. 경봉스님 글씨 1점. 청광선생 달마, 독수리 병풍 2점. 문화재 인도선생 달마 1점. 천경자 그림 1점. 중광스님 인불상 1점 위의 작품 21점을 미륵존불 조성불사에 큰 인연으로 도와주시고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그림과 글씨도 마음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경북 054)853-3855
시주보시금 : 국민은행 622-24-0064.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전세구함
신도가 어느정도 있는
도심사찰 한만기
살았으면 합니다
지역,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010-4668-1284

신심깊고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실 종무실장 모십니다
(운전, 컴퓨터 가능 40대)
대구 조계종 사찰
010-3500-6972

법당 화주보살 모십니다
– 불심 신심이 돈독한 일천불 권선하실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 불심으로 귀의 할 출가 여자 행자 모집합니다
(부산 금정구)
010-6390-189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40~50대)
051)266-0330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천은사 보리수 나무
나무 굵기 50 ~ 60cm, 나무크기 5 ~ 6m
꽃피고 열매 맺음. 보리수 열매 둥글게 맺는 나무.
보리수 염주 만들 수 있습니다. 10년 내외로 키웠습니다.
총 14그루, 그루당 400만원
010-2280-4800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공양주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1)558-883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TEL 031)466-3356 H·P 011-269-3356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 게재일 : 접수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몸집은
불어나지만 지혜는 불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식이 많고 진리의
가르침을 잘 지켜 지혜로우며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 장로게경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의정부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70

- 위치 : 서울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3개
- 대지 : 120
- 가액 : 10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신 도 시 사 찰 안 내

♣ 아파트 8,000세대 신도시
총 1200평 (대지 700평, 야임 500평)
목조 대웅전 22평 목조 삼선각 6평
요사채 슬라브 2층(방 6칸)
※ 백화점, 법원 200M 거리내, 주차장 200평
총 양도가 8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 강원도 토굴 다량확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 사찰안내: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부평시장
- 약 100평, 방4개, 식당 큼
- 삼존불 각탱화, 연등 400개
에어컨 대형 2대
- 화장실 두개, 시설비 3천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총 4천만원 월 80만원
- 유동인구 많음 시절 최상급
-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8754-676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신녕면
- 갓바위 뒷편
- 절터 3000평 • 건물 60평 1동
- 화장실2칸 1동, 창고 1동
- 대형차 진입가능
- 대지 조성완료
- 스님이 말한 소꾸리터
- 가액: 6억

010-6253-310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서구 평리동
(대평리시장 인근)
- 3층건물 중 2층, 40평
- 삼존불, 후불탱화
- 시설은 최상급
- 시설비 2천 5백만원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

010-8339-552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포교원안내

- 위치 : 거제시 최요지 등산로 입구
- 별장같은 아늑한 단독주택
- 약 40평, 1층 법당, 방2, 공양간
- 2층 방 1
- 전세 8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협의 주차 30대

010-6393-53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
- 총 770평
-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2평/ 다용도용 30평, 불사중
- 요사채 30평 (추가 10평)
- 연못 조성 예정지 및 주차장 , 텃밭
- 가액: 2억 3천만원 (대출금 있음)
양도조건 절충가능

010-2353-993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남구
청담동(7호선 5분거리)
- 2층건물에 2층.
삼존불, 신중탱화
- 약 60평
- 가액: 시설비 2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130만원

016-9433-0684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춘산면
- 평수 : 약 300평
- 건물 : 산신각, 대웅전, 요사채, 방4
- 가액: 전화상담
- 산세수려하고 공기 맑은 아담한 암자
- 주지스님 건강상 급 안내
- 기도정진이나 역학보실분 적합

010-4092-9936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중 2층
- 약 60평
- 시설 특 A급
(넓은 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2700만원

010-5667-057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영천
- 임법당
- 가액 6백만원
- 시설완벽

010-7170-213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1가 21번지(대성학원앞)
- 로터리 위치
- 4층건물 3층 50평
- 보증금 1천만원
- 시설비 1천만원(시설일체)
- 월세 50만원

010-8538-6967
051)231-301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시장 입구)
- 6층 건물 6층 85평(옥상 사용)
- 큰법당, 공양실 친견실 방 3개
- 시설A급, 주차장완비
- 보증금 3000만원 , 월 100만원
시설비(답사 후 절충)

010-6575-171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 3층 건물 85평
- 평수 : 약 300평
- 가액: 6500만원 상담절충

010-8902-7618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내맥
바다와도 10분거리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안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

010-2008-03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 4층 건물에 2층
- 법당, 방2개, 공양간
(약 45평) 시설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9870-749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일산
3층건물 중 2~3층
전부 사용 (80평)
- 보증금 없음, 월세 70만원
- 시설비 800만원
- 일산 인구밀집지역

010-2899-147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사 찰 안 내

물좋고 공기좋은
경북 왜관 사찰

- 경북 칠곡군. 과학대학근방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부지 약 2천 5백평
- 대출 1억 6천포함. 1억인수가능
- 총포함 2억 6천만원

010-7246-0100

암 자 터 안 내

- 위치 : 밀양 IC인근
- 산림속에 위치
- 암자 적임지
- 주택허가필 , 5백평
- 평당 20만원

011-9323-86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서북구 좋은위치
- 보증금1천만원/월80만원
- 시설비는 무료보시함
- 5층중3층 약200㎡(65)
- 중심가이며 시설 잘된 포교원)

010-7347-1010(사찰전문)
010-9058-6163(주지스님)

청 평 한 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3, 욕실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포교원안내

- 위치 광주 운암동(위치최고, 주차편리)
- 3층건물 중 2층 32평
- 법당.삼존불.후불 칠성.신중탱화.불단 원목 연등.영가등 인등전기LED.전기공사완벽. 인버터냉난방기2대 방3개.
- 주지실.접견실.스님방.공양간 샤워실.화장실 3개월전새로신설
- 즉시법회가능 보증금 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2500만원 꼭하실분만 전화요망

062)513-0391

지리산토굴안내

- 위치: 구례 지리산 온천 부근 토굴
- 산속 475평 산수유나무사이에 20평 현대식 건물
- 화엄사TG에서 10분거리, 구례읍 15분, 남원 15분
- 마을에서 500미터거리, 아주조용
- 토지 안 마르지 않는 샘 2곳
- 양도가액 : 1억 5천만원

010-7242-0993

사 찰 안 내

- 위치: 화성시 발안 신도시
- 종목 : 사찰 (건물 3동임)
- 대지 230평 이상
- 건평 : 요사채 1층 30평, 2층 법당 28평
- 별채 신축건물 25평
- 식당겸용 방2칸 15평 이상
- 심야보일러 뒤 야산 전망좋음
- 가액: 6억 6천만원

010-3058-5660

포교원안내

- 서울 7호선 면목전철역 6분거리
- 6층건물 중 6층
- 약 80평, 옥상사용가
- 법당, 삼존불, 신중 삼성각, 영가단, 별도
- 방3, 화장실2
- 보증금 시설비 합 6천만원 월 155만원
- 절충가능 법회중, 경치좋음
- 인연되는 스님께 좋은 조건으로 양도함

010-8459-147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 2층, 삼존불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직접 결정
- 모든 준비 완벽 (법회 즉시 가능)
- 중국이민관계로 급 안내

031)756-2033
010-5488-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양남 효동리
- 대지 임야 2500평,법당 23평
- 요사채 및 지장전 60평 , 요사채 2, 23평
- 산신각, 석가모니, 부처님
- 가액: 13억 5천만원
- 특징: 역사 깊고 아담하고 예쁜 선녀폭포가 자리잡고 있음(폭포3개)
- 기도만 하면 성불함, 계곡을 끼고 있음

054-776-0829
010-4241-4009

암 자 안 내

- 최고의 기도도량
- 충북 괴산
- 가액: 5천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 주세요

010-5755-0853

사찰(급)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31번지
- 건평23평.대지:100평외 과수원밭1.500평 (6년생사과나무250주있음)
- 예쁘고 아담하게 지어놓은황토집이며 법당.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 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꼭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면적 : 9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5천

- 위치 : 경남
- 면적 : 3000평
- 전각 : 6동
- 요사 : 120평
- 가액 : 33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포교원사찰안내

- 위치 : 청주 중심권
- 3층 건물 중 3층 평수 약 100평
- 법당 60평, 큰방 3개, 작은방2개, 거실, 주방, 욕실3개
- 삼존불, 후불, 신중 300등창고2, 차고
- 최시설, 집기 전세 5000만원, 옥상방수
- 최고시설집기 인연있는분께 싸게드림

010-5883-2255상담바람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 본사 소임관계로 급안내
- 평수 약 9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상담
- 방2, 종무소1, 서재1, 공양간1
- 즉시 법회 가능

010-8606-791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고창
- 종교용지 140평, 대지 550평 기타 2766평
- 법당 20평 1동 본관, 산신각, 요사채 등
- 가액: 5억 5천만원

010-8933-993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5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용호동
- 시장통 사거리 ,위치 좋음 1층
- 법당, 삼존불, 산신, 신중, 후불탱화 다 맞춤
- 방1, 다락2개, 주방, 화장실 겸 샤워실
- 약 20평. 주차가능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500 만원, 시설완벽, 답사후 절충가능

010-4747-8796

포교원안내

- 위치 : 구미시 오태동
- 3층 건물 중 3층. 옥상 사용
- 건평 약 36평, 법당 시설 완벽
- 방3, 화장실2, 주방
- 생활 아주 편함. 주차 편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 7백 (약간조정가능)

017-217-191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영양
- 대지+전 : 1100평
- 목조 인법당 100평 (단층)
- 산신각 목조 3평 (단층)
- 비구니 기도도량
- 가액: 3억 5천만원

010-9351-4449

대작불사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거창
- 산세 수려하고 600년된 소나무 경관이 좋은곳,천년 고찰자리로도 손색이 없음
- 부지 4400평, 종교부지 1000평,
- 산신각 목조 9평
- 법당 30평, 요사 23평 중 불 때는 방 5평
- 양도가액: 3억 8천만원

010-8484-391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시장 입구)
- 평수 163평. 삼존불 모심
- 법당 앞에 7층 석탑
관음석상 2M
- 즉시 입주 가능 산림집기일체 양도
- 가액: 6500만원 상담절충

010-8902-7618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최요지
- 대지 100평, 건물 150평
- 사찰. 포교원, 전세물건, 대량
- 보유 전화 부탁드립니다
- 가액: 5억 인수

010-3808-44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 대지 190평
- 법당 50평, 요사채, 공양간 85평
- 주차가능
- 도심속에서 조용하고 포교에 불편함이 없는곳
- 가액: 8억

010-5346-413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35평)
- 교통 편리, 주차시설 양호
- 5층 옥상 단독사용
- 보증금 시설비
2000만원에 월 30만원

010-9351-444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영양
- 대지+전 : 3100평
- 대웅전 : 목조단청 47평
- 삼성각 : 목조단청 10평
- 과목 : 2000주
- 가액: 11억
- 전국에서 최고의 명당

010-9351-4449

도심속의 작은암자

- 위치 : 부산시내(북구) 주차용이
- 1층 와가 방2칸 약 26~30평정도
- 법당 : 삼존불, 신중, 영가단.
산신용왕 별도
- 국유지(철도부지) : 사용료 내고 있음
- 6천 8백만원(조절가)

011-575-9707

자비심 일깨우기

초걈 트룽파 (승려 · 티베트)

〈6〉 명상[禪定] 바라밀

자아극복 → 자아부재 → "당신은 자비로워진다"

명상 바라밀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이미 지혜, 즉 프라즈나(prajna)에 대한 열병을 앓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당신은 자각과 알아차림의 느낌을 엄청나게 계발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알아차림과 자각 같은 명상 수행이 야생동물의 치명적 이빨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준다고 말해왔다. 여기서 야생동물은 우리가 경험하는 신경증, 즉 번뇌(klesha)와 연관된다. 명상 바라밀에 속하는 알아차림과 자각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공격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단도 지닐 수 없으며, 지각 있는 존재들의 해방을 위해 일할 수도 없게 된다. 명상이라는 이 특별한 개념은 로종 수행의 다음 부분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모든 법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

여기서 말하는 법은 '있는 그대로' 라는 뜻의 철학 용어인 '진리' 와는 무관하다. 이 경우 법은 그저 '가르침' 이란 의미만 지닌다. 우리는 모든 가르침들이 기본적으로 자아를 굴복시키거나 떨쳐버리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자아를 굴복시키라는 가르침이 우리 내면을 지배하는 정도에 비례해 바로 그만큼의 실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법은 이 점과 연관돼 있다. 그 외의 다른 법이란 없으며, 특히 붓다의 가르침에서는 그 한 가지가 전부다.

이 특별한 여행에 들어선 수행자는 저울 위에 올라가 자신이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는지 측정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정의의 저울과도 같다. 자아가 아주 무겁다면 당신은 내려갈 것이고, 자아가 가볍다면 당신은 올라갈 것이다. 이처럼 자아 팽창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포기하고 깨달음이라는 비개인적 목적을 취하는 능력은 자의식적인 정도, 또는 가슴이 열린 정도에 의존해 결정된다.

소승의 가르침이건 대승의 가르침이건 간에 그들은 모두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 그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단순히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목적이란 있을 수 없다. 당신이 어떤 경전을 읽던, 어떤 주석서를 읽던 간에 그 가르침들은 모두 당신 존재와 연결돼야 하고 자아를 길들이는 방법들로서 이해돼야 한다. 이것이 유신론과 무신론의 주된 차이점들 가운데 하나이다. 유신론적 종교들은 어떤 개인적 실체를 설정한 뒤 그 정체성에서 빠져나와 그들 특유의 보디사트바적 행위들을 하도록 권고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무신론적인 불교 전통에서는 자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가르침을 펴기 때문에 훨씬 광대한 범위에 걸쳐 보디사트바적 행위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

자아를 길들이는 소승불교의 방식은 사마타 수행, 즉 알아차림의 적용을 통해 마음의 방황과 너저분함을 극복하는 것이다. 사마타 수행은 수많은 잠재의식적 잡담과 산만한 생각들을 공급함으로서 스스로를 유지시키는 자아의 근본 메커니즘을 역으로 헤쳐나아간다. 나아가 위빠사나 수행, 즉 자각은 우리가 자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을 전체적으로 자각해 그것을 기본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는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줄여 주고, 주변 세상과 더 깊이 접촉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나' 와 '나의 것' 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상들도 줄어들게 된다.

대승의 경우, 우리가 보리심(bodhichitta) 수행을 통해 보디사트바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따뜻함과 능란함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붙잡고 매달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매순간 베풀 수 있다. 이런 자비의 기반이 되는 것은 영역 없음, 또는 자아의 완전한 부재상태이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당신은 자비로워진다. 그러면 더 많은 온정과 베풀 수 있는 가능성, 관대함 등도 함께 일어난다. "모든 법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한다."는 말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모든 법은 하나이고, 모든 가르침도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자비이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애정 어린 태도를 취하려면, 당신은 무엇보다도 아무런 기반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과 욕정, 또는 오만함으로 사람들을 끌어 들이려는 병적 자기중심주의자가 된다. 자비는 공(空), 즉 바탕 없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당신에게는 고수할 것이 없고, 노력하는 주체도 없으며, 계획도, 개인적 이득도, 숨은 동기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이른바 순수한 일이 된다. 이처럼 공과 자비는 함께 작용한다. 그것은 마치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것과도 같다. 먼저 당신은 해변과 바다와 하늘 등 그 모든 것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고, 또한 당신을 향해 밀려드는 햇빛과 열기와 바다를 경험하기도 한다.

소승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아는 머리를 자르고 면도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대승의 과정에 이르면 자아의 사지가 잘려나가 팔다리 없이 몸통만 남게 된다. 우리는 심지어 자아의 몸통마저 가르기 시작한다. 절대적 보리심을 계발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의 심장을 끄집어내면 자아에게는 어떤 존재성도 남지 않는다. 그런 뒤 우리는 잘려나간 팔, 다리, 머리, 심장 등의 장기 무더기와 쏟아져 나온 피를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보디사트바의 접근법을 적용해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절대 내다버리지 않는다.

자아의 찌꺼기들로 세상을 오염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조사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아의 잔재들을 법의 길로 만든다. 그러므로 당신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을 수행상의 진보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신의 사지와 몸통, 심장을 어느 정도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 가늠해보면 되는 것이다. 이 주제가 카담파 스승들의 또 다른 격언과 잘 조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격언은 다음과 같다. "자아를 얼마만큼 떨쳐냈는가 하는 것이 수행자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즉 자의식이 크면 무게가 많이 나가고, 자의식이 작으면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명상과 자각을 얼마만큼 계발했는지 평가하는 척도인 동시에 얼빠진 정신상태를 얼마만큼 극복했는지 평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자아 길들여 집착 없어지면
무엇을 하든 순수 · 空 · 자비

당신은 자신을 잘아는 유일한 사람
끊임없이 바라보는 '통찰 수행' 해야

두 명 중 주된 목격자의 위치 지키기

어떤 상황에서든 목격자는 두 명이 있다. 당신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자신을 보는 자신의 시각이 그것이다. 이들 중 주된 목격자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통찰이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무작정 좇아서는 안 되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 주제를 수행해야 한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과 함께 해온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조차 당신은 자신의 카르마라는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 당신은 누군가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고, 그 사람 아랫배에서 태어나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그 짐은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당신은 자신의 유년기가 가져다준 고통과 기쁨을 체험해 보았고, 사춘기의 고통과 기쁨을 겪어보았으며, 성인이 된 뒤의 고통과 기쁨도 직접 경험해 보았다. 이제 당신은 중년의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나이 듦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기쁨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단 일분도 떨어져 있어본 적이 없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최상의 심판관이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당신은 매순간 자신을 안다. 당신은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안다. 어떻게 이를 닦고, 머리를 빗으며, 샤워하는지를 안다. 또한 자기가 어떻게 옷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며, 어떻게 먹는지도 잘 안다. '나' 와 '있음' 은 이 모든 행위를 수행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당신 내면에는 말해지지 않은 무수한 사실들이 끊임없이 축적된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주된 목격자, 주된 심판관은 당신 자신이다. 그리고 로종 수행을 얼마나 잘 해나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결국 당신 몫이다.

이처럼 당신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자신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작업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믿는 것에 기반을 둔다. 자기를 믿는 태도는 아주 이기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만성을 잡아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축하하거나 칭찬한다 해도 그들이 당신의 전 존재를 알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자신 만의 판단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즉 자신의 표현을 점검해 보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행사한 계략을 들춰내야 하는 것이다. 이건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반대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취한 자의 영감이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인지 단순히 바라만 보아야 한다. 융 학파나 프로이트 학파의 방식에 따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보다는, 그저 관심만 기울이면서 그 관찰 대상의 가치를 평가해야한다.

마음을 항상 기쁘게 유지하기

이 주제의 요점은 기쁨에 찬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고난조차 좋게 여긴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고난도 좋다. 당신은 그 고난을 공유하고 자신에게로 가져옴으로써 수행을 확장시켜야 한다. 이처럼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난도 수행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사실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애초에 당신이 기분 좋은 느낌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길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각 있는 존재들은 자신의 존재로 이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은 최소한 그 실마리를 잡았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사람들은 이 같은 가르침과 수행을 절대 자발적으로 떠올리지 못한다. 그것은 실로 놀랍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해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기쁨의 느낌과 찬탄의 느낌은 이 같은 관점을 취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우울하다고 느낄 때나, 주변 환경이 기운을 제대로 북돋워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리고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피드백이 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다 이 같은 관점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이 기쁨이 자비심의 원천인 듯하다. 우리는 이 주제가 대승의 수행을 충실히 유지시키는 법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누군가가 서투른 짓을 저질러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하고 모든 일을 망쳐놨다고 화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대승의 수행을 하는 당신은 그런 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쾌활함에는 크나큰 대범성이 내포돼 있다. 그것은 사실 불성, 여래성에 근간을 둔 것이다.

심란할 때도 수행하면서 잘 훈련된 것

이 주제의 중심 의미는 평범하거나 비범한 사건들이 들이 닥칠 때 마다 자각에 대한 기억을 즉석에서 일으키라는 것이다.

통제력을 상실해 순간적으로 놀랄 때마다 당신은 실재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그 외관상의 두려움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포기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주제에는 당신이 이미 어느 정도 훈련 됐으므로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내포돼 있다. 기쁘거나 고통스런 상황이 들이닥친다 해도 당신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즉석에서 통렌과 보리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을 배웠으므로 극단적 쾌락과 고통, 우울 등에 결코 종속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상황과 마주칠 때 그 상황은 당신의 정서와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만, 바로 그 정서와 마음 상태의 동요 덕분에 그 상황은 갑작스럽게 알아차림과 자각의 일부로 변형된다. 이처럼 알아차림과 자각이 당신에게 찾아오므로 당신 쪽에서 먼저 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당신은 보호하고, 이해하고, 주의력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 모든 상태가 다 알아서 찾아온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 당신은 기본적인 알아차림과 자각을 계발하며 주의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주의력은 마음의 근본 상태로 변형될 수도 있다. 이것은 명상 바라밀과 연관된 문제다.

이 글은 '참글세상' 에서 펴낸 〈자비심 일깨우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연락처 : 010-6478-1569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유전사
• 주 지 : 법경 (박용찬)
• 주 소 : 경북 영주시 휴천1동 1504-3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대한불교통합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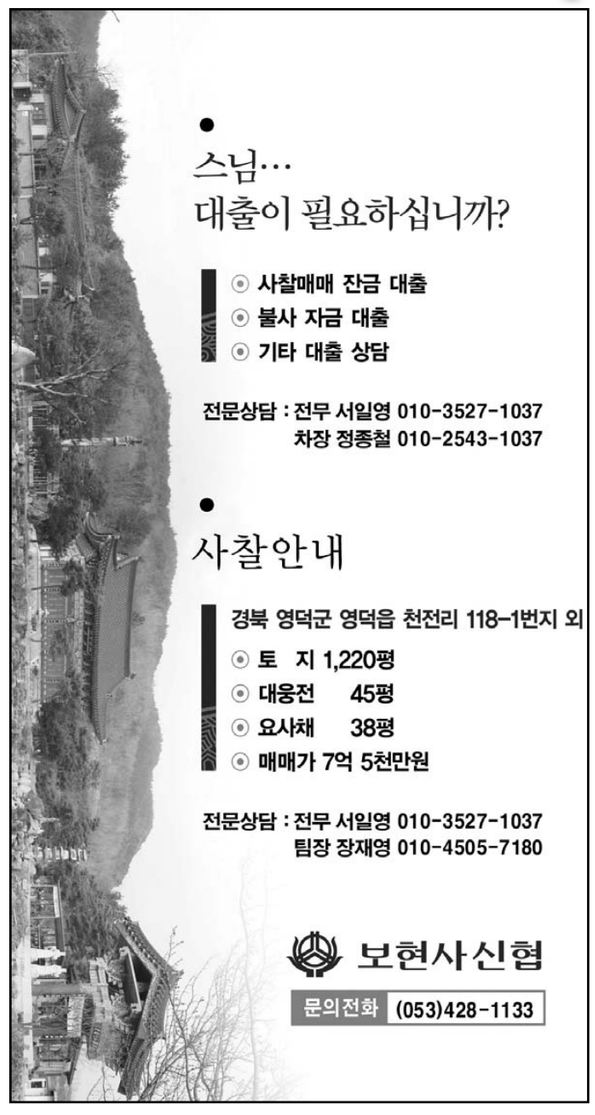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지장사
• 주 지 : 덕일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421-16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나라 준대도 안 받는 이가 도둑일리 없어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1)

일난왕이 세 생명을 구한 이야기

옛날 마천라국에 일난이라는 왕이 있었다. 세간의 무상함을 깨닫고서 영화와 즐거움을 버렸다. 그리고 법복 한 벌과 발우 하나, 그리고 사문의 계율을 받아 신림에 들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미 그는 도를 얻어 신통을 지니게 되었다. 가까운 숲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니 숲속에 깊은 구덩이가 보였다. 그 구덩이엔 사냥꾼과 까마귀 한 마리와 뱀 한 마리가 함께 빠져 있었다. 사냥꾼이 사슴을 쫓아 달리다가 그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까마귀 한 마리와 뱀 한 마리가 함께 떨어져서 몸을 온통 다친 것이다. 모두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일난왕이 그 모습을 모두 보고 한 걸음에 구덩이로 달려가 그들을 구했다. 목숨을 건진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들은 사문의 한량없는 어진 은혜를 받아 하늘의 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몸이 다할 때까지 은혜를 갚겠습니다."

일난왕이 말했다.

"나는 국왕으로 나라가 크고 백성도 많았으며 궁궐과 보물과 하녀 등이 여러 나라에서 으뜸이었으므로 원한다면 무엇이든 다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문이 되었다. 소원은 부처님 도를 얻어서 중생을 교화하여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어찌 너희들 셋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큰일이라 하겠느냐?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각자 옛날 살던 데로 돌아가서 너희 친족들을 만나 삼보에 귀의하고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라."

사냥꾼이 말했다.

"저는 세상에 여러 해 살면서 일찍이 착한 사람은 보았으나 부처님의 제자처럼 자기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고 중생을 구제하며 숨어서 이름을 알리지 않는 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저희 집에 오시어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 까마귀가 말했다.

"저의 이름은 발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뱀이 말했다.

"이름은 장입니다. 만약 사문께서 어려움에 닥치시거든 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달려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인사하고 각자 물러갔다.

어느 날 일난왕은 사냥꾼의 집으로 갔다. 사냥꾼은 멀리 | 서 드가 오는 것을 보고 아내에게 말했다.

"저기 상서롭지 못한 사람이 오고 있소. 그 사람이 오거든 음식을 마련하되 천천히 차리시오. 그는 한낮이 지나면 먹지 않소."

사냥꾼의 아내는 사문을 보고 불쾌한 안색을 드러내고 머뭇거리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헛된 말만을 지껄이다가 한낮을 지나 버렸다. 그러자 사문은 물러나와 산으로 돌아와서 까마귀를 불렀다. 까마귀는 사문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했다.

"어디서 오십니까?"

"사냥꾼의 집에서 오는 길이다."

"공양은 하셨습니까?"

"그가 공양을 차리는 중에 해가 이미 한낮을 지나쳐버려서 기다리지 않고 나왔네."



삽화 · 강병호

까마귀가 말했다.

"흉악한 물건이라 자비로도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어짊을 모르고 은혜를 저버리는 못된 사람입니다. 저는 공양할 만한 음식이 없으니 잠시 앉아 계십시오. 금방 이웃 나라에 다녀오겠습니다. 이웃나라에 간 까마귀는 궁에 들어가 왕비의 머리 장식 안에 꽂힌 명월주(明月珠)를 물고 나왔다. 그리고 까마귀는 물고 온 명월주를 사문에게 공양했다.

왕비의 명월주가 없어진 것을 알고 왕은 신하와 백성들에게 칙명을 내렸다.

"왕비의 명월주를 찾아오는 이에게는 금과 은을 각각 천 근 씩, 소와 말을 각각 천 마리씩 상으로 주겠지만, 훔친 자와 얻었으면서 궁에 바치지 않는 자는 그 종족을 모두 멸할 것이다.

사문이 월명주를 사냥꾼에게 주었더니, 사냥꾼은 사문을 포박하여 왕에게 데리고 갔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이 월명주를 얻었느냐?"

사문은 깊이 생각했다.

'만약 그 주인을 말하면 반드시 온 나라의 까마귀가 몰사하게 될 일이니, 이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닐 것이다.'

사문은 장형 천 대를 맞으면서도 왕을 원망하지 않고 자비로 서원했다.

'저를 부처가 되게 하여서 뭇 괴로움을 제도하게 하소서.'

왕은 사문을 감옥에 가두고 다음 날 그를 죽이려 했다.

사문은 그때 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뱀이 듣고 사문에게 달려갔다.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사문이 까닭을 말하자 뱀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곰곰히 생각하다 말했다.

"제가 궁중으로 들어가서 태자를 물어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뱀은 신약(神藥)을 사문에게 주면서 말했다.

"그것을 바르면 상처가 나을 것입니다."

뱀이 밤에 궁중으로 들어가 태자를 물자 태자는 즉사했고, 왕은 명을 내렸다.

"태자를 살릴 수 있는 이가 있으면, 나의 나라를 나누어 주리라."

그리고 왕은 감옥에 갇힌 사문 앞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때 사문이 말했다.

"내가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사문을 풀어주자 사문은 뱀이 준 신약을 태자에게 발라주었다. 그러자 죽었던 태자가 깨어났다. 왕은 기뻐하며 사문에게 나라를 나누어주려 했다. 그러나 사문은 왕의 호의를 거절했다. 그러자 왕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나라를 나누어 주어도 받지 않는 이가 도둑질을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사문에게 물었다.

"어디서 구슬을 얻으셨습니까?"

사문이 자세히 설명하자 왕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사문은 정진하여 마침내 천상에 태어났다. 그때의 사문은 후에 석가모니부처님이요, 까마귀는 사리불이며, 뱀은 바로 아난이요, 사냥꾼은 조달(백반왕의 맏아들)이 된다. (〈마일국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㊶



가을의 문턱에서

사돈의 선물

가을이다. 멀리서 날아온 편지 한 통에도 마음이 흔들린다. 영광에서 온 사돈의 편지였다. 정성어린 손편지와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가을을 담아 보낸 편지였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눈(眼)이나 몸으로 느끼는 계절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비로소 시작되는 계절이란 생각을 했다. 올 가을은 사돈의 편지 한통으로 시작됐다.

사돈으로 인연을 맺은 지 벌써 17년이다. 그 동안 한 번도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지내왔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돈이 워낙 경우가 밝은 분이다. 향을 담았던 종이에선 향냄새가 난다고 했던가. 밝고 곧은 사돈 덕에 덩달아 경우 밝게 산다. 그렇게 한쪽에서 좋은 말과 좋은 시선으로 서있으니 짧지 않은 세월을 길지 않게 살아올 수 있었다.

가을의 문턱에서 받은 사돈의 편지 한 통이 그토록 유난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거리에 뒹구는 가을 낙엽이 사람의 마음을 붙들듯이 사돈의 편지 한 통은 고마운 선물이다.

사돈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혼자 보기 아까워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늘 따라갈 수 없는 어른이라 생각했지만 새삼 느꼈다. 늘 마음이 나보다 한 발짝씩은 앞서 있는 사돈을 볼 때마다

코스모스 사진을 선물로 보낸 사돈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 모두 '공부'

'큰마음',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 공부하게 된다. 사진 속에서 코스모스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서울의 딸에게 사돈 얘기도 할 겸 전화를 했다. 그곳에도 이미 코스모스가 가 있었다. 사돈이 보내준 코스모스 사진 얘기를 했더니 딸아이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도 코스모스 피었습니다."

지난봄에는 우리내외가 사돈을 부산으로 초대해 해운대에서 휴가를 보냈는데, 그때 사돈은 특별한 나들이였다며 고마워했었다. 편지에 그때 이야기를 쓰셨다. 그리고 그 고마움에 대한 마음으로 코스모스 사진을 보낸다고 했다.

언제부터의 인연일까. 부처님법 속에 살다보면 인연법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 그것을 따져 무엇할까 싶지만 살고 또 살다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인연의 순서를 궁금해 하다보면 삶이 조금이라도 곧아진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것도 그런 연유인 것 같다. 좋은 인연 속에 살고 있어 마음이 훈훈하고 감사하다.

곧 가을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을을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곳곳의 가을을 뒤지고 다닐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왠지 입가에 미소가 지나갔다. 나는 이미 가을을 만났기 때문이다. 사진 속의 코스모스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김상희의 노래 '코스모스 꽃길'을 흥얼거렸다. 내년엔 꼭 한번 이 사진속의 꽃길을 사돈과 함께 거닐며 사진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할매들의 나들이

수원 봉녕사에서 열리는 '사찰음식 대향연'을 보러 도반들과 함께 갔다. 작년에 가려다 못 갔었는데, 나를 비롯해 도반들의 원이 깊어져 한 걸음에 달려왔다.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가는 길. 우리는 여고시절에 갔던 수학여행처럼 마냥 신이 났다. 각자가 준비해온 먹을거리를 내놓고 서로 나누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나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 거의가 사찰 참배 아니면 큰 스님들을 친견 공양하는 일로 바쁘기만 했었는데 이번엔 여유롭게 나설 수 있었다.

수원에 도착해 마중 나온 큰딸 근영이의 안내를 받으며 봉녕사로 갔다. 법당 참배 후 점심공양을 마치고 도량 이곳저곳을 돌았다. 얼마 전 입적하신 비구니계의 큰 어른 스님인 묘엄 스님 생각이 났다. 조금 늦게 도착해 '사찰음식 대향연'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른 여러 나라 스님들과 발우를 들고 경내를 도는 탁발 행사에 동참했다. 베트남, 중국,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일본, 네팔, 티베트, 부탄 등에서 오신 스님들이 동참했다.

이렇게 한 곳에서 많은 스님들을 향해 작은 시주금이지만 인연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에 감사했다.

봉녕사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로 갔다. 다음날은 음력 9월 초하루 법회가 있는 날이다. 우리는 조계사 법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마당은 신도들로 북적이고 법당에선 스님 예불소리가 들려왔다. 마침 도량에는 국화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국화들이 뿜어주는 향기가 사찰의 운치를 더했고 가을기운을 더했다.

우리 일행은 각자의 서원을 위해 불전에 앉아 예경하고 법문도 들었다. 부처님 도량은 그곳이 어디든 마음이 편안하고 경건해진다. 많은 불자들과 함께 앉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여행으로 인한 피로가 한 순간에 날아가는 듯 했다. 법회를 마치고 우리는 부산으로 향했다.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원과 서울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도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이 세상이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볼 수 있고, 이사람 저사람 만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모두 '공부'라고 생각하니,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세상은 너무나 고마운 것이었다.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꽃보다 할배'라는 TV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우리는 '꽃보다 할매'였다. 얼마 안 남은 생이지만 이토록 고마운 세상에 살고 있는 만큼 정성스럽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지우스님과 함께하는 범음의 큰 메아리!

● 지우스님 독경 CD 신명나는 회심곡



* 지우스님 약력 *
-.1967년 대구 안국사 보성스님을 은사로 출가득도
-.영산재 범음범패 바라밀 예술단장(범패:바라춤,법북,회심곡)
-.문화공보부 등록제411호 홍보위원
-.동국불교 전법대학교 졸업(1992년 1기생)
-.영남미술작가협회 영남총본부심사위원
-.한양미술작가협회(영남총본부 초대작가)
-.현 바라밀예술단 단장
-.2003년 3월해군 참모총장 대장 장정길 감사패
-.2006년 5월제8군단장 중장 이상위 감사패
-.2007년 2월 군수사령관 중장 양원모 감사패
-.2007년 10월 제1군사령관 대장 김태영 감사패
-.2013년 4월 경북직업훈련교 도소장 이경우 감사패

● 각종행사 사진






바라밀 예술단이 하는일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 예수재,
49재, 구병시식, 차량고사, 안택 등
각종 불교행사를 깊은 신심으로
지극정성 여법하게
봉행하여 드립니다.
〈작법무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 법당마다 가득자리를 채운 지우스님 작품들



행사문의 : 010-8877-7878, 010-3597-1515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이 세상에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지금 금속이나 전력이 곳곳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의 금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아니 쓰여지는 데가 없다 이 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아프면 의사가 되고 내가 명이 짧을 때는 칠성이 돼 주고, 물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모든 걸 맡겨 놓고 '너만이 잘 가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바로 용신이 돼 주고, 먼 길을 갈 때 바로 내면세계의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지신이 돼 준단 말입니다. 이거를 못 믿겠걸랑 한 번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때로는 아들이 되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사위가 되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수만 가지로 그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남의 뿌리에다가 내 뿌리가 돼 달라고, 내 나무를 성장하게 해 주고 푸르르게 살게 해 달라고 빌거나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 내가 직접 '네 몸을 형성시켰으니까 너만이 잘 끌고 갈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너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한 가정에 이익하고 그렇습니다.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한 말과 그 뜻을 아시죠? 그리고 또 유마힐 거사가 내 중생부터 나아야 내 병이 낫겠다고 한 말. 그거는 내면의 여러분 생명들이 다 나아야, 병이 들지 않고 파워를 일으키지 않아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하며 화목하다 이겁니다. 자식들도 그렇고, 나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욕하고 때리고 그러지 말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거론이 된다 하더라도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잘못된 것 잘된 것을 판단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가정도 화목해지고 사회도 화목해지고 모든 게 다 화목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문자1(남): 큰스님의 귀한 설법에 감사올립니다. 평소 큰스님의 설법에 항상 감복하고 깨달은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참선 혹은 관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의정을 갖고 있는데 소박한 마음으로 이 궁금증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관법을 잘 익히라고 하십니다. 일반 승가에서는 조주 선사의 '무' 자 화두나 '이 뭣고?'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경향에 비해서 스님께서는 다른 화두는 일체 주지 않으시고 오직 주인공만을 화두로 삼으라고 하심이 곧 생활 참선이요 관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는 가운데 주인공을 믿고 일체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잘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끔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보통 우리 일반 불자 가정에서는 한마음 공부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나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설법을 듣거나 혹은 불경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카세트로 설법을 듣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하루 일과를 매우 충실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바쁘다 보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 하고 그냥 뭐 대충 듣기도 하고, 마음자리에 관하지 않고 건성건성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과 이렇게 귀한 진리의 목소리를 틀어 놓고 듣지 않고 지나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아까 큰스님께서 설하시기를 생명 있는 모든 의식들이 다 주인공의 지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혹시 나는 의식이 그 설법에 마음을 두지 않았지만 다른 의식들이 그 설법만큼은 어떤 감응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소박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큰스님의 큰 가르침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것이고 저렇게 생각했다면 저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꼭 마음공부를 하셔야 된다. 각자 여러분의 뿌리를 진짜로 믿어라. 마음으로는 그 몸을 다스리면서 행동하셔야 되고 안으로는 믿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카세트를 놓고 듣는 것은 물리를 틔우고 지혜를 얻고 모든 그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듣고 누가 지금 살림을 하고 누가 다니고 있습니까? '누가 보고 누가 듣고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듣는 놈은 누구고 보는 놈은 누구고 하는 놈은 누구고, 아니다 하는 놈은 누구고 그렇다 하는 놈은 누구입니까? 바로 각자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화두 얘기 하셨는데, 옛날에는 화두를 주면 그냥 마음으로 직결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를 내다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화두를 줬다, 어느 스님이 화두를 주셨다 이런다면 벌써 그 스님한테서 화두를 받았다는 생각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진짜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겉으로 화두가 끊어질까 봐 애를 쓰면서 쩔쩔매고 오히려 더 겉돌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온 게 화두인데 남한테서 또 화두를 받아 가지고 한다면 그 화두가 겉돌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부는 아예 하기 틀렸죠.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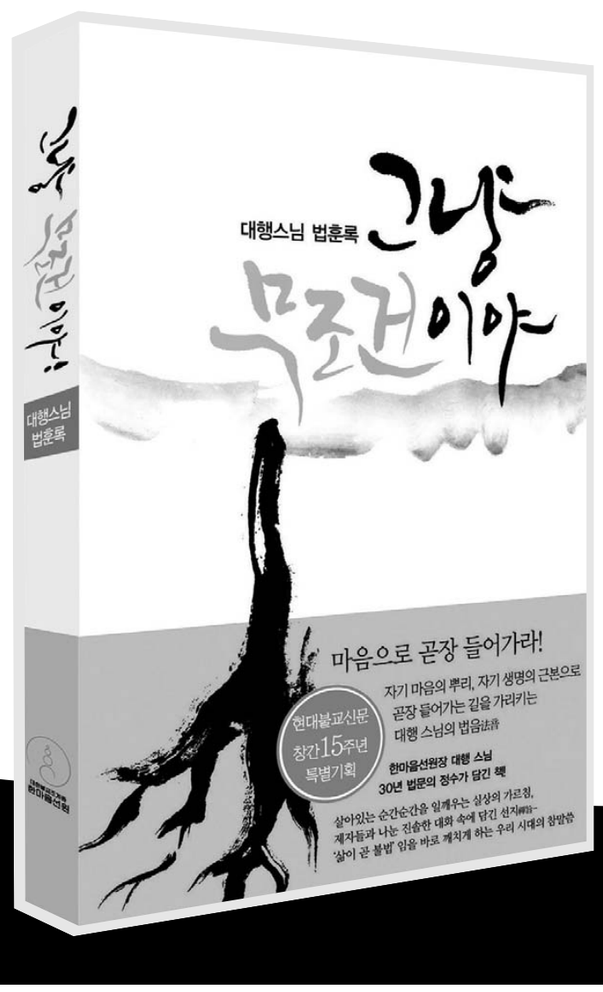
질문자2(남): 처음 한마음선원에 오게 되면 다른 사찰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법당부터가 불상 한 분만 모셔져 있고 장엄물이 적습니다. 또 관음재일 지장재일이니 하는 기도나 금강경 강의나 다른 경전 강의 하는 것을 못 봤고 오직 한마음 주인공을 관하라고만 하십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만약에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그거 참 골치 아프겠지요? 허허허…. 어머니가 둘 셋이라도 골치 아픈 일인데 아버지가 둘 셋이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바로 하나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만사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삼천대천세계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하나로 돌아가며 그 하나마저도 공했다 했습니다. 아까도 '내가 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 했죠? 그러니까 모두 내면으로도 나 아

☞ A3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우리는 항상 자기를 잘 이끌어 가는 채찍이 되어야

☞ A29면에서 계속

님이 없고 외부적으로도 나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보십시오.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데도 직원이 없으면 사장이 없을 것이고 사장이 없으면 직원이 없을 것입니다. 직원과 사장이 어떻게 둘입니까? 네? 이게 없어도 아니 되고 저게 없어도 아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어도 아니 되고 마음내는 게 없어도 아니 되고 육신이 없어도 아니 됩니다. 마음내는 게 없으면 목석이고 생명이 없으면 무효고, 육신이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또 손가락 하나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죠? 하하하….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가죠?

질문자2(남): 우리 한마음선원 법당에는….

큰스님: 네, 그래요. 참, 그렇군요. 하하하. 그래서 모두가 아주 쉽게 인식하고 가게 만들려면 아버지 하나면 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면 족하듯이 바로 부처님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수천수만 분이 깨쳤다 하더라도 평등공법 봉, 봉에 같이 모든 마음이 한마음이 돼서 주둔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로 부처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이 한마음으로 공생·공용·공체·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평등하다는 그 뜻으로 바로 여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 한 체 한 체가 여래의 집입니다. 바로 이 속에 있는 모든 자생중생들이 화하게 되면, 바로 제도가 되면 그 여래 집 안의 여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깨치면 그냥 여래지요, 여래의 집이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 따진다면 따로따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이같이 맞물려서 모두가 같이 돌아가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세상을 내다보세요. 하나나 혼자 살 수 있는 세계인가. 독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북하면 무시무종이라고 했을까요.

질문자2(남): 감사합니다.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7월 말에 봉정암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길인데다가 듣기로는 일곱 시간이 걸린다, 뭐 너무 힘들다, 깔딱 고개가 어떻다 이래서 '갈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가는 거 아니냐. 주인공이 가자. 근데 주인공 그 자리에서 축지법은 못 쓰더라도, 벌써 왔나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거다. 주인공이 해!' 이렇게 하고 백담사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면서 제 나름으로 의문이 생기길 '봉정암에 사리를 친견하고 무슨 복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는 아닐 거고 주인공이 가기는 가는데 나에게 무엇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내 나름으로 의문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6월인가 7월 셋째주 법회 때 스님께서 "'제발 직코스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주인공! 직코스로 들어가자. 오늘 직코스로 들어가서 내가 봉정암 사리탑에 가면 사리를 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 년 전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해! 주인공이 가르쳐 줘!' 이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계속 '직코스로 들어가자, 주인공!' 하면서 갔는데 정말로 아직 더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퉁이를 도니까 다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하, 이거였구나! 축지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었고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가져온 의문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주인공이 나한테 가르쳐 줄 것!'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법당에 들어가서 삼 배를 하고 탁 돌아서 나오는 순간에 마침 풀숲에서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래, 삼천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늘 이 부처님과 다름이 없고 모두 한마음 주인공이라면 너하고 나하고도 둘이 아닐 것이 아니냐, 주인공. 다람쥐 넌들 나하고 다르겠느냐. 한마음이라면 네 얼굴 한 번 보자.'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다람쥐가 가다가 탁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에 대고 '그래, 보여 줘. 정말로 한마음이라면 보여 줘. 네 얼굴 한 번 보자.' 이렇게 하니까 다람쥐가 얼굴을 탁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람쥐를 보면서 '아, 그래 고맙다. 가르쳐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다시 다람쥐가 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풀 하나라도 둘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구나 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환희심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한 1주일쯤 지난 뒤에 꿈을 꾸는데 꼭 이와 같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스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님, 제가 봉정암에 갔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한 이야기를 이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제 생각에 '정말 내 주인공에 관한 것이 직통으로 통했을까?' 하는 못 믿는 구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질문의 기회가 있어 스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경험했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믿는다 하면서도 혹시라도 못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큰스님: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수박을 심어서 먹고 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수박씨를 심어서 수박이 또 됐습니다. 근데 작년 수박하고 올 수박하고 다릅니까?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다르다는 거와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씨가 그 씨고 그 수박이 그 수박이니까요. 삼천 년 전 부처님의 마음이나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마음이나 둘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은 체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금방 이 자리에 앉아서 집에 갔다 오시라면 갔다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도 뭐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통장은 어디다 뒀고, 하하하…, 밥통은 어디 있고 똥통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그렇게 묘하게 지구 밖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물주머니에서 나와서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물주머니에서 살고 있다는 거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위로는 이 어항 속에서 벗어나고, 일체제불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게 항상 찰나찰나 서로가 통하고 이렇게 삶을 살면 우린 작년이 따로 없고 올이 따로 없고 내년이 따로 없습니다. 모습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고 화하고 또 변하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 가며 살고 있습니다. 별성도 또 자기 몸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도 역시 자꾸자꾸 바뀌 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미래의 오늘에 오는 그 모습은 짐승의 모습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의 몸으로 살다가 짐승의 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의 모습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과 마음을, 항상 자기를 잘 이끌어 가는 채찍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 여러분은 꼭 바음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 각자 여러분의 뿌리를 진짜로 믿으십시오.
> 마음으로는 그 몸을 다스리면서 행동하셔야 되고
> 안으로는 믿고 가셔야 합니다.

아까 그 다람쥐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삼천 년 전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려 다오.' 그랬으니 그 다람쥐가 보였다 하더라도 살았다는 걸로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살고 계시다는 거를 말입니다. 네? 그 다람쥐의 모습을 보지 말고 다람쥐가 움죽거리고 살았다는, 지금도 현적(顯跡)하게 부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질문자3(여): 스님, 감사합니다.

질문자4(남): 항상 우리 신도님들은 법문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실천 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는 깊은 감명 감동을 가지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듣고 갑니다. 그러나 돌아서 나가면 그 행이 이루어지질 않고 저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과 아울러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천이 되고 지속적으로 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셔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십시오.

큰스님: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해 주고 만날 그저 이 말 저 말 끌어다 대서 말을 한다고 그러실는지도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전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금 현재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해 드린 거지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부터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 년 전에 그러셨고 사대 성인들도 그러셨어요. "너부터 알라." 했습니다. 달마 대사도 그 소리 했다고 약사발을 받고 소크라테스도 약사발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막적으로 본다면 그분들만 그렇게 약사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육신이 나무라면 뿌리는 그 나무 밑에 있다. 그러니 나무 밑에 있는 뿌리한테 믿고 맡겨 놔라 이 겁니다. '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해 주시오' 하면 벌써 둘이 돼요. 그러니까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이런다면 금방 약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화합니다. 그래서 나투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관한다면 관세음이 돼 주고 신장이 돼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투어 주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자생중생이 화해서 그렇게 보살의 나툼으로 응신이 돼 주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깨달음도 있고 물리도 터지고 지혜도 생기고 또 생활하는 데도 이익하게 돌아가고,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서,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딴 뿌리에다 들이대고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다 들이대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거, 외부에서 다가오는 거, 모든 것을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낫게 할 수 있고 너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고….' 하고 맡기세요. 모두 거기다가 맡겨 놓으시고 '너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믿는다면 아주 그냥 밝아지지요.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알아야 모든 일체제불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골수도 알 수가 있고 일체중생들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님도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모두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에스쿳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17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9일, 10월 26일
※아시아나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양곤 / 바고 / 시리암(내셔널빌리지) – 5일 99만원
출발일 : 2013년 10월 16일, 10월 23일
※아시아나항공(직항) – 별도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인천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 추천)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10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2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29만원
• 대만	5일	12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불자 세상보기

동양 그룹, 불교의 경영관을 배워라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실버타임즈 편집국장

금융감독원이 9월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으로부터 동양(건재, 건설, 플랜트,한일합섬),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날 등 3개 기업의 회사채나 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를 사들인 투자자는 모두 4만 937명으로 이들의 투자액은 1조 2294억원에 달한다.

동양그룹은 지난 9월 30일 돌아오는 회사채 3천억원을 막지 못하고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날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을 했고, 10월 1일에는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들 5개사는 총34개 그룹 계열사 중 총자산의 94%와 총부채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이들 5개사가 법정관리되는 날에는 투자들은 자금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자료는 30일 신청한 3개회사에 한해 동양증권이 판 것인데, 여기에 시멘트와 네트웍스를 포함하면 투자자와 투자 금액도 훨씬 늘어 날 것이다.

동양그룹의 모태는 1957년 이양구씨가 설립한 동양시멘트다. 동양시멘트는 60-70년대 경제 발전 초기 기여도도 컸고 그 때는 10대 기업 반열에 들었다.

창업자 이양구씨는 딸 둘을 두었는데, 큰 딸 이혜경(동양그룹 부회장)씨의 남편이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고, 작은 딸 이화경(오리온 부회장)씨의 남편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다. 동양그룹과 오리온으로 기업이 분리된 것은 2001년. 동양그룹은 자산 7조 5천억, 부채 5조 8천억(6월말 현재)으로 부실의 원인은 2007년 이후 건설 경기의 침체에 있다고 한다.

이번 동양그룹의 사태를 놓고 볼 때, 위기의 근본은 세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기업주의 탐욕이다. 이 탐욕이 방만한 경영을 불렀다. 동양그룹은 2007이후 건설 경기가 장기 침체로 들어 가고 있는데도 구조 조정은 커녕 오히려 계열사를 늘려갔다. 2006년까지 6개였던 비 금융부문 계열사는 2007년 14개로, 2010년에는 18개로, 2011년에는 24개로 불어 났다(프레시안 10월 11일자). 또 그룹 부채비율이 583%에서 2011에서 2012사이 1232%까지 급증했다. 2013년 9월까지 이런 상태는 계속되면서 투자들을 유혹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부도 직전의 회사가 회사채, 기업어음을 계열 증권사를 통하여 수많은 개인들에게 떠넘겼다. 엄청난 도덕적 해이다.

다음은 신용평가사의 기업주 눈치 보기 평가다. 동양 부실 CP쇼크의 배후에 부실한 신용평가 기능이 한몫 했다. 자본 잠식 상태인 동양 계열사들에게 채무상환이 인정되는 B등급 을 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동양에 투자 했다 오늘 날 이렇게 부도를 맞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 같은 정부 감독 기관의 감독 부실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사건이 터진 뒤에야 계열사 동양증원을 무기한 특별 감사 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깐 고치는 꼴이다. 정말로 뒷북치는 감사가 아닌가. 수 많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금감원 원장은 차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 신청 하는 것을 보고 "회장님, 고객 돈 전부 상환해 주세요" 란 유서를 써 놓고 동양증권 제주 지점 여직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업주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실망과 자기를 믿고 CP를 사준 수 많은 고객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그녀는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세상을 버린 것이다. 이 순수한 한 여인의 한(恨)대로 기업주는 참회하고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불교의 기업가 정신은 대승의 이타자리(利他自利) 이다. 곧 살리면서 사는 길이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교세라 그룹 이나모리 가쯔오(稻盛和夫, 80)회장은 "부처님의 말씀에 만족을 알라고 하셨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욕망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양그룹의 사태를 보며 한국 자본주의가 가야 할 길은 살리며 사는 대승의 길이다.

사부대중 칼럼

부처님 일대기 영화가 보고 싶다



성민선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국제포교사 · 수필가

제18회 부산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부탄 출신 켄체 노르부 감독의 〈바라: 축복〉이 선정되어 화제가 됐었다. 현대 티베트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의 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는 종사르 켄체 린포체가 바로 그 감독이다.

켄체 린포체는 조부가 티베트 불교의 큰 스승으로 일찍이 부탄으로 망명하여 부탄 공주와 결혼한 집안에서 1961년 태어났다. 일곱 살 때 티베트의 큰 스승인 잠양 켄체 왕포 린포체의 환생자로 판명되었다 한다. 열두 살까지 시킴 왕국의 왕궁사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그 후 티베트 불교 모든 종파의 가르침을 섭렵했고 영국, 미국 등에서 동양학, 정치학, 영화 등을 두루 배웠다. 이탈리아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의 〈리틀 붓다〉(1993)에 자문역으로 함께 하기도 했다.

그는 출가도, 결혼도 하지 않았다. 어디에 억매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주로 북인도 비르 지방에 있는 종사르 사원의 여러 강원들에 머물며 스님들을 지도하고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만난다. 안거기간에는 부탄으로 가서 수행을 한다. 한편으로는 그가 직접 설립한 〈싯다르타 인텐트〉(Siddharta's Intent)와 〈백련자선재단〉(White Lotus Charitable Trust)을 통해 문화와 전통이 다른 곳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펴고, 고통 속에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켄체 린포체는 지난 8월 우리나라를 찾아 대중법회를 가진 바 있다. 나는 상도선원에서 그의 법문을 들었다. 법문에 앞서 그는 신도들이 절을 하려 하자, 하지 못하게 했다. 법문 서두에 먼저 자신이 출가한 승려가 아님을 밝히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실제수행이 아닌, 스승들에게서 배운 지적인 것이라며 하심(下心)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재미, 돈, 그리고 규율이 필요하지만 그 모두가 환영(幻影)이라는 것을 아는 불교의 지혜 역시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의 세 가지는 상식이지만, 네 번째는 지혜이다. 지혜가 없이 환영에 좌우되는 삶, 사회가 상식적으로 정의하고 요구하는 '성공', '쓸모있음'에 끄달려 사는 삶은 해탈과는 방향이 다르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며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사느라 바쁜 현대인들의 긴급한 과제는 '쓸모있음'을 '쓸모없음'으로 극복하라는 요지이다.

영화는 그에게는 부업이다. 십 년에 한 편 꼴로 이제까지 세 편을 만들었다. 〈더 컵〉(1991), 〈여행자들과 마술사들〉(2003), 그리고 〈바라: 축복〉(2013)이다. 부산영화제에서 선보인 〈바라:축복〉은 인도를 무대로 인도 배우와 인도 영화 특유의 관능적인 춤으로써 육체와 욕망 그리고 사랑이 인간을 신에 가깝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제작이다. 힌두 무희인 여주인공이 조각가인 하층 계급의 청년과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위해 결국 자신을 희생하고 현실 속에서 구도의 길로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불자들이 린포체의 영화를 반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의 꿈이 부처님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일대기 영화가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나, 그는 한 걸음씩 그 꿈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그가 만들 부처님 일대기 영화는 틀림없이 불자든 아니든 세계인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서사 영화가 되리라 믿는다. 네팔, 인도의 대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전하신 맨발의 부처님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 자신의 베스트셀러 책《우리 모두는 부처다》에 묘사한 부처와 중생의 모습을 어떻게 영상으로 옮길 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영화에 온통 관심이 간다. 그의 나이 이제 52세, 시간은 충분하다. 10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린다 하더라도.

문제는 돈이다. 린포체를 잘 아는 한국인 용수 스님에게서 들으니, 부처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려면 큰돈이 필요한데 린포체는 "영화로써 돈을 벌기를 원하지 않기에 상업적 투자를 받고 싶지 않으며, 누군가가 그냥 쓰라고 돈을 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모금은 폐가 되니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한다. 독지가가 나타나면 제일 좋겠지만, 한국 불자들도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社說

총무원장 당선자가 풀어야 할 화두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끝났다. 먼저 마지막까지 선거를 완주한 다섯 후보 스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선거 결과는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자승 스님이 50표차로 총무원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는 선거인단이 체재 안정을 통한 변화를 더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승 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개혁 종단 이후 임기를 모두 채운 첫 연임 총무원장이라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다. 불출마 선언과 주위의 반대 여론에도 특유의 정치력과 리더십으로 이를 정면 돌파했고, 자신의 종책을 종도들에게 어필하는데 성공해 당선에 이르렀다.

하지만 선거가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다. 유력 후보였던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 선거대책위원회의 물고 물리는 승적 의혹 폭로와 상호 비방은 세간의 정치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불교기자협회로 주최하기로 했던 후보자 간 토론회는 논의만 무성했을 뿐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의 골을 수습해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반대 여론 진영을 화합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자승 스님이 가진 숙제 중 하나다.

자승 스님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승가는 화합이 우선이다. 선거를 함께 한 후보를 비롯 모든 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새기고, 화합을 위해 만남의 자리를 다양하게 갖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백양사 승려 도박 사태와 최근 무분별한 내부고발로 인한 종단 청정성 회복 역시 자승 스님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

자승 스님이 당선 소감에서 밝혔듯이 종도들 역시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추진될 종단의 운영 사업에 지지와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살공화국' 오명 벗는데 불교 나서자

경제난과 사회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늘어나던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4160명으로 2011년보다 1746명(-11.0%) 감소했다고 한다. 하루에 38.8명꼴로 자살했지만 전년(43.6명)보다는 5명가량 줄어든 셈이다. 자살이 줄어든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긴급전화상담, 자살예방센터 등 인프라가 강화된 것도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은 여전하다. 이런 오명을 방치해선 안되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자살예방에 적극 팔을 걷어 부쳐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불교계 복지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불교상담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0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예방을 위해 불교적 대안을 공동모색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체결을 통해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지원과 교류 △협력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공유 △자살예방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공동관심사를 협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살예방 교육, 생명수호 캠페인, 자살위기 전문상담가 양성, 유가족 애도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세부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원은 불교자살예방지원센터 5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지정서 전달식도 가졌다. 불교는 종교적 차원에서 생명을 중시하는 등 자살예방 활동에 부합되는 점이 많다. 이런 장점을 십분 활용해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는데 불교가 앞장서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直指人心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직지》를 연기론적으로 풀어낸《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여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연기론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아주 쉽게《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저자의 별처럼 빛나는 통찰력과 혜안으로《직지》에 담긴 게송과 선문답에 대한 촌철살인의 단상(斷想)으로 이루어진 이 책이 가리키는 대로 걷다보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열릴 것이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민족사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 요코야마 코이츠(橫山紘一) 지음, 김명우 옮김
232쪽 / 10,800원 / 4×6판
Tel. 02)732-2403~4 민족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Tel. 02)732-2403~4 민족사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 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 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 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샘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 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 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과 '장뇌삼'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이 있 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 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 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 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식물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 게 한다."

nature 415, 751-754(2002)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 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 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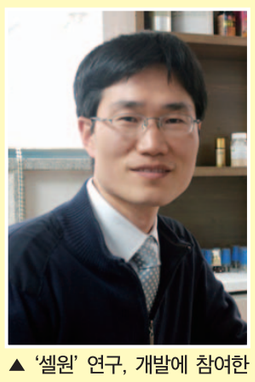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며 '셀원'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Green Certification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NET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9001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

노령화 사회-왜 노인 포교인가

노인포교는 한국 불교의 사회성 가늠 잣대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인구 구조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단어의 등장이 매우 빈번하다. 이미 2000년에 노인 인구가 7%를 넘기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에는 16%를 넘기며 고령사회로, 2050년에는 38%를 넘기는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20%가 넘는다.

노인문제는 이제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노인 자신은 물론 청장년층까지도 노후 생활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이는 특히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노병사와 같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종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불교는 이를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자원이 가장 풍부해 노인포교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다. 종교인구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노인층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동안 안이한 생각으로 노인포교를 등한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 틈을 타서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노인포교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대다수 복지관에 의존… 사찰은 봉은사 뿐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개신교, 천주교는 이미 노인대학 활성화 등 '실버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니 사활을 걸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본지 조사결과 신도교육기관인 불교대학은 많아도 노인을 주대상으로 활발하게 운영중인 노인대학은 강남 봉은사서 운영하는 연화불교대학 한 곳 뿐이다. 이외에도 부산 홍법사는 평생교육원을 개설했으며, 총지종도 경로대법회를 정기적으로 열고있다. (사)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에 소속된 132개 교회가 노인대학을 설립 운영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개신교측이 노인선교에 열성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우리나라 노인들 다수가 불자이기 때문이다. 50세 이상 종교인 중 개신교(18.5%)나 천주교(8.4%)에 비해 불교가 37.1%로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두드러진 노인 신도 강세를 추월하겠다는 속내다. 불교계는 분명 긴장해야 할 때다. 만일 개신교가 적극적인 노인 선교를 펼친다면 격차가 점차 줄어들게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런 실정인데도 우리 불교계는 현재 손을 놓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는 '노인포교 담당자' 조차도 배정돼 있지 않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교대학 수강생의 연령대가 높아 특화된 노인포교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포교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물론 자원봉사 공유, 포교사단 활동 등 간헐적인 노인 포교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포교 자체에 초점을 맞춘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종책은 이렇다할 게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일선 노인 포교 전문가는 "현재 노인 복지 포교는 거의 사찰서 위탁받은 일선 노인 복지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며 "사찰도 어린이와 노인들이 서로 손잡고 할 수 있는 법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어린이들에게는 효심을,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노인불교대학, 사교의 장 활용 가능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동배 교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8명(78.8%)이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마련(36.1%)이며, 경제적 여유를 위함(27.2%)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욕구 충족의 큰 대안으로 포교

고독사·외로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름다운 회향' 동행…진정한 동체대비
불자노인들 개종…노인 포교 빨간불
사찰노인법회·노인대학 개설 급선무

전문가들은 사찰내 노인불교대학 설립을 꼽는다. 노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고독과 외로움인데 사교 및 자아실현의 장으로 활용되면 이런 문제를 단박에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살아온 인생을 반추하며, 올바른 인생의 회향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대두된다. '아름다운 회향'을 불교가 동행해준다는 것은 바로 진정한 동체대비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교회의 노인대학 발전방안은 주목을 끈다. 합천제일교회는 △노인들 위한 교육과 후생복지 향상 △병든 노인 위해 가정 찾아가는 재가 호스피스 △노인들 위한 일터 마련 및 일감 제공 △종합복지시설(실버타운) 건립 △교회당 내 무료 영안실 설치 등 장묘문화 개발 등 구체적인 장기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외로움을 파고드는 이같은 전략으로 선교에서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불교계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사례다.

최근 5년간 노인대학을 운영해 온 강원도 홍천의 에덴 교회도 자체 조사결과 처음에는 노인들 대부분 불자로 개신교에 대한 배타성이 강했지만,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는 노인대학 운영 이후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 줄어드는 현상을 목격했다는 내용을 지역 신문에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직시하면 2013년 현재 우리 사찰들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60청춘, 70 장년' 이란 말처럼 노인들은 이제 자신들을 더 이상 노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의학과 생명공학의 발달과 각 가정의 짐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역량과 의지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찰이 노인복지와 포교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사찰이 노인들의 사회복귀 및 참여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삶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영남불교대학 우학스님(관음사 회주)도 "사찰이 노인들이 선호하는 염불이나 기도보다는 교리공부나 마음공부, 참선 등에 치중하는 것도 문제"라며 "노인들의 염불이나 절 등의 신행활동이 불교를 기복불교로 만들고 있다는 교계의 그릇된 인식이 노인들의 신행생활을 가로막는 큰 장애"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미타선원장 정산 스님은 "천주교나 개신교의 경우 공원묘지나 납골당 같은 노인들의 장례문제 해결을 통해 노인신자들의 신행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노래 배우기, 성지순례, 바리스타 양성하기 등 삶을 즐기고 구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에 나서는 것도 우리 불교가 벤치마킹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불교계도 노인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노인포교를 성공적으로 일구어 가는 곳도 있어 크게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덕원과 효림원 등 노인복지시설과 서울노인복지관 및 광진노인복지관 등 사찰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노인복지관들이다. 서예배우기, 영화제작하기, 노래와 춤배우기 등각종 노인프로그램을 개발해 호응도가 높다.

오복경 죽림노인요양원 원장은 "노인들은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감안해 사찰내에 '삶의 이야기방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불교인이든 아니든 마음 속의 힘든 고통을 들어주는 열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노인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서울노인복지센터서 개설한 난타반에서 난타를 배우며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복지관서 실버라디오방송을 하고있는 어르신들.



은평노인복지관의 '찬반공방' 행사 모습.



연극무대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연극반.



현대불교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 드립니다.

불법 외호의 원력을 다하는
참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교광장 불교발전의 길을 종도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사무국 02)723-9341 | 팩스 02)723-3303 | 이메일 bulgyo2013@hanmail.net

불교계, 복지관 운영에 역점…사찰 프로그램 '미약'

노인포교 현황은?

21세기 세계적 과제 중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다. 지구상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50년이면 20억 명으로 증가해 세계 인구의 21%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계에도 신도층에서 확연히 고령화가 진행중 이지만 이에 대한 대비는 미흡하다.

빠른 사회 고령화, 하지만 대비는…

세계는 이제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5월 21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 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22개 회원국의

고령화속도 OECD 최상위
교계, 포교사업에 노인분야 없어
일선사찰 노인 법회 전무
117개 불교대학 중 노인대학 1곳

2007~2009년 3개년의 평균 고령화 대응 지수 비교 결과 우리나라는 2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고령화 대응지수는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가능성 등 5개 영역의 각 10개 세부 기준에 가중치를 둬 합산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가 모범국가 1~3위에 올랐다. 일본은 21위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지만 역시 최하위권이었다.

이는 불교계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노년층을 전문적인 포교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미 사찰에서 진행하는 행사 참가자 대부분이 노년층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의 연령별 포교사업을 보아도 영유아 ·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 및 청년 등 불교가 이웃종교에 비해 열악한 분야에 한정돼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포교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선 각 사찰에서도 장년층 이상을 일반적인 포교 개념으로 대하고 있다.

노인 포교 방안으로 복지 투자 많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2011년 조사한 불교사회복지시설 현황 분포를 보면 전체 불교사회복지시설인 753개 중 노인복지 분야는 총 327건으로 43.4%에 달한다. 전체 불교사회복지시설 중 70.8%인 533개의 시설이 사찰의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관련자료를 살펴보면 각 종교별 복지시설 운영과 예산 추계에서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계는 각각 1조원이 넘는 운영예산을 사용했다.〈표1 참조〉

하지만 이러한 복지 후원이 포교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용권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포교원에서 종단 소속 사찰에서 사회복지에 예산을 쏟는 만큼 포교에 효과가 있는지 질의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사찰과 연계성이 유지되기에 간접 포교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노인 요양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불교계의 복지시설 운영수가 급격히 증가 했지만 불교신자 수가 비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표1〉 종교별 복지시설 운영과 예산 추계 (자료 :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구분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시설수	1,066억원	1,045억원	1,633억원	190억원
운영예산 추계	1조 1,480억원	1조 1,243억원	1조 7,603억원	2,048억원
국비보조금 추계	6,609억원	6,473억원	1조 135억원	1,179억원

불교계 복지시설 증가추세 (자료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2 통계)

연도별	1995	1999	2006	2009	2012
시설수	95	312	389	958	1065

조계종 복지시설 운영현황 (자료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2 통계)

계	지역	노인	아동	장애	청소년	영유아	여성가족	다문화	기타
958	67	385	71	87	47	229	11	27	20

〈표2〉 연령대별 불교인구 구성변화(1985~2005년) (단위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구분	불교			개신교			천주교		
	1985년	1995년	2005년	1985년	1995년	2005년	1985년	1995년	2005년
전연령	19.9	23.2	22.8	16.1	19.7	18.3	4.6	6.6	10.9
0~9세	9.5	11.3	13.2	14.1	19.3	19.9	3.8	5.6	9.7
10~19세	15.0	18.3	17.7	18.1	22.5	20.4	4.4	7.2	11.7
20~29세	18.6	19.4	19.3	17.3	19.7	17.9	4.9	5.8	11.2
30~39세	25.2	24.7	19.6	17.9	20.0	17.7	5.7	7.0	9.8
40~49세	30.3	31.5	26.6	14.9	20.0	17.7	4.9	8.0	11.3
50~59세	31.5	34.7	31.7	12.8	16.7	17.8	4.3	6.3	12.0
60~69세	30.4	34.5	34.1	13.0	16.0	16.6	4.5	6.2	10.8
70세 이상	28.0	30.5	31.1	12.4	17.5	18.2	4.4	6.8	11.5

일선 복지관의 상황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은 드러난다. 복지관의 경우 불교계가 수탁운영을 하더라도 법상 종교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조계사에서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임희 보살은 "조계사에서 수탁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불교를 믿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은 무종교인이라고 밝혔다. 이 보살은 노인복지센터를 통해 불교에 대해 보다 많이 알게 됐지만 신행활동을 할 의사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노인전문 프로그램 태부족

2013년 포교원이 파악하고 있는 불교대학의 수는 117개에 달한다. 117개 불교대학에 다니는 신도의 수는 8000여 명. 이들은 불교대학에 적을 두고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연령으로 구별하고 있는 곳은 봉은사 연화대학이 유일하다. 봉은사 연화대학의 경우 60세 이상의 조계종 신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에 연령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포교가 진행된다.

서울 모 사찰이 운영하는 불교대학에 다니는 장희수(74) 보살은 "강사님이 쉽게 진행하려 하지만 어렵다"며 "함께 온 이들과 수업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 만의 포교활동도 미흡하다. 60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수효사 효림원 시니어 봉사단원의 경우 10명 중 4명이 기존에 다니던 사찰에서 옮겨온 경우다.

이들은 "사찰에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등 신행활동 내용이 좋아 기존에 다니던 절에서 옮겨 왔다"고 밝혔다.

수효사 관계자는 "사찰에서는 노인들이 기도만 하게 되는 이유는 사찰 내 다양한 활동이 없거나, 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 법회 및 사찰 봉사단 구성 등을 통해 늘어나는 어르신들을 사찰 신도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 선호 종교는 불교

불교는 고령화 시대에 선호받는 종교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센서스에서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3대 종교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 변화를 보면 특징이 있다. 종합하면 청소년기에는 개신교, 장년기에는 천주교, 노년기에는 불교를 믿는 형국이다.

불교는 10대 이하 청소년 시절까지는 신자비율이 매우 낮아 개신교 신자비율보다 더 낮다. 그러나 20대 이후에는 신자수가 점차 증가하여, 5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 가량이 불교신자이다. 이런 흐름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변함이 없다. 20년 동안 50~60대 연령층의 불교신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복지투자액 3대종교 비슷
수탁운영 복지시설 종교활동 금지
나이들수록 불교 선호 현상
전법에 유리…포교전략 세워야

현재의 연령계층과 10년 전 연령계층을 비교하는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에 의하면 불교는 50대 이후 연령층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신자확보에 우월한 위치에 있다.〈표2 참조〉

이는 국민들의 인식과도 일치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11년 9월 26일부터 20일간 전국 16~69세 남녀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고령화 현상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 종교가 불교(32.5%)로 꼽혔다.(개신교 31.8%, 천주교 28.0% 순)

유승무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이 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중장년층 포교전략 강화와 함께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력개발프로그램 등 당야한 포교 프로그램을 사찰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에서 염주를 꿰고 있는 불자어르신의 모습.


수원 모 사찰에서 연등을 만들고 있는 불자들. 대부분이 노인들이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연수원장 혜도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민재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경덕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안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민재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소원 법수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인천교구종무원장 지운
거제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경남서부교구부원장 원효 대원종법사단장 청량 법왕
창녕지회장 연아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신우연
부산법사단장 수안 신풍사 신도회장 이정민(청암)

중앙종회의장 법조
중앙종회의원 민재 대광 연아 혜정 도언 경덕 범수
혜인 혜도 대오 도하 혜성 대안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 숙식제공,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원적사) / 한국 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9 / 사무장 010-8548-86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55)346-29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총무원장 본자

종정사서실장 도현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정암 자문위원장 대현
종회의장 승법 종회부의장 홍운 법신 종회의원 도암
감사원장 법안 교육원장 혜초 호법원장 원광 수선원장 서연
의전원장 동선 기획원장 법장 비구니원장 효상 비구니부원장 설운
호법부원장 광월 문화부원장 설운
호남교구원장 도암 경북교구원장 제법 경남울산교구원장 갑태
총무부장 불현 교무부장 도문 재무부장 혜진 문화사회부장 현공
포교부장 각초 규정부장 도영

종도모집 안내
종도 한분한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본 종단에
법연으로 함께 하실 종도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총무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00-1번지 / 전화 031)323-1325

어르신 위한 프로그램 진행하는 불교계 복지관

시설명	주요 프로그램	전화번호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법률 · 가족상담 등 각종상담, 노인문화프로그램, 노인일자리	(02)992-6789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한글카네이션학교, 명리학 · 풍수 · 서예 등 교양강좌	(02)466-6242
대치노인복지센터	힐링명상동아리, 대치시니어탤런트 재능기부사업	(02)564-0108
방배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사업	(02)581-7992
불광노인복지센터	여가생활프로그램, 물리치료실, 이미용 복리후생	(02)385-3222
서울노인복지센터	미디어교육, 영화학교,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02)739-9501
석관실버복지센터	1 · 3세대 통합프로그램, 취미 · 학습 프로그램	(02)957-9923
송파노인복지센터	결식노인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02)2202-3677
역촌노인복지센터	어르신집단상담, 사회교육사업	(02)385-9500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사회교육, 정서함양, 정보화 교육 실시, 세계화 어학당	(02)385-1351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노인예술교육과정 감성문화대학, 인문학아카데미	(02)742-9500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남양주시니어대학, 노인일자리사업	(031)573-6598
서호노인복지관	치매우울심리상담, 시니어스쿨	(031)291-0911
송산노인복지관	평생교육사업, 1 · 3세대 나눔밴드반, 가족관계프로그램	(031)852-2595
신륵노인복지센터	주간야간보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031)885-5275
안양노인종합복지관	노인여가학교 해울프로그램, 노인일자리 사업	(031)455-0551
원미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노인자살예방, 경로당 활성화	(032)667-0261
연천군노인복지관	노인자살예발, 일자리창출, 노인자원봉사	(031)834-6080
용인시노인복지관	동아리활성화사업, 시니어 아카데미	(031)324-9303
의왕시사랑채노인복지관	어학 · 취미여가 · 건강증진 프로그램	(031)425-3676
일산노인종합복지관	호수복지문화대학교 · 대학원, 한뫼누리예술단	(031)919-8677
평택북부노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 노인일자리	(031)662-3678
황송노인종합복지관	전통문화답사, 작품발표, 동아리 활동 등	(031)731-5220
명륜노인복지센터	상담사업, 신체활동 프로그램	(033)762-6133
속초노인복지센터	영전사진지원, 독거노인멘토링	(033)631-0758
양양군노인복지관	실버예술단, 평생교육지원	(033)673-2685
홍천군노인복지관	상담사업, 신체활동 프로그램	(033)434-0322
공주노인복지센터	어학 · 취미여가 · 건강증진 프로그램	(041)856-3695
금강노인복지센터	어르신집단상담, 사회교육사업	(041)856-3606
대전서구노인복지관	여가생활프로그램, 물리치료실, 이미용 복리후생	(042)488-6297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활성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사업	(041)334-2901
죽림노인복지센터	상담사업, 신체활동 프로그램	(041)742-4524
감천노인복지센터	노인일자리, 노인자살예방, 경로당 활성화	(053)986-7708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 노인일자리	(055)636-0303
금강노인종합복지관	동아리활성화사업, 시니어 아카데미	(055)221-8445
금오노인복지센터	사회교육, 정서함양, 정보화 교육 실시	(054)458-0287
내서노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복지, 노인일자리	(055)231-9433
두송노인복지센터	경로당활성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사업	(051)261-0958
수영노인복지센터	어학 · 취미여가 · 건강증진 프로그램	(051)759-6070
울릉노인복지센터	전통문화답사, 작품발표, 동아리 활동 등	(054)791-1033
의성군노인복지관	동아리활성화사업, 시니어 아카데미	(054)833-6006
통도사자비원노인복지센터	상담사업, 신체활동 프로그램	(055)381-6500
고창군노인복지센터	경로당활성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사업	(063)564-7711
대해노인복지센터	상담사업, 신체활동 프로그램	(062)234-2213
여수시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사업	(061)685-2381
하나노인복지관	사회교육, 정서함양, 정보화 교육 실시	(061)242-5357
제주노인복지센터	동아리활성화사업, 시니어 아카데미	(064)746-8336





(사진왼쪽부터) 봉은연화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어르신들. 연화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연화시니어봉사단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도 지역사회를 위해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준다. 대구 보성선원은 분기별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을 찍어 포교하고 있다.

노인대학, 경로법회…우리절 시니어 포교 이렇게

인생 노년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다. 고독감과 외로움을 비롯해 가족과 주변사람들과의 대화 단절 및 소외감 등이다. 또한 생물학적 노화에 의해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인류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 돼 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또한 사찰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신도들 대부분이 노인들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들이 마음 놓고 사찰을 찾아 신행활동을 하거나 계층법회를 진행하는 사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특성에 맞는 노인포교를 진행하고 있는 사찰을 소개하고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불교계 복지관 리스트를 정리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노인맞춤 불교대학 운영사찰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봉은연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현재도 평균 100여 명의 어르신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경전강의, 생활법문, 요가교실, 경전강좌, 민요교실, 성지순례 등 어르신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봉은사는 연화대학 어르신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학기당 6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한 연화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연화시니어봉사단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도 지역사회를 위해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준다.

연화시니어봉사단은 2001년 창립된 단체로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달 독거노인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있으며, 바자회를 열어 마련된 수익금을 소외이웃에 전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은사측은 "봉은연화대학은 한평생 불자로 살아온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특별 교육기관으로, 가정과 사회의 어른으로서 인격을 고양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며 "연화대학 어르신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으나, 연화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연스레 신행활동에 동참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포교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지난 1월 홍법사 평생교육원을 개원했다. (사)한나래문화재단과 동명대와 제휴한 홍법사 평생교육원은 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평생교육원은 홍법사가 2004년 개원한 '숲속노인대학'을 확대한 프로그램이다.

홍법사는 "고령화시대에 정년 후 40~50년의 삶의 시간을 계획해야 하는 현실이다. 불자들이 여생을 어떻게 행복하고 안락하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 평생교육원을 개원했다"며 "다양한 지식과 문화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교공부와 더불어 새롭게 거듭나는 삶의 기쁨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교육원은 노래, 악기, 서예, 한문, 그림, 외국어, 컴퓨터 등을 배우고 닦는 '즐거운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문화가족행사, 인도문화교류, 몽골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병행하고 있다.

계층별 아카데미를 열고 있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1월 11일~12월 9일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법륜 스님을 비롯해 김홍신 작가,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이형종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김기진 한국 JTS 대표 등이 강사로 행복한 노후에 대해 강의한다. 정토회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로 은퇴자들은 노후의 불안정한 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2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함께 나누고 한국사회가 가야 할 새로운 대안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화된 행사로 지역 어르신 포교

적지 않은 사찰에서 사찰별로 특성화한 경로잔치와 봉사활동 등을 마련해 어르신에게 불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고 있다.

서울 수효사(주지 무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꾸려 매주 100여 가구의 독거노인에게 밑반찬배달 및 반찬조리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잔치, 독거어르신 가정방문 안부 묻기 등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대구 보성선원(주지 한북)은 매월 세 번 지역 200~500여 어르신들에게 점심공양을 대접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어르신 장수사진을 찍어 드리고 있다.

한북 스님은 "노인포교라고 하기 보다는 좋은 일을 하면 자연스레 불교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됐다"며 "최근에는 어르신을 모시고 영화관람을 다녀오는 행사도 펼쳤지만 다섯 번에 그쳤다. 왜 극장에 가지 않으시냐고 여쭈었더니 '경로당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고도리 치는게 더 좋다'고 하셨다. 보현행원품에 수순중생원(隨順衆生願)이 있다. 이웃의 뜻을 받들라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맞춤형 포교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남 하동 금봉사**(주지 단제)는 매년 2~3회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명사초청강연을 펼치고 있다.

"2년에 한번 어르신 모시고 큰잔치"

총지종, 경로법회 열어 노인 공경

총지종은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전국에 있는 65세 이상 교도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경로법회를 열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여는 경로법회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할 정도로 총지종에서는 전통있는 행사다. 충남 아산 · 단양 등 지역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며 장기자랑 및 초청가수 공연, 야외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총지종은 9월 27일 단양 대명콘도에서 '제10회 한마음 경로잔치'를 봉행했다.

전국 65세 이상 교도 800여명이 동참한 이번 어르신 큰잔치는 개회법회를 시작으로 실버 레크레이션, 사원별 장기자랑의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법회에 이어 실버레크레이션으로 잔치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코메디언 방일수씨의 사회로 각 사원별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24개 사원이 참가한 장기자랑은 총지종 교리를 바탕으로 한 연극과 뮤지컬, 무용 등 각 사원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경로법회에 참가한 교도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총지종은 노인에 대한 경로사상을 고취하고자 전국에 있는 65세 이상 교도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경로법회를 열고 있다.

총지종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봉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부처님께서 베푸신 자비의 정신을 구현하고 어르신들을 봉양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방편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 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원정 성관

현대불교신문 창간 19주년을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 전화 02)853-0531~2 팩스 02)853-0533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지은

총무원장 보공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정담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보월. 보아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무공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포교부장 무진
총무국장 보현 재무국장 자운 교무국장 보선 경호국장 정목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팩스 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팩스 883-7796

정신·물질 만족시키는 포교 콘텐츠 개발 시급

전문가에게 듣는 노인 포교 방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노인 포교는 한국불교의 당면과제이다. 하지만 정작 노인 인구의 종교적 욕구는 낮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조사한 '2012년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에 따르면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은 29.2%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종교가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와 포교·신행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표이사 성운 스님은 불교계 노인 포교와 복지의 필요성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했다.

성운 스님은 "현재 노인 인구가 600만 명에 이르고 그 중 70%가 빈곤 계층이다. 노인 빈곤 계층 대부분은 독거노인들"이라며 "불교계의 노인 복지관의 경우 생활 시설과 이용시설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지만, 아직 재가 시설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지역 일선 사찰이 보완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 신도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상회한다"면서 "한 평생을 불교 신도로 살아가다 마지막에 이르러 개신교, 가톨릭 요양병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 타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불교계도 노인 인구를 위한 종책적 방안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포교의 현실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사찰에서 사십구재와 천도재 등 임종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임종 전 스님과 신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는 무관심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포교의 문제점은 노인불자들이 참여하는 조직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또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포교가 진행돼 오랫동안 사찰에 나와도 병이 들어 사찰에 나오지 못하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응철 교수는 "호스피스 서비스와 상조가 불교계에서 포교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 이 같은 것들이 봉사의 한 방법일 뿐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상조모임과 호스피스 등이 사찰에서 연계되면 필요한 경우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 역시 "한국불교는 할머니들의 신심 속에 다져진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지금 노인 인구가 불교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들은 불교계 큰 자산이다. 일선 사찰에서 신심을 잃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가톨릭의 레지오를 예를 들고 봉사와 신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지오는 입교 권면부터 불우 이웃 돌봄, 사회 봉사 등을 함께 하는 가톨릭만의 신도 프로그램이다.

정관 스님은 "불교계도 어르신들의 눈높이를 맞춰언제든지 사찰에 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사찰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신도들이 다가가서 병원도 함께 다녀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수종합복지관장 상덕 스님은 어르신들이 정신적 행복을 찾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불교계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덕 스님은 "물질적인 지원은 많이 이뤄진다. 이제는 정신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불성 복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삶의 욕구를 증장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노인 포교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일선 사찰의 노력을 요구했다. 노인 대학 개설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인들이 사찰에서 삶을 영위토록 하고, 법회 등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 노인 복지 인프라 높아
독거노인 재가 시설 확충 필요

노인 23%만 종교생활 욕구 응답
일선 사찰들 노인 대학 개설하고
종단, 오감 만족 콘텐츠 개발해야
노인 계층 포교 성공할 수 있어

성운 스님은 "일선 사찰에 노인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서 건강, 식생활, 운동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노인들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찰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행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을 위한 법회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 역시 사찰에 노인 대학을 개설할 것을 제언했다. 스님은 "사찰의 노인 대학은 어르신들이 접하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불교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난해한 경전 해설보다는 삶에 도움이 될 사안을 접목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법회도 의식을 한글로 풀어 설명하고 어르신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지장회 등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신행활동 단체를 조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행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노력을 일선 사찰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덕 스님은 노인 포교에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옥수종합복지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붓다의 향기'라는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만 한 이야기들을 불교 교리와 접목해 설명해주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며 "이 같이 종교색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그들을 감화시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은 어르신들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능숙하다. 시각, 청각 등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포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선 사찰에 보급하면 노인 계층 포교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표 관광문화자원으로 발돋움한 템플스테이에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실 템플스테이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가족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지만 황혼기를 맞은 사람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성운 스님은 "보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보면 세대를 청장년?노인을 한 묶에 묶어 있다. 계층을 좀 더 세분화해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정적인 것보다 동적이어야 한다. 또래 모임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즐기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으며, 김응철 교수도 "노인들이 쉽게 체험하면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져야 한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동적 명상, 젠 댄스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복경 충남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지난 7월에 열린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사찰에서의 노인포교 활동 방안'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노인복지주택'과 '삶의 이야기방' 등 사찰이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을 제안했다.

오 회장은 "노인들의 고립을 막기 위해 사랑방 개념의 '삶의 이야기방'을 사찰에 설치하고 노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인 '노인복지주택'을 새로운 불교사회복지시설의 모델로써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자원봉사단 운영과 사찰의 뛰어난 자연.문화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적 부조가 이뤄지지 않는 노인 복지의 사각 지대를 일선 사찰에서 책임져 줄 것과 종단에서 노인 포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성운 스님은 "현재 노인 포교의 문제점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각 종단이나 지역 교구본사에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다"면서 "노인 포교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매뉴얼화해 일선에 적용시켜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필요성도 대내외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은 불교계의 전신인 만큼 일선 사찰 주지 스님이 1:1로 상담하는 등 따듯한 관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김응철 교수는 "종단에서 성공 사례를 개발하여 종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운 스님


정관 스님


상덕 스님


김응철 교수


2005년 마곡사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혜나눔 9차 템플스테이에서 참가 어르신들이 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현대불교신문 창간 19주년을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93-1 /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991-8176
www. ilbung. org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승정원장 벽봉 원로원장 법령
종회의장 무송 총무원장 도선

종단임원 및 종도 일동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국민의 화합과 평등 그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남북통일 기원

세계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위 출범 선포 대법회

지구촌 모든 나라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모임

주최 : 세계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2013년 10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강당]



인류의 화합과 평등 그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사명으로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단합과 상호 협력과 지원 및 교류를 통해 국가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존엄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든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께서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법왕으로 추대하고 모시고자 법왕청을 설립하고 추대위원회가 출범하였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세계 모두가 부처님의 품안에서 하나 됨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중생들의 지도자이신 정, 재계 및 불교계 큰어른들께서
이 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위원회

증명 : 대한불교종정협의회 50여 종단 종정 고승단 . 군소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108위원

법왕 및 승왕 추대 위원장 : 목탁 대승정 봉행 위원장 : 동봉 대종사 운영 위원장 : 청운 대종사 기획위원장 : 혜정 대종사 봉대 조직 위원장 : 보각 대종사. 무공 대종사

준비운영위원 : 만청. 혜승. 현담. 만오. 범홍. 진성. 제성. 현덕. 도암. 혜선. 해월. 문수. 성보. 보명. 도명. 심오. 청산. 수완나. 무상. 대연. 법성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운영이사 일동 합장

* 의전관계로 미리 참석 유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전화 02)733-5665. 011-229-6061 팩스 733-5671

‘자살 충동’ 일어나면 자비의 전화로 SOS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 전화 24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와 자신의 고민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줄 사람만 있었어도 자살을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 전화(원장 도현)는 이웃의 고통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상담기관이다. 10월 8일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 전화 상담 현장을 찾았다. 올해로 23년째를 맞는 자비의 전화 24시 현장을 통해 대중들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봤다.


자비의 전화는 23년째 내담자들의 상담을 들어 주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으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82125 건의 전화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1990년 개원 23년째 전화상담
청소년 사이버 성상담도 병행
매월 50여 명 봉사자 상담 진행
‘전문가 양성’ 자살 예방 적극 대처

자비의 전화는 23년째 내담자들의 상담을 들어 주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한 달 평균 40~50명의 자원봉사들이 상담을 하고 있으며 1990년부터 지금(2012년 기준)까지 82125 건의 전화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사이버 상담실(www.jabi24.org)과 2003년에는 청소년 사이버 性상담(www. ahsex.org) 등이 개설돼 인터넷 상담이 이어지면서 3천여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되고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자비의 전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자기 얘기를 쉽게 털어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너무 답답한데 나를 드러내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 자비의 전화는 즉각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응급 처치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자비의 전화는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까지 진행(일요일 제외)되며 수요일만 야간 상담을 한다. 상담원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상대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하면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고민은 다양했다. 불륜관계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과 불안 호소, 경제적 궁핍에서 오는 짜증과 분노, 가족 모두가 개신교인인데 혼자 불자로 살아가기 힘들다는 신행 상담 등등.

상담원 박현주(50) 씨는 매주 화요일 8시간 전화상담과 주 2회 면접상담을 하고 있다. 불법을 몸소 실천하는 길을 찾던 중 만난 상담봉사는 그녀에게 큰 보람을 찾아주었다. “반찬 나누기, 설거지 봉사 등을 해보았지만 보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부터 불교상담개발원 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상담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상담봉사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얻었다고 한다. “사춘기를 맞는 아들의 문제, 간섭이 심한 엄마 때문에 고민하는 딸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상담을 통해 그들이 삶의 의욕을 다시 찾는 과정을 보며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상대를 보게 되니 제 스스로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게 되었다고 한다.

연화심(53) 보살은 2002년 학생 상담을 시작으로 불교상담개발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꾸준히 상담 영역을 넓혀왔다. 그녀의 목표는 수행을 통해 상담을 이어가는 것. “일반상담과 불교상담을 모두 공부해 보니 불교상담이 왜 필요한지를 절실히 알게 됐죠. 일반상담은 상담의 기법만을 가르치다 보니 분명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법문은 어느곳에서나 인용할 수 있으니 한계가 없죠. 결국 상담자도 수행이 돼야 어떤 문제에도 불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월 16시간 전화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연화심 보살은 위빠사나 수행과 병행해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연화심 보살은 “상담을 통해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공부하며 상담을 하니 불교 자체가 상담인 줄 알게 되었어요. 무궁무진한 부처님 법 안에서 꾸준히 상담과 수행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꾸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상담의 깊이를 더해 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불교상담대학원을 통해 불교상담심리전문가 7명, 불교상담심리사 1급 자격취득자 10명, 불교상담심리사 2급 158명 등을 배출 시켜온 불교상담개발원. 앞으로도 불교상담개발원은 자살예방센터 등을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02)737-7378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웃의 고민 들어주며 22년 늘 그 자리에”

자비의 전화 상담봉사자 이석진 보살

“뭐 봉사가 따로 있나요?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일 뿐인데. 그냥 늘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1991년부터 자비의 전화 상담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석진 씨(50)는 지난해 봉사 1만 시간을 넘긴 베테랑 상담사다. 그녀는 1993년 자비의 전화 개통 3주년 때 상담 최다 봉사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6년에는 제18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받기도 했다.

“요즈음 젊은이들이 취업이 너무 안 되니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이밖에도 부부문제 애정문제 다양한 고민을 들으며 저도 세상을 배우죠.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는 20년째 전화를 하고 있는 개신교인이에요. 자비의 전화를 친구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녀는 특히 매주 수요일 저녁 야간상담 봉사를 자청해왔다. 밤새 상담을 하고 아침에 바로 직장인 인사동 서예원으로 출근 한다는 그녀. 고되지 않냐는 질문에 늘 같은 자리를 지킬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미소를 짓는다.


22년째 전화상담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이석진 보살의 봉사 장면

“힘들지는 않아요. 자기 심정을 누구에게 말 못해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이에요. 처음 전화를 걸었을 때는 들끓었던 내담자의 목소리가 전화를 끊을 즈음에는 밝아지는 것을 느껴요.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어린 시절 수많은 스님들 책을 읽으며 불법에 대한 믿음을 키워 왔다는 이석진 보살. 한때는 출가를 결심하기도 했지만 재가자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그녀는 오늘도 늘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저는 늘 그 자리에요. 그리고 이런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22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살 수 있으니 너무나 복된 삶이죠.” 매일 아침저녁으로 108배를 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야간 전화상담, 주말이면 사찰순례나 보육시설 봉사를 간다는 그녀는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보현행을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자비의 전화 ‘상담사례’

Q: 저는 같은 과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해 왔습니다. 2년 전 남자친구는 회계사 시험에 붙어 명망 있는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진 저는 다시 시험을 준비했지요. 그런데 남자 친구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늘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저는 또 시험에 낙방했고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A: 한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자 부처님께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을 찾아보라고 했죠. 하지만 어느 한 집도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만나면 누구나 헤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일상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저는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남편과 별탈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 안 남은 인생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줬지만 너무 화가 나고 모든 게 원망스럽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이지 모르겠습니다.

A: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겁니다. 지금 남편이 떠났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제 1의 화살은 맞을지언정 제 2의 화살은 맞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상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의 인연이 다 했다면 새로운 삶을 찾으면 되고 남편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돌아 올 겁니다.

Q: 2003년 3월부터 한 종교단체에 가입해 도를 닦게 되었습니다. 당시가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학 4학년이었는데 이를 포기하고 열심히 수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는 혼란에 빠졌고 그 종교단체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면서 2~3년을 그냥 어정쩡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종교단체를 만난 것을 무조건적으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성격적으로 많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태해지고 부정적입니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저도 힘나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성격적 결함을 이겨내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 심신의 안정을 기도합니다. 가정 사회 신앙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고 살고 싶습니다.

A: 취업준비는 놓쳤다고 생각하시지만 종교를 만나서 지속적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계시네요.

또 이로 인해 성격적으로 많은 장애를 겪으셔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나태해 지고 부정적으로 되어 스스로 극복하시기가 쉽지 않아 참회하며 심신의 안정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시네요. 혼자서 기도의 힘에만 의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마음의 문을 열어 직접 상담실을 찾으셔서 의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 같습니다.

성격적 결함 꼭 이겨내시고 안정된 직장 구하시어 바라시는 대로 가정, 사회, 신앙생활이 원만히 성취되길 두손 모아 기도 드릴게요.


자비의 전화는 매일 오전 9시~ 오후 9시까지 진행(일요일 제외)되며 수요일만 야간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면 내방 상담도 가능하다. 사진은 내방 상담 장면.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타종

현대불교신문 창간 19주년을
전 종도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5호
전화 02)2242-1049 . 011-9090-1049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 주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이사진 · 임원진 일동
사부대중 일동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화 041)566-2277. 566-2278 팩스 041)566-6141

산사는 가을축제 중

가을이다. 모두 새로운 계절 앞에 서야 한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이나 도덕이 바뀔 때처럼, 바람의 이유가 바뀌고 하늘의 깊이가 바뀌는 것도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새로운 계절 앞에 서는 것은 새로운 세상 앞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에게나 일단 설레는 일이다. 슬픈 마음도 고단한 마음도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은 산사일 것 같다. 때마침 전국의 산사는 가을축제 중이다. 일주문 앞엔 가을꽃이 피고, 마당에선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바뀐 계절을, 바뀐 세상을 바라보며 바쁜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에 이만한 곳은 또 없을 것이다. 전국의 산사에서 펼쳐진 가을축제를 화보로 꾸몄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부안 내소사(주지 진화)는 10월 5일 보물 제1268호 내소사 괘불을 주제로 두 번째 괘불재를 열었다. 오후 1시 '괘불 이운 의식' 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는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가을 산사 음악회가 열렸다.

바쁜 마음 잠시 내려 놓으니 불심 영그네



9월 28일부터 열린 세종 영평사 구절초 축제



10월 5일 청량사 오색단풍 산사음악회가 도립공원 청량산 청량사(주지 지현)에서 열렸다. 산사음악회에는 장사익을 비롯해 BMK, 정수라, 심진 스님,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 어린이 꼬마풍경, 어린이 사물놀이팀 등이 공연했다.



10월 5일 불암사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산을 위한 생명음악회' 가 열렸다.



수원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10월 7일 개막한 서울 조계사 국화축제



9월 28일 '꽃무릇과 함께 하는 선운문화제' 가 열린 고창 선운사 진입로에 꽃무릇이 가득 피었다.



강화 전등사(주지 범우)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 을 주제로 제13회 삼랑성역사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암. 혜암. 지연.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현화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부원장 법전
고시원장 혜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법성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대안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현덕. 도일. 경담.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구달.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고운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석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수원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도명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고문(스님위한봉사)변호사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등록번호 206-82-65359〕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표회장 회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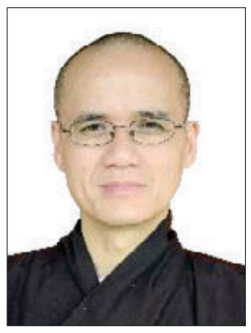
수석부회장 향운 (대한불교조승종 종정) 사무총장 혜성 (대한불교구화조계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산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부위원장 월광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이사 고산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남혜 (대한불교법보종 총무원장) 상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법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일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정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탄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혜남 (법화종 종정)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윤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윤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태준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허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회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법전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혜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동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춘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학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숙회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영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청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대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성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우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청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관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묘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혜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한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황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중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총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정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지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용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법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영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동암 (한국무교교단 총무원장) 혜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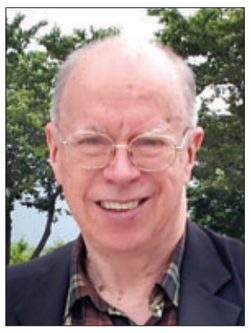
감사 영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법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해월 (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정민 (한국신불교정토진종 총무원장)

고문(불교 위한 봉사)변호사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플럼빌리지 틱찬팝캄 스님


스티븐A 스미스 박사


앤써니 수사(서강대 명예교수)


먀오판 불광산사 연구원


담마냐나 마하시 명상센터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유정길 前 에코붓다 대표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

세계종교공동체

소통과 화합 봉사…사회 변화 주도

세계적 종교 공동체의 공통점은?

유대와 공감이 사라지고 시스템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모한 현대사회의 위기 원인을 찾고 이 대안을 종교공동체에서 모색하는 국제학술포럼이 열린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10월 19~20일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현대사회의 위기와 종교공동체의 역할' 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불광사 중창 불사 낙성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세계적 명성의 종교공동체의 대표자들이 나서 불교와 한국종교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과 신행방향을 제시한다. 불광국제학술포럼 발표내용을 미리 소개한다.

정리=노덕현 기자

조화롭고 깨어있는 수행공동체 – 프랑스 플럼빌리지

첫 발표는 틱찬팝캄 스님이 진행한다. 틱찬팝캄 스님은 플럼빌리지 아시아생활불교연구소 소장으로 틱낫한 스님과 함께 플럼빌리지를 일군 핵심인사다.

1982년 틱낫한 스님에 의해 프랑스 남부지역에 몇몇 수행자들과 함께 시작된 플럼빌리지는 현재 800명의 승려와 1000여 재가불자들이 모여 수행하는 공동체다. 플럼빌리지 구성원들은 매년 6~8개월씩 만행을 하며 틱낫한 스님의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머물라' 는 가르침에 따라 매일 걷기명상, 좌선, 이완 명상 등과 같은 마음챙김 활동을 실천한다.

이날 틱찬팝캄 스님(플럼빌리지 아시아생활불교연구소 소장)은 플럼빌리지의 가르침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플럼빌리지 사상의 핵심은 고통과 아픔을 평화와 행복으로 승화시키는 생활불교다.

틱찬팝캄 스님에 따르면 플럼빌리지 수행의 특성은 4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도착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 둘째는 '강물이 되어 흐르기' , 셋째는 '진실과 시간의 본질: 상호연결성' , 넷째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익어가는 우리의 의식' 이다. 첫째 도착했습니다의 과정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늘 무엇인가를 쫓았던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완의 과정이다. 둘째 강물이 되어 흐르기 과정은 수행공동체 속에서 일원으로 함께 속하는 과정이다. 셋째 '진실과 시간의 본질' 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분별하는 시야를 교정하는 과정이다. 넷째 '끊임없이 생성되고 익어가는 우리의 의식' 은 다섯가지 깨어있는 마음 수행을 하는 자리다. 여기서 다섯가지 깨어있는 마음은 생명존중, 진정한 행복, 진실한 사랑, 사랑의 말과 경청, 의식적인 소비로 표현된다.

신의 임재와 세상의 치유를 위한 공동체 – 미국 퀘이커 공동체

'성령의 지혜와 통찰의 원천은 외적 권위에 있지 않고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 는 17세기 퀘이커교의 창시자인 조지 폭스 이후 미국에는 퀘이커교가 발달해있다. 특히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근방의 퀘이커 연구센터 펜들힐 공동체는 상호 소통적인 영적 수행에 기반을 두고 사회봉사에 헌신하고 있는 공동체다. 1930년 9월 개원한 펜들힐 공동체는 특히 수행에 있어 특색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

먼저 펜들힐 공동체는 명상과 예배 그리고 사회 활동이란 신행활동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스티븐A 스미스 박사는 "흔히 명상과 묵상을 하려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공간 속으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도, 명상, 묵상 등 정신적 수행을 통해 더 심오한 영적인 삶을 키우면 봉사 참여에 활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촉진된다"고 설명했다.

이 공동체는 이 과정에서 독단 및 강제성을 없애기 위해 다른 종교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의 종교적 수행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성찰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스미스 박사는 "과거 기독교 전도사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정신적 곤봉을 너무나 자주 휘둘렀다. 그런 접근 방법은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무례함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박사는 이어 "불교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말고 달을 보라는 말이 있다. 기독교 언어 또한 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박사는 "퀘이커 교와 선불교는 모두 언어를 넘어선 신앙적 직관이 핵심임으로 '깊이 듣기' 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깊이 듣기는 인내와 관용을 지닌 열린 소통의 자세다. 스미스 박사는 이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감을 줄 수 있으며 그 존재를 확장시켜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상에 희망과 의미를 갖는 젊은 공동체 – 프랑스 떼제 공동체

1940년대 프랑스의 작은 마을 떼제에 로제 수사가 창설한 떼제 공동체는 현재 약 30개국에서 온 개신교, 성공회, 가톨릭 출신 수사 100여 명이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수사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살아간다' 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고 느낀다. 초기에 알려지지 않았던 떼제 공동체는 분열된 기독교 교회들 간의 화해의 표시로 현재 인식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많은 젊은이들이 기도와 나눔의 모임을 위해 떼제로 모였다. 2013년 매주 5000명의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으며 매해 연말에는 3만 명의 유럽 전역의 젊은이들이 모인다. 떼제 공동체는 단순한 수행자들의 공동체가 아닌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움직임으로 커가고 있다.

앤써니 수사(서강대 명예교수)는 떼제 공동체의 규칙은 공동의 봉사를 실천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앤써니 수사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타인의 짐을 감당하고, 일상의 작은 고통을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규율"이라고 말했다. 또 앤써니 수사는 "사회에 그 빛이 스며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떼제 공동체는 현재 세계 여러 곳에 곳에서 젊은이 모임을 조직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용기, 희망, 영감을 고취시키고 사회 분열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고 있다.

승가와 재가의 함께 하는 공동체로 – 대만 불광산사·미얀마 마하시 수행센터

먀오판 불광산사인간불교연구소 연구원은 대만 대표사찰인 불광산사를 예로 출재가가 함께하는 불교공동체를 제시했다.

불광산사는 개산종장 성운 스님이 교육으로 인재를 키우겠다는 원력으로 1967년부터 대만 고웅에 사찰을 창건하고 불학원을 세우면서 출발했다.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 인간화, 국제화의 이념으로 전 세계 200여개의 도량을 건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월 19~20일 플럼빌리지·불광산사 등 7개국 사례 발표

불교 공동체 발전 위해서는 출재가 공동의 노력 필요

먀오판 연구원은 "1991년 성운 스님은 재가신도를 위주로 조직된 국제불광회 중화총회를 대만에 결성하고 1992년에 미국 LA에서 국제불광회 세계총회를 창립해 출재가가 함께 하는 구조로 불광산사를 바꾸었다"며 "이는 각 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문화, 교육, 자선, 대중수행 등에 승가와 함께 신도들의 힘이 함께 해야 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하시 명상센터 국제불교포교학교 교수 담마냐나 스님은 마하시 명상센터 또한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차별없는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함으로서 전세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마하시 명상센터는 1949년 위빠싸나 방법에 조예가 깊었던 마하시 사야도가 미얀마 우 누 초대수상의 초청으로 출가수행자와 재가자 모두에게 수행법을 교육하며 시작됐다. 먀오판 연구원은 "국내외 출가 및 재가 수행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하시 명상센터 산하 협회인 BSNO에서 무상으로 필수품을 제공받는다"며 "출가자와 재가자는 각자 그들의 소임에 책임을 다하게 되고, 마하시 수행센터를 안정되게 하려고 서로 화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먀오판 연구원은 "이는 모두 출재가가 붓다의 가르침에 기반한 철학에 굳게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의 완벽한 협력이 있기에 마하시 수행센터와 마하시 수행 방법은 훨씬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기적 세계관의 실천에 앞장서야 – 한국 승가 및 정토회 등 불교공동체

불교에서 승가는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의 사부대중으로 구성되는 불교공동체를 의미한다. 불교공동체 분야에서는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와 유정길 정토회 에코붓다 前공동대표가 나서 승가와 재가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했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승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실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승가는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복전(福田)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기존의 복전 역할에서 벗어나 개방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연기적 세계관을 실천하며 도덕성과 전문성이 결합된 실천단위로서의 승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택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사부대중의 승가는 '실천단위로서의 현전승가' 와 함께 '불교적 상상의 공동체' 인 '사방승가' 라고 하는 중층적인 구조로 이해돼야 한다"며 "우리는 불교적 실천을 통해 '모든 생명의 안녕과 행복' 이라는 가르침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정길 토회 에코붓다 前공동대표는 "승가공동체의 전통은 지역사회와 결합돼 '향도' 를 만들었고 '승도' 란 마을 주민 생활과 하나가 된 공동체를 형성했다. 또 '결사' 라는 이름으로 함께 뜻을 이루기 위한 공고한 공동체를 만들어왔다"며 불교공동체의 역사를 설명했다.

유 前공동대표는 지리산 실상사의 공동체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새로운 불교공동체로 생산과 소비, 교육 등을 겸한 마을 공동체의 현재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 前공동대표는 정토회의 실천을 예로 들었다. 유 前공동대표는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내세우면서 개인의 수행과 사회활동을 겸하면서 환경, 평화, 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서울과 문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공동체"라고 정토회를 설명하며 "미래의 불교는 사찰 자체가 신도들간의 협동과 상호부조의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랑스 떼제공동체의 예배 모습.


정토회 정토수련원 수행자들의 나무심기 장면.


프랑스 플럼빌리지 틱낫한 스님과 참가자들의 걷기명상 장면.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원로원장 범준
위 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종 정 혜봉

총무원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호경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앙종회의장 보장 부의장 수운. 보성
중앙종회의원 서봉. 삼자. 혜언. 원철.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부원장 지성 사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원장 보단 포교부장 법공
중앙교육원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원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원철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앙법사단장 무진 법사단부단장 혜등 법사단총무 혜련
비구니회회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제교화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도일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사단법인 대륜불교조계종

종 정 아신 수완나

종회의장 운담 총무원장 효원 능인 감찰원장 일정

중앙칠불선원장 도견 중앙승가강원장 효담 중앙염불원장 무일
중앙포교원장 경타 문화원장 능하 대외협력본부장 능광
예경실장 능일 비서실장 지안 기획실장 향덕

대륜불교조계종은 근본 가르침을 복원하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기위해
삼수삼행(三修三行)으로 평등자비(平等慈悲)를 실천하는 청정승단(淸淨僧團)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의 수행을 원하십니까?
대륜불교조계종으로 오십시요.

입종문의는 종단홈페이지 참조【 http://www.arahan.org 】

감사와 추모의 마음으로 한송이꽃을 바칩니다.

“ 동두천 세계 평화기원 청소년 영화축제 ”

국민 헌화 운동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
하신 국가유공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화꽃 한송이
헌화운동을 전개합니다.


홍보국장
유원 스님


포교국장
유마 스님

2013. 10.22 ~ 10.26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장소 :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광장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62-10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주최 : 동두천세계평화기원 청소년영화축제 조직위원회
주관 : 국민 대통합 기도회 준비위원회
후원: ㈜늘푸른채(스님이만든 생식)

Do Dream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빛을 향해가는 가을 음악의 향연

화엄음악제 10월 19일… 화엄사 각황전서



화엄음악제 '2013 첫 번째 빛' 이 10월 19일 오후 3시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열린다.

화엄사(주지 종삼) 가 주최하는 화엄음악제 '2013 첫 번째 빛' 이 10월 19일 오후 3시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제에는 '소리의 생태학자' 로 불리며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과 악기를 연주하는 ECM레이블의 주요 아티스트 '스테판 미쿠스' 를 비롯 정재일, 카입(Kayip), 최고은, 정가악회, 원일이 출연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첫 번째 빛(First Night)'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크리슈나무르티(1895~1986)의 '스스로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진실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한다.(En-light-ened-This light in Oneself' 는 말에서 인용했다.

원일 총감독은 "우리 모두가 빛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하나임을 알게 되면 남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번 화엄음악제의 음악은 바로 이 빛의 의미인 영원한 자유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라고 설명한다.

'원일' 은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며 작곡가, 지휘자, 연주가 등 다양한 음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작업으로 잘 알려진 멀티 아티스트로 7년 동안 화엄음악제를 이끌어왔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제작된 화엄사 범종의 소리를 바탕으로 원일은 카입(Kayip)과 정재일과 함께 음악제의 시작과 끝을 제의적으로 열고 닫는 특별한 사운드작업을 시도한다.(02)2272-2152

정혜숙 기자

불자가수 웅산 7집 앨범 'I Love You'

팬들에게 전하는 러브레터 형식으로 꾸며져

불자가수 웅산이 2년 만에 7집 'I Love You' 로 돌아왔다. 한국 최고의 재즈 디바로 불리는 웅산은 6집 'Tomorrow' 이후 꼭 2년 만에 새로운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7집 'I Love You' 는 웅산 특유의 카리스마와 감수성이 묻어나는 음악으로 채워졌다. 본인의 자작곡 'I Love You' 를 타이틀로 팬들에게 전하는 러브레터 형식으로 앨범을 꾸며 눈길을 끈다.

기존 앨범에서 서서히 드러내보인 송라이터의 면모는 이번 앨범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타이틀곡 'I Love You' 를 비롯해 블루스 'Mr.Blues' , 보사노바 'Asi Que' , 탱고 'Mi Tango Triste' 등을 직접 썼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재즈 보컬리스트로서도 다양한 음악에 도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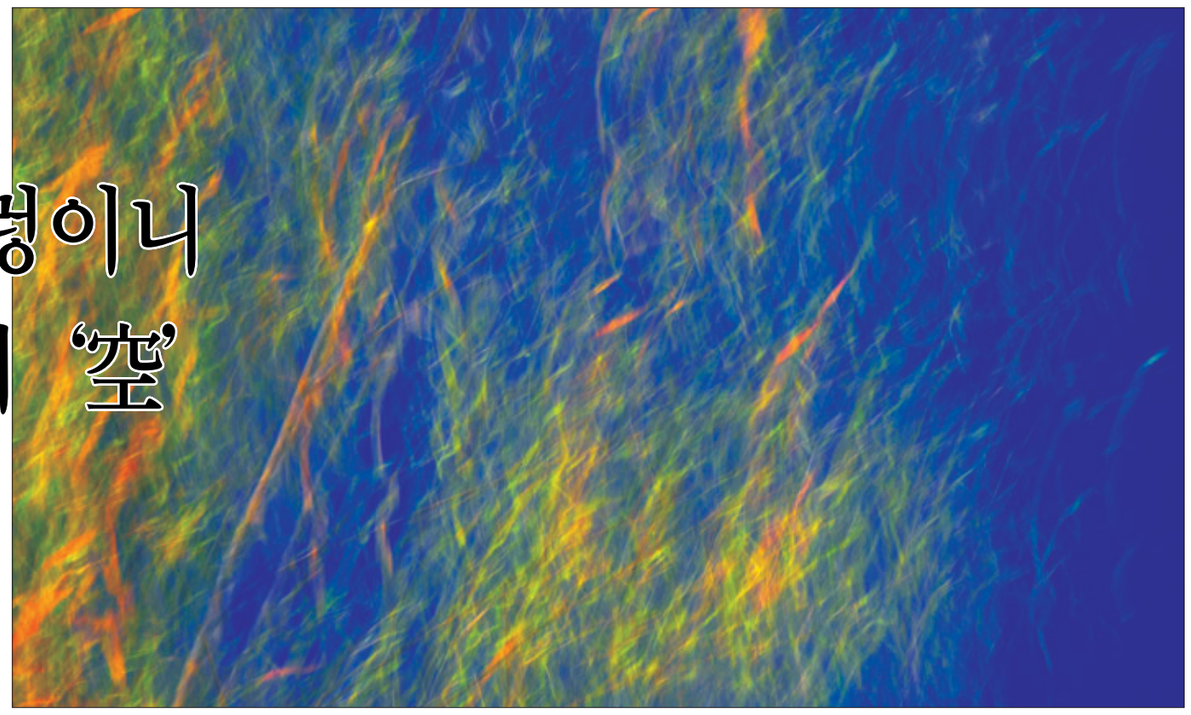
특히 어린 시절부터 즐겨 부른 록과 블루스 장르뿐 아니라 탱고와 보사노바 같은 라틴뮤직, 재즈화가 쉽지 않던 오페라 명곡까지 소화해냈다. 정혜숙 기자



웅산 7집 'I Love You'

바람 만나 대나무 일렁이니 삼라만상이 '空'

사진작가 라규채 뉴욕 '비움' 전



대나무 사진가 라규채가 뉴욕 맨하탄 갤러리 코리아에서 10월 24일까지 '비움' 을 주제로 한 'Bamboo 시리즈' 로 전시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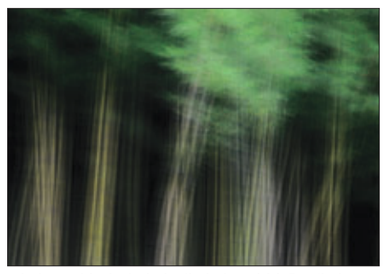
라규채 사진작가

대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대나무의 잎을, 그리고 대를 흔들며 또다른 세계를 펼쳐냈다. 그 순간 대나무는 대나무가 아니었고 바람도 바람이 아니었다. 흔들림 미세한 파동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만이 오직 거기에 존재할 뿐이었다.

대나무 사진가 라규채의 작품이 미국 뉴욕을 찾았다. 맨하탄 갤러리 코리아에서 10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비움' 을 주제로 한 'Bamboo 시리즈' 로 선(禪)사상의 핵심인 공(空)을 대나무로 표현해 냈다.

"선비의 상징인 대나무라는 소재를 통해 동양사상의 핵심인 불교의 연기법(緣起法)에 의한 '공(空, 비움) 프로젝트' 를 선보였습니다. 우주 속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언제나 진동과 파동에 의해 변화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이 공사상의 핵심이죠. 이번 전시는 미국인들이 신비롭게 여기는 대나무를 동양 선(禪)사상과 접목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의 작품에서 대나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저 바람과 햇빛에 따라 변화하는 대나무는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바람에 따라 그 모양을 달리하며 시시각각 다양한 세계를 표현한다.



작가는 선(禪)사상의 핵심인 공(空)을 대나무로 표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동과 파동 따라 변하는 대나무
계절 변화에 맞춰 렌즈에 담아
10월 24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서

특히 이번 전시 작품 중 하나인 코발트빛깔을 배경으로 하는 대나무는 담양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만이 표현해 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대나무는 푸르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우내 묵은 노란잎이 봄을 맞아 떨어지고 새싹이 나오는 딱 1주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색을 배경으로 한 대나무는 파스텔톤을 자아내며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작품은 새싹과 낙엽 중간 사이의 나뭇잎 색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그 순간을 포착했죠."

그렇다. 그의 대나무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저 바람을 만나 중량과 질감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공의 세계가 펼쳐질 뿐이다. 작가는 이 모든 과정에 연기법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대나무는 대나무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또다른 세상을 연출해 내죠. 제 느낌과 순간의 진동 이 모두가 합쳐져야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 제작업 과정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1~2분 정도 서서 그 순간의 미세한 포착을 담아내고 때로는 카메라를 흔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진동과 파동을 통해 우주만물을 담아낸다.

전남 담양에서 자라 대나무를 보고 자란 작가 라규채.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고 공무원으로 살면서 꾸준한 예술 공부를 통해 자신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작가는 반야심경 등 불교 공부를 통해 작품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대나무는 중심이 비워져 있잖아요. 물질은 태양광선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고 또 변해 갑니다. 그 형상을 넘어 유와 무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제 작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평생 대나무를 찍어가겠다는 작가는 앞으로 수묵화 기법의 작업에 도전하고자 한다.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수묵화의 느낌을 흑백필름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한지에 작품을 출력해 2년 후쯤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라규채 작가는 1959년 전남 담양 출생으로 광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竹, 비움에 젖다' 'Bamboo, 空에 美親다' 등 다수의 전시를 가진 바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통도사성보박물관 '부석사 괘불' 전시

다불회 재현한 1745년작…2014년 4월 6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제29회 괘불탱 특별전에 부석사 괘불(보물 제1562호)을 박물관 내에서 전시한다. 2014년 4월 6일까지 전시되는 이 괘불은 1745년 부석사에서 조성했으며 조선 후기 의식인 회주(會主)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다불회를 재현한 불화다. 괘불은 높이 810.0cm, 넓이 523.5cm 의 비단바탕에 그려졌다.

이 괘불은 60여년 전 부석사에서 그려진 1684년 괘불을 범본으로 삼았는데 두 폭의 괘불은 화면의 절반 이상을 석가모니를 주불로 하는 영산회상도를 그리고, 상단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삼세불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두 괘불의 큰 차이는 1745년 조성한 괘불에는 석가모니불의 대좌 앞에 노사나불 입상을 배치한 점이다. 1684년 제작한 부석사 괘불도에는 상단에 가로축으로 삼세불을 배치하고 화면 중앙세로축으로는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만 배치하였다면,



부석사 괘불,1745년작

1745년 부석사 괘불에서는 세로축에 석가모니불, 비로자나불, 노사나불로 구성되는 삼신불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여 삼세불과 삼신불의 결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화기에 따르면 1745년 부석사 괘불은 서기를 수화승으로 화승 조현, 추안, 추안, 상윤, 우윤, 자인, 순의, 환선, 채붕, 행붕, 자추, 각순이 제작에 참여했다. 이들 중 서기와 자인은 괘불을 제작하면서 동시에 1684년작품 부석사 괘불을 수리하였다. 이로써 옛 괘불의 보수를 진행하면서 괘불을 새로 그리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화사가 새로운 괘불의 조성함으로써 괘불의 도상과 내용에서는 과거의 전통을 다소 답습하였으며, 전통적인 도상을 유지하면서도 화사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들을 개성있게 그린 것으로 보아 화승들의 독자성 또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정혜숙 기자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日江 스님께서 정리하신 알기쉬운 상용의식과 신간저서 안내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인기 판매 중!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9,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 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 집, 승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입적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일강 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靈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값: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신간 고사와 치성



고사와 치성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으며 상차림, 준비물, 방법까지도 알기 쉽게 쓰여있어 초보자들도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자신감도 생기고 사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46배판 I144쪽 I값 13,000원

구입문의 :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사단법인 천우종

우주의 축소인 건축에서도 무량한 보주가…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석류(石榴)→씨앗이 가득 찬 씨방→보주가 가득 찬 씨방 ㊦



나의 연재를 읽는 분들에게

금년 들어 시작한 연재가 어느덧 제41회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해 다른 신문에 1년간 연재한 것을 더하면 현재 80회를 넘어선 셈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틀린 용어가 많은가 하고 놀라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아직 연재를 접하지 못한 미술사학자들이나 종교사상 연구자들은 틀린 용어 하나도 잡아내지 못하는 분들로도 계십니다.

처음으로 조형언어를 해독하여 조형미술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어떤 분은 너무도 생소하여 작품의 조형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내용을 읽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읽기는 읽되 지식으로 받아드리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기초가 튼튼하고 예술적 감수성이 풍부한 분들은 사물을 새로이 '인식' 하기 때문에 경이를 느낄 것입니다. 조형언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연재임을 인식하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원고를 쓰고 있는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이러한 한글 문장도 처음 접해 보실 것입니다. 세계의 조형언어를 한글로 기록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니다. 우리는 평생 중국의 한문과 종래의 한글을 배워서 읽고 지식을 습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조형언어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으므로 난해하기도 하지만 낯설어서 익히기 어렵기도 하여 채색분석을 직접 해야 하므로 조형언어를 배우려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문자언어로 익힌 지식이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조형언어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체득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재에서 쓰고 있는 내용은 일찍이 문자언어로 쓰여 진 적이 없으며 따라서 경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텍스트인 작품 하나하나가 금강석 같이 존귀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작품 하나가 경전에 맞먹는 풍부한 메타포로 쓰여진 하나의 경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 조형언어를 한글과 한문으로 해독하고 있으니, 모름지기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만, 매회 연재를 프린트하여 조형언어를 재독 삼독하여야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종교사상을 조형언어로 알뜰히 표현한 작품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조형언어를 해독하여 보기로 합니다.

사경(寫經) 표지 조형 해독까지 평생 걸려

우리나라 고려 사경 표지에 그림이 있는데 학계에서는 '연화당초문' 혹은 '모란 당초문' 혹은 '보상당초문' 이라 부른다. 그런데 연꽃이라면 씨방이 주머니 모양이 될 수 없고, 모란이라도 역시 주머니 모양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연꽃도 모란도 아닌, '씨방=보주 주머니를 강조한 영기꽃' 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사경 표지에 이런 덩굴모양의 영기꽃을 그렸을까? 영기꽃이란 용어는 내가 만든 용어로 그 용어 가운데는 '씨방 안에 충만한 씨앗=보주가 밖으로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며 쏟아져 나오는 무량한 보주' 라는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내가 이와 같은 조형을 처음 대한 것은 고려청자 수막새 음각 영기문이었다. 물론 10년 전 그 당시에는 씨방 안에 있는 씨앗을 보지도 못했고 밖으로 나오는 보주가 씨앗이 승화하여 보주로 변한 것이지도 몰랐다. 또 그 당시 채색분석한 것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10년 만에 다시 채색분석하여 보았다.(그림 ①) 과연 〈한국미술의 탄생〉(p. 331)에 실린 것을 보니 예상대로 초보 수준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어서 그것만으로도 매우 흥분했었다. 영기문에서 핀 영기꽃에 주머니 모양 씨방이 있고 그 안의 무량한 씨앗이 무량한 보주로 승화하여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지난주의 부석사 괘불 주존불의 광배에 표현한 '씨방=보주 영기문' 과 맥락을 같이 하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영기줄기에서 연이어 생기는 제2영기싹과, 영기꽃잎의 제2영기싹이 모두 같은 조형의 면(面)으로 되어 있고, 씨방이 주머니 모양이니 현실에서 보는 연꽃이나 모란이 아니다. 양이정(養怡亭)이란 궁궐 건물에 이러한 조형을 청자기와에 표현한 까닭은 왕이 찾는 곳이기에 건축에서 발산하는 무량한 보주를 상징하는 것이다. 앞서 씨방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모양이 여래의 정수리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형국과 똑같은 것처럼, 우주의 축소인 건축에서도 무량한 보주가 발산하는 것이다!

이런 조형의 기원은 통일신라의 월지(月池; 조선시대에는 안압지라 불렀다)에서 발견한 작은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주에서 화생하는 비천이 있고(그림 ②), 여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보주가 있는데 그러므로 여래를 장엄했던 산개(傘蓋)까지 있다.(그림 ③) 그리고 여래로부터 무량하게 발산하는 보주들로 장엄한 광배가 있다.(그림 ④) 그런데 문제는 보주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보주(寶珠)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청자기와 무늬를 추상화하여 그 영기문의 표현원리 추출함. 여기에서 끝마다 영기꽃이 化生!

그림 ① 고려청자 수막새 등에 음각한 씨방=보주 영기문, 아래 그림은 추상화시킨 조형 원리



그림 ② 보주에서 비천이 화생한다



그림 ③ 여래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큰 보주가 자리잡고 있다. 보주는 즉 여래



그림 ④ 광배에서 무량한 보주가 화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래로부터 발산하는 무량한 보주를 상징한다.

藥이 되는 사찰음식

버섯탕수 오미자 만나면 '새콤달콤'

오미자 감국 소스의 버섯탕수

△재료(4인 기준)

○ 모둠버섯(표고, 느타리, 새송이, 목이 등) 200g, 녹말가루(고구마전분, 옥수수전분), 각색파프리카 1/4개씩

○ 오미자 감국소스(물 1/2컵, 오미자감국 발효액 1/2컵, 오미자 식초 3큰술, 간장 1큰술, 소금 1/2작은술, 물녹말 1큰술)

△만드는 법

① 버섯은 흐르는 물에 씻은 후 한 입 크기로 잘라 녹말을 얇게 여러 번 입혀 식용유에 노릇노릇하게 튀겨낸다.

② 각색 파프리카는 살짝 볶아낸다.

③ 냄비에 오미자 감국 발효액, 간장, 소금, 물을 넣고 살짝 끓인 후 식초를 넣어 간을 맞춘 후 물녹말로 농도를 내어 튀겨낸 버섯을 넣고 버무려 내거나 튀겨낸 버섯에 부어낸다.

꿀소스의 산약 찹쌀구이

△재료(4인 기준)

○ 산약 200g, 찹쌀가루 1컵, 소금약간

○ 다진 잣가루, 다진 대추 적당량

○ 꿀소스

꿀 4큰술, 대추효소 2큰술

△만드는 법

① 산약은 껍질을 벗긴 후 약간의 소금을 뿌려 살짝 절인다.

② 대추는 씨를 발라낸 후 잘게 다진다.

③ 절여진 산약의 수분을 걷어내고 찹쌀가루를 묻힌 후 식용유를 둘러 노릇노릇하게 지져낸다.

④ 지져낸 산약을 잣가루나 대추 다진 것을 살짝 묻힌다.

⑤ 접시에 담아낼 때 꿀에 대추효소를 섞어 곁들여 내어 찍어 먹는다.

산약 찹쌀구이 피로회복에 좋아

산약 찹쌀구이는 향긋한 차 한잔과 함께 곁들이면 좋은 간식으로 아삭한 식감과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돋보인다. 산약을 한 입 크기로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찹쌀가루를 입혀 굽거나 꿀에 살짝 재운 뒤 구워도 좋다. 생으로 갈아서 먹거나 전을 부치거나 다용도로 요리에 이용되며 갈은 것은 요리에 점성을 내는데 이용해도 특유의 부드러운 단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해준다.

이러한 산약은 학습능력증진, 설사, 숙취해소, 피로회복, 변비, 혈당저하, 당뇨병, 대하증,식욕부진, 간과 신장의 보호, 소장의 기능개선,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항산화작용, 항당뇨 항대장암 효과 및 항돌연변이 활성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의 끈적한 점성은 위점막 보호에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

갖가지 버섯이 제철인 가을에는 버섯으로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버섯 탕수로 겉은 바싹하면서 속은 부드러운 버섯튀김에 새콤달콤 천연 발효액으로 맛을 낸 소스에 찍어먹는 맛은 입맛을 돋궈주기에 그저 그만이다. 버섯을 튀길 때 튀김가루를 이용하거나 전분을 사용하는데 이때 전분은 고구마 전분과 옥수수 전분을 3: 2 정도의 비율로 섞으면 된다.

탕수소스로는 대개 설탕과 식초로 새콤달콤한 맛을 내게 되는데 설탕 대신 천연 발효액을 사용하게 되면 주재료 고유의 맛과 영양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 좋고 맛도 더욱 깊은 맛을 내게 된다. 오미자에 감국을 넣은 발효액 대신 다른 발효액을 사용해도 좋으나 오미자를 사용했을 때 새콤한 맛이 적을 경우는 식초를 조금 더 추가해서 요리하면 된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③ 시자봉



원효와 의상의 은혜 갚던 새가 바위로…

시자봉은 염초봉과 백운대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시자가 사모를 쓰고 백운대를 향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원효봉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시자봉은 경기도 고양시에 속하고 해발 712m의 가파른 암봉이다. '시자' 라는 이름에 착안하여 근처의 원효봉, 의상봉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만들었다. 원효와 의상의 은혜를 입은 새가 두 분을 시봉하다가 원을 이루고 봉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저는 시자봉 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냐구요? 궁금하시다면 제 소개를 좀 올릴게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래봬도 저는 성불한 것 같아요. 부처님처럼 크게 깨우친 성불 말고, 제가 간절히 바라던 원대로 이루어진 것도 성불이라고 해주신다면 말이죠.

저는 원래 경기도 남양만 출신의 작은 새였답니다. 참, 제가 살던 때는 우리 동네 이름이 남양만이 아니라 당항성이라고 불렸을 때였어요. 사람들 말로는 세 나라가 자주 싸우던 때라더군요. 제가 태어나고 며칠 지난 어느 날 엄마는 돌아가셨지요.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이 심심함을 달래려고 돌 멀리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는 어느 군인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고는 그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나는 어리기도 했지만 그 돌이 제 다리를 스치면서 생긴 상처가 너무 아파서 엄마의 죽음이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먹지 못하는 게 더 슬펐지요. 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걷지도 못했기 때문에 며칠을 꼬박 굶고 있었어요. 자꾸만 잠이 오고 이러다가 곧 엄마 곁으로 가겠구나 생각하며 누워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 두 분이 제가 사는 숲에 오셨어요. 먼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곳에서 묵기로 하셨어요. 당당한 풍채를 지닌 두 분이 우렁찬 목소리로 부처님이 어떠하시고, 신라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 분들의 불심이나 우정이 여간 깊고 큰 게 아니겠어요? 그 분들은 바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었어요. 저는 이야기에 빠져 제가 아픈 것도 까맣게 잊었어요. 그 때 원효 스님이 저를 보시고는 안타까워하며 당신 품으로 안아 올리셨어요. 털은 다 빠져서 속살이 발갛게 드러나고 먹지 못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저를 보시고는 수건에 물을 묻혀 제 입을 적시고, 바랑에서 밥 한 덩어리를 꺼내 잘게 부숴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의상 스님은 당신 옷을 조금 찢더니 제 아픈 다리를 감싸 주셨지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그 분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두 분 스님은 저를 돌보시느라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르고는 예정과는 달리 각자 헤어져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한 분은 다시 신라로, 다른 한 분은 먼 당나라로 가신다는 거였어요. 어느 분을 따라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다리도 완전히 낫지 않았기에 먼 곳은 무리가 될 것 같아 저는 신라로 가시는 원효 스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스님들은 제게 멀리 날아가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두 분 스님 곁에서 평생 심부름이라도 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두 분이 잠깐 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분만을 따라간다고 해도 나중에는 두 분 다 모실 수 있으리라 확신했답니다. 원효 스님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멀리서 따라와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북한산이었어요. 스님은 봉우리에 앉아 날마다 수행하셨어요. 당나라로 떠난 의상 스님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지금의 원효 스님 봉우리 조금 위쪽으로 자리를 잡은 저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스님들 곁을 떠난 적이 없답니다.

원효와 의상의 보살핌으로 살아난 새 은혜 갚으며 시봉하다 성불해

그런데, 왜 제 얼굴이 스님 쪽이 아니라 백운대 쪽을 보고 있냐구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두 분 모두 성격이 원체 깔끔하시거든요. 당신들 때문에 제가 수고를 한다고 여기시면 아마 두 분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실지 몰라서 그랬답니다. 저는 짐짓 백운대를 바라보는 척을 하지만 제 온 몸의 세포를 세워서 두 분 스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스님들이 수행하실 때 시끄럽지 않게 산새들 조용히 시키는 일, 스님들이 앉을 봉우리에 아무렇게나 떨어진 나뭇잎이며 나뭇가지를 치우는 일, 스님들이 더워서 땀을 흘릴 때 바람에게 잠깐 다녀가 달라고 부탁하는 일, 추운 겨울 날 스님들 머리위로 따뜻한 햇빛이 많이 들 수 있게 구름에게 얼른 지나가 달라고 말하는 일 따위랍니다.

의상 스님께서 당나라에서 돌아와 이곳으로 오실 때는 제가 그 분 머리위에서 길을 안내해 드리기도 했어요. 물론 눈치 채시지 않도록 말이죠. 제가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제가 스님들 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지요.

세월이 가면서 두 분 스님의 수행력을 보고 저도 함께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스님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깨우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 후로 매일 스님들이 정진하시는 시간에 저도 이곳에 앉아 기도를 했어요. 저는 원을 세웠습니다. "두 분 스님 곁에서 영원히 시봉할 수 있도록 천 년 세월에도 끄떡없는 바위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글쎄 내가 바위가 되어있지 않았겠어요? 하늘을 날 때 보다 더 크고 깊은 자유가 느껴졌어요. 그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까요. 고마운 마음이 너무도 깊으면 저 같은 미물도 성불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저를 시자봉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큰스님 곁에서 심부름하는 바위라는 뜻이죠. 요즘엔 저를 파랑새바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뭐, 저는 무엇으로 불리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불교의 큰 별이신 두 분 스님 곁에 이렇게 있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얘기꾼〉 전현서

일본 목불에도 한반도 옛 佛母의 자취가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고찰을 가다**
③ 교토 광륭사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는 일본을 방문해 교토의 고찰인 광륭사(廣隆寺)에 들르게 된다. 그곳에서 야스퍼스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유에 대한 표현이 담긴 예술품을 목도한다. 그리고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이것은 지상의 모든 시간적인 것, 속박을 넘어 달관한 인간 존재의 가장 정화된, 가장 원만한, 가장 영원한 모습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상은 우리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영원한 평화와 이상을 실로 아낌없이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벽안의 서양 철학자마저도 절창을 하게 만든 문화재, 바로 일본 국보 1호로 한국에 잘 알려진 광륭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이다. 광륭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한국의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일본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한국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광륭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한국의 도래된 양식임을 증명하는 것이 불상의 재질이다. 일본 광륭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던 계기는 학생의 실수에서 비롯된 점이 재미있다.

야사(野史)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20세기 초 광륭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은 보존 및 수리에 들어가는 데 그 과정에서 일본 불교미술을 공부하는 한 여학생이 실수로 목조반가사유상의 손가락을 부러뜨리게 된다. 이후 불상의 소재를 연구하고 싶었던 오사카 대학 한 학부생이 이쑤시개 4분의 1 크기의 파손 부위를 얻는다. 연구 결과 불상의 재질이 한반도에서 전해진 적송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일본도 공식적으로 도래 양식임을 인정하게 된다.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만큼 일본 광륭사 미륵보살반가사유상도 문화재적, 미적 가치가 매우 높다. 보관의 형태를 비롯해 우수를 머금은 온화한 표정과 입가에 맴도는 미소, 불상 전체를 휘감고 있는 곡선의 미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미학 연구가인 명법 스님 역시 본지의 기획 연재 칼럼 '불교와 미학' 에서 미륵반가사유상에 대해 "동양적인 얼굴에 위로 살짝 치켜 올라간 눈, 두 눈을 반쯤 감고 입가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이 보살상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처럼 고뇌하는 표정도, 불안정 자세도 없다.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지만 매우 안정적이며 편안하고 우아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같은 곡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불상이 한국과 일본 양국에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옛 선현들의 불심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사실 광륭사 창건도 한국과 관련이 깊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고구려와 백제 승려를 스승으로 모셨던 쇼토쿠(聖德)태자가 "고귀한 불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이 불상을 모실 자가 없는가"라고 물었고, 신라에서 건너 온 하다노 카와카스(泰河勝)가 자진해 사찰을 창건할 것을 청했다. 이후 하다노 카와카스는 스이코 천황 11년(603년) 광륭사의 전신인 봉강사(蜂岡寺)를 창건해 이를 모셨다고 전해진다.

한국산 적송으로 만들어진 일본 국보 '미륵반가사유상' 철학자 야스퍼스도 극찬한 한일 불교 교류의 정점

현재 광륭사는 진언종의 소속 사찰로 교토 지방에서 가장 오래됐으며, 쇼토쿠 태자가 설립한 7대 사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광륭사의 '강당' 은 1165년 건립된 것으로 교토의 목조 건축물 중 최고(最古)의 역사를 자랑한다. 강당 안에는 약 2m 40cm에 달하는 아미타여래상과 지장보살상, 허공장보살상이 안치돼 있다.

강당 뒤쪽에는 대웅전에 해당하는 조구오인(上宮王院)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 본존상은 33세 무렵의 쇼토쿠 태자상이다. 지금도 일본 사찰 곳곳에는 한반도의 문화를 적극 수용해 일본을 발전시킨 쇼토쿠 태자를 모시고 있다.

이런 광륭사는 일본 아스카 문화의 백미이다. 일본 문화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아스카 문화에는 한반도의 옛 선현들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져 있다. 우리가 태어나 너무 익숙해 체감할 수 없던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일본의 천년 수도 교토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선현이 준 은혜이다. motp79@hyunbul.com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일본국보1호로 잘 알려진 '목조미륵반가사유상'〈사진 위〉과 광륭사 대웅전〈사진 아래〉. 광륭사에서는 일본 아스카시대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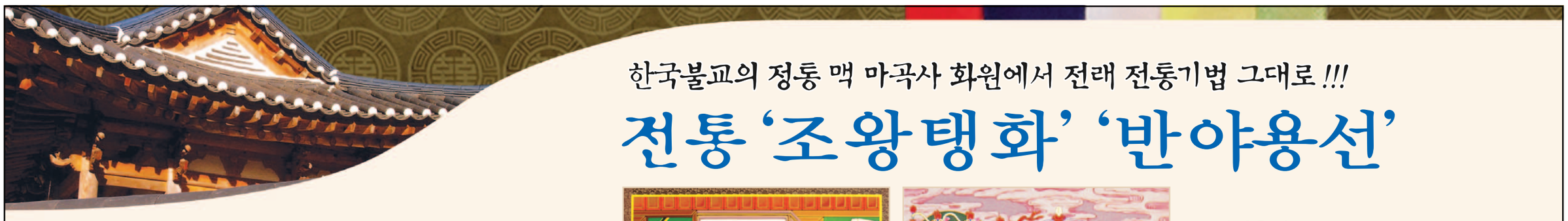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값 15,000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天 秘 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도서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값 15,000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dblog.co.kr

새로운 천년 길상의 향기
대한불교조계종
길 상 사
주 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일동
[부 설]
삼 계 선 원
불 교 대 학
법 화 경 반
우담바라합창단
성 현 덕 회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511-10 대명빌딩 2층
☎ (055)333-8202 / FAX (055)333-8203



한국불교의 정통 맥 마곡사 화원에서 전래 전통기법 그대로 !!!

전통 '조왕탱화' '반야용선'

조왕탱화

부엌의 신인 조왕신(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묘사한 불화. 사찰의 조왕단(竈王壇)에 봉안된다.
신중탱화의 일종이며, 조왕신앙은 우리나라 재래의 민간신앙이다.
불교에서는 배척하기 보다는 포용하고 정화하여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
불교에서는 황신(荒神)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왕신, 중국은 염제(炎帝), 일본은 가마도신. 모두 불을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탱화에는 보통 조왕대신을 중심으로 좌측에 담자역사(擔紫力士) 우측 조식취모(造食炊母)가 그려진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왕단에 탱화 대신 '南無 竈王大神(나무조왕대신)' 이라는 글자를 봉안한다. 조왕은 호법선신중(護法善神衆)의 하나로 인사(人事)를 검찰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리는 신으로서 참여한다. 그러나 조왕은 다시 불교적으로 정화된 뒤 산신, 용왕, 칠성들처럼 독립한다.

■ 크기 : 가로 61cm × 세로 91.5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조왕탱화


반야용선

반야용선

어지러운 세상을 넘어 피안의 극락정토에 갈 때 탄다는 배를 말한다. 반야(般若)란 모든 미혹(迷惑)을 끊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이나 모든 법을 통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뜻한다. 반야용선도는 망자를 위해 걸었던 그림으로, 그림에는 보통 좌로부터 극락의 주인인 아미타부처, 극락으로 인도하는 깃발을 든 인로왕보살, 반야용선과 망자가 표현되며 슬픔에 젖은 유가족이 그려지기도 한다. 즉 반야용선이 그려진 것은 망자가 아미타부처가 계시는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往生)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크기 : 가로 90cm × 세로 130cm
■ 재료 : 천연면포, 순금 99%(평금), 안료, 가금(금니)
■ 형태 : 가리개형, 괘불형

한 탱화 수강 신청안내

불모의 도움을 받아 한 탱화 조성 과정(1.출초 2.배접 3.아교포수 4.도채 5.바림 6.문양 7.금니 및 황선쫓침 8.금박붙이기 9.상호 10.틀 싣기 11.발미)을 통해 탱화의 기초와 기능을 함께 배우면서 완성도 높은 예배용 탱화의 완성이 목표

- 모집분야 : 한 탱화과, 기초기반(도안)과, 교육 민화(단청)과
- 모집인원 : 서울 (한 탱화과 20명 / 교육 민화 단청과 20명).
  경주 (한 탱화과 10명 / 기초기반 도안과 10명). 부산 (한 탱화과 10명)
- 교육장소 : 서울 – 양천구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한국전통채색학교
  경주 –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008-16 한국전통채색학교
  부산 – 진구 연지도 부산시민공원 인근 한국전통채색학교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개 강 : **2013년 10월 16일** (각 지역 별도 개강)
- 교육일정 : **2013년 10월 16일 – 2014년 3월 16일 (5개월)**

성유불화원 금어 조성철 합장
문의 051)332-0045 / 010-9216-0988

---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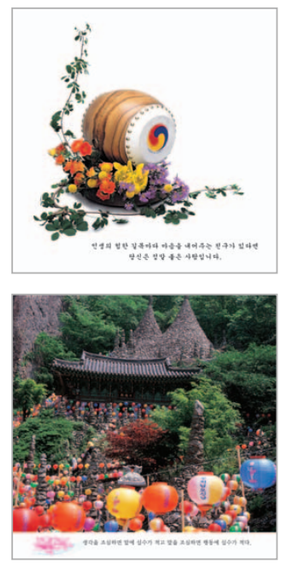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2000부@600원 • 100부@800원
- 규격:9.5cm × 13.4cm • 매수:18장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2000부@400원 • 100부@600원
- 규격:8.9cm × 9.5cm • 매수:16장

2013 동두천세계평화기원 청소년영화축제 성공기원

6.25 희생자추모 및 위령 대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에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우리 민족의 불굴의 정신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선열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봉행 합니다.


봉행위원장
동봉 대종사


대외위원장
천강 대종사


준비위원장
일웅 대종사


홍보국장
유원 스님


포교국장
유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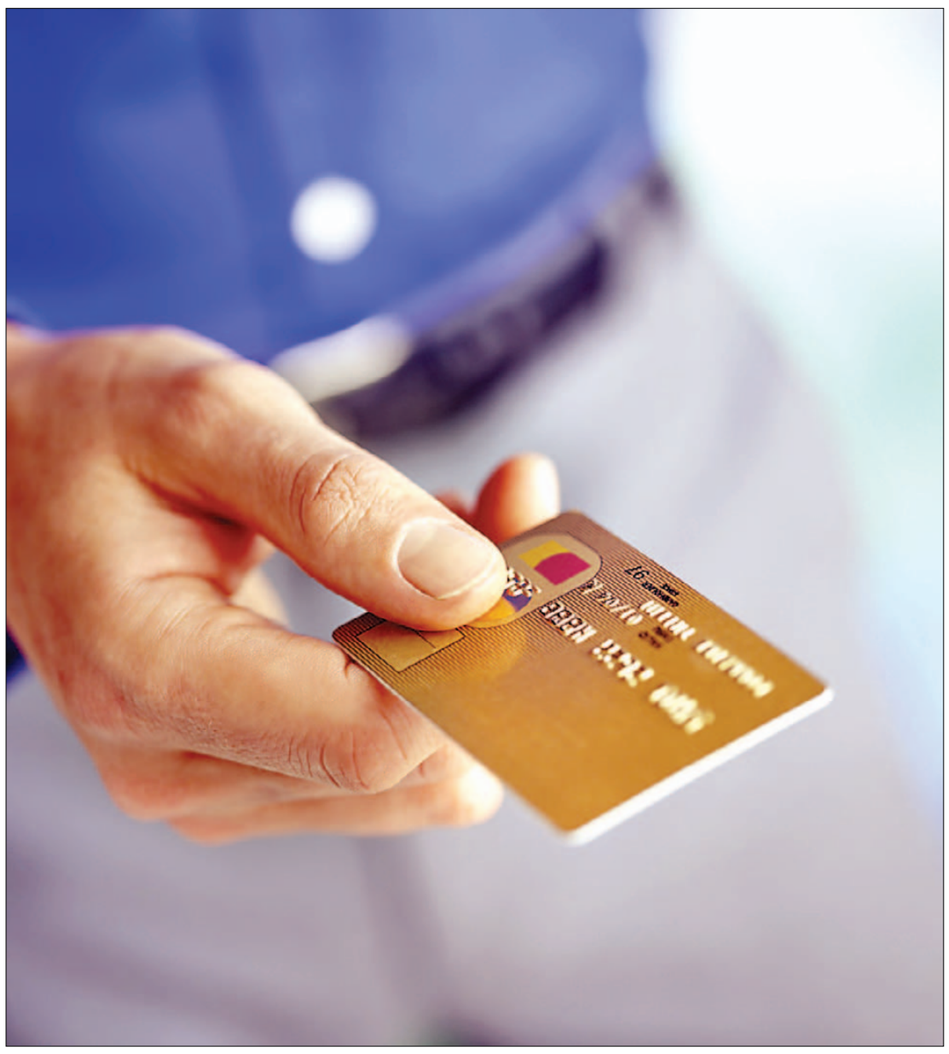
일자 : 2013년 10월20일 시간:오전11:00~오후:17:00까지
장소 :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162-10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광장
주최 : 동두천세계평화기원 청소년영화축제 조직위원회
주관 : 국민대통합기도회 준비위원회
후원 : ㈜늘푸른채(스님이만든 생식)



사찰도 신용카드 시대

사찰 카드결제로 보시·신심 UP↑

2012년 6월 조계종이 사찰 내 신용카드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쇄신 입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찰 내 전자결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도비나 불사금을 '카드'로 낼 수 있어, 신도들의 신행문화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김주일 · 노덕현기자



불교 각 사찰 카드결제기 설치 호응
현금대체 효과에 투명성 제고 기대
사회에선 카드 사용 매년 증가
선진국 현금사용 10% 미만 불과

각 사찰, 신용카드로 편의성 증대 나서

불자들이 많이 찾는 양양 낙산사(주지 무문)는 7년 전부터 경내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낙산사에서는 경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사찰 입장료는 물론이고, 기도비 및 기와불사 등 각종 불사금도 모두 신용카드로 보시할 수 있어 낙산사를 찾는 내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자 결제시스템을 낙산사서 처음 도입한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은 최근 자신이 주지로 있는 서울 흥천사에서도 똑같이 활용해 신도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낙산사 주지 무문 스님은 "당시 회주 스님께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내방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고 카드 결제를 도입했다. 특히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지불할 때 카드결제가 되니 관람객들에게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무문 스님은 "신도들 역시도 전자 결제 시스템이 사찰 재정 투명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인지 사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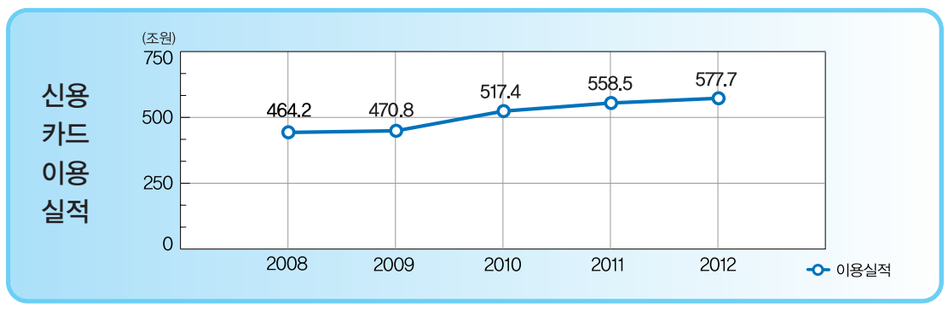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현재 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한 사찰을 30여 곳으로 추산한다. 쇄신법안 통과 이후 10여 곳이 늘었다고 밝혔다. 낙산사 외에도 예산 수덕사와 경산 선본사 갓바위, 서울 봉은사, 강화 보문사, 의왕 용화사 등 주요 대형 사찰서 전자 결제 시스템을 시행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일반인들의 소비패턴과도 맞물려 여러면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신도팀장은 "많은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현금 사용에서 신용카드로 바뀌고 있다. 일반 사회 보다는 변화의 흐름이 더디지만 신도들도 예전과 달리 카드결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시금을 내고 있어 이 같은 사찰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현금 갖고 다니지 않는다

일반 사회에서 현금거래보다 전자결제가 확산되는 현상은 전세계적인 추세다. 1661년 유럽서 처음으로 지폐를 발행한 스웨덴은 현재 현금이 통용되지 않는 경제시스템으로 진화했다. 대중교통 이용시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나 핸드폰으로 결제한다. 상점 또한 카드만 받는 곳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 은행 지점에서는 더 이상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스웨덴 경제에서 지폐와 동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유로존과 미국도 각각 9%와 7%에 정도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국의 신용카드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이용실적 지표를 보면 2012년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577.7조원으로 전년의 558.5조원 대비 10.3%가 증가해 2004년 이후 계속 늘고 있는 편이다.



카드 등 전자결제가 확산되는 이런 사회변화는 종교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이런 변화는 두드러 진다.

유럽의 경우 최근 교회나 성당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스웨덴 언론은 2012년 칼스함 시(市) 카를 구스타브 교회의 요한 티르베리 목사를 인터뷰한 바 있다. 당시 카를 구스타브 교회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헌금함을 교회 내에 설치해 화제가 됐다. 티르베리 목사는 "당장 현금은 없지만 헌금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많아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 기도접수처에는 카드 접수자들이 늘고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의 기도비 카드접수 모습


독일교회에 설치된 교회세 카드 납부기


행복바라미 디지털 모금함에 카드로 기부한 외국인

불사 홍보 및 신뢰 확보에 긍정 효과

우리 사회에서도 기부단체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시작됐다. 구세군에서는 2012년부터 디지털 자선냄비를 선보였다. 구세군의 상징인 빨간색 자선냄비 위에 카드 단말기를 부착한 것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역시 올해 기부모금행사 '행복바라미'를 실시하며 디지털 모금함을 설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찬영 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아직까지 단말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점차 늘고 있다"며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단말기 시스템을 지속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포교 거점사찰로 설립된 신정동 국제선센터도 올 9월 카드결제를 도입했는데 카드결제의 비율이 현금결제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이다. 전해준 국제선센터 종무실장은 "불전함에 넣는 기도비와 달리 불사금, 연등비 등은 신도 입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라며 "신용카드 결제는 종무원들의 복잡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더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박종학 봉은사 종무실장도 "현재 기도 접수처는 30%, 불교용품점에서는 50% 이상이 카드결제가 이뤄지고 있다. 1년등비가 20만원인데 당장 현금으로 결제하기 부담스럽게 느끼기에 카드 할부결제가 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한다.

상업성 우려에 의한 본말 전도 경계해야

하지만 전자결제의 편리함이 자칫 상업성으로 치우쳐 종교 본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편의성은 증대됐지만 종교에 세속적 가치가 도입되며 오히려 신도수는 감소하고 있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는 기존 헌금함 대신 카드결제가 가능한 세금 납부기를 설치하고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 각 교회에

카드 결제시스템 사찰 전국 30여 곳
편의성 때문에 이용 신도 점점 늘어
재정 투명화 기대로 신뢰도 상승
종교 본연 가치 저하 우려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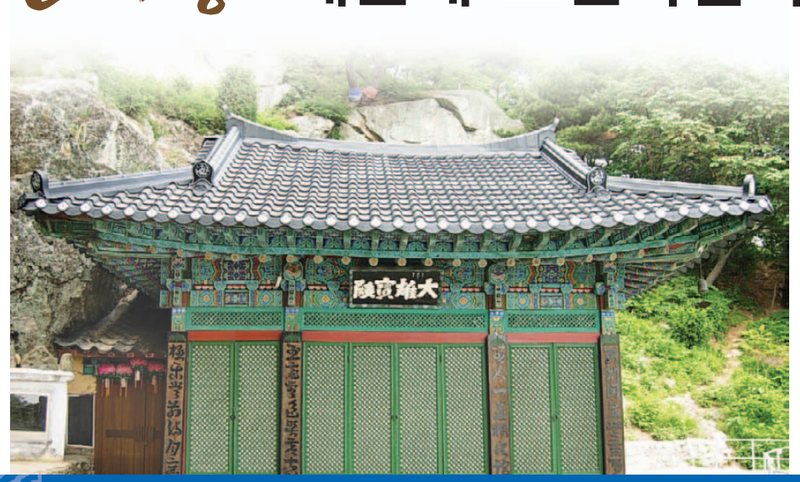
배분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들어 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 가량 하락했는데 성직자의 성추행 등 사회적 파문의 영향도 있지만 종교인을 직업의 하나로, 종교세를 의무로 보는 인식변화도 크게 작용했다. 독일 쾰른 대주교구의 경우 2013년 교회의 수익 중 교회세 의존비율이 76%에 달했다.

고명석 포교원 신도팀장은 "아직도 지폐가 꼬깃꼬깃하면 다려서 펴 정성스럽게 보시하는 불자들이 많다. 사찰의 보시금을 '정성'과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팀장은 "관광객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편의성이 증대되는 만큼 종교의 근본가치인 신심을 돋우는 포교활동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투명화에 신용카드 결제 도입이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황철기 조계종 총무원 재무팀장은 "보시금을 낼 때 이 돈이 어떻게 쓰이길 바라면서 내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냐"며 "'보시'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신성한 행위이며 그 이후는 '신뢰'와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팀장은 "카드결제가 되더라도 부정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카드결제란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정투명화에 대한 대중들의 의지와 신뢰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생명나눔 알리며 나누는 '기쁨'

탤런트 남일우 김용림 부부



불교계 가장 대표 연예인 부부를 꼽으라면 탤런트 남일우 김용림 부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은 오랜 연기 생활만큼이나 신실히 다져온 불심으로 똘똘 뭉친 도반이다.

불교가 기복 신앙을 벗어나 좀더 세상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두 부부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설립 초기부터 홍보활동을 통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항상 마음속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아내 김용림 씨는 결혼을 결정할 때에도 남일우 씨와 종교가 같은 점에 후한 점수를 줬다고 한다.

"저는 불교가 모태신앙이고 어머님이 신실한 불자셨죠. 그런데 연애시절 보니 남일우 씨네 집이 청량리에 있는 청량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일우 씨와 가까워지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김 씨는 불교방송 '신행 365일'을 25년째 진행하고 있다. 방송진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포교라 생각 한다는 김 씨.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특별한 가피라고 생각을 해요. 보살님들이 저를 보고 방송 잘 듣고 있다며 존경을 표할 때는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에요."

김 씨가 불교방송 진행 10주년을 기념해 상으로 받았다는 인간문화재 박찬수 작가의 불상을 집안에 모시고 작은 법당을 마련했다는 부부. 둘은 지극한 마음으로 매일 예불을 드리며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일우 씨는 한국불교가 좀더 현대화되어 젊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종교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 예불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현대식 예불이 개발되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신행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남일우 김용림 부부. 그들은 오늘도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지극히 살아가며 진정 아름다운 회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사랑의 끈으로 만나 평생의 도반이 된 '부부'

부부의 인연은 팔천겁이라 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해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다고 하니 부부의 인연이란 참으로 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맺어진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신행생활을 통해 부부의 정을 돈독히 다져 가는 부부들을 만나봤다. 불교계 대표 연예인 부부 남일우 · 김용림 씨, 수행을 통해 불법을 전하고 있는 배광식 · 권수형 부부, 예술과 나눔을 실천해가고 있는 박애리 · 팝핀현준, 공존과 공생을 보현행으로 펼쳐가고 있는 이성희 · 정재원 부부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정혜숙 기자

매일 새벽 염불선… '금강 카페' 전법

서울대 배광식 교수 · 시인 권수형 부부



"바다에서 길이 열리듯/ 당신 안으로 걸어 들어가/ 허공이 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시인 권수형 씨의 시집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의 시 일부분이다. 남편인 배광식 교수(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의 회갑 때 아내가 헌정한 시집이라 하니 참으로 애틋한 부부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세속에서 말하는 알콩달콩한 애정의 관계를 넘어서 있다.

두 사람은 철저한 수행자로 살아가고 있는 도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두사람은 문학써클에서 만났다. 당시, 수형 보살은 무종교였고 배 교수는 삼보법회에서 운허 스님의 〈능엄경〉과 〈금강경〉을 들으며 불교를 이상향으로 삼던 때였다. 이후 수형 보살은 배 교수를 통해 서서히 불자로 물들어 갔고 7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염불선을 하는 수행자다. 수형 보살은 새벽 두시에 배 교수는 세시에 일어나 각각의 정해진 수행을 한다. 부부가 이렇게 발심을 한 것은 1985년 청화 스님과의 인연을 통해서다. 배 교수는 "태안사에 계시는 청화 큰스님을 뵙자마자 이 생에 성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설명한다.

부부는 개인의 수행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고자 금강카페를 개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8년째 금강강독회와 철야정진을 이어가며 재가자들의 수행을 이끌고 있다.

권수형 보살은 "청화 큰스님께서 두 사람이 전생의 도반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집안에서는 각자의 수행을 하면서 청화 큰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도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3차 천일기도를 진행중인 금강카페는 충남 태안 쪽에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수행공간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배 교수는 전한다. "어떤 부부가 수행터를 희사해 주셔서 내년 즈음 불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철야정진을 할 때마다 전국에서 많은 불자들이 참여를 해요. 유독 부부 회원이 많은 곳이 저희 카페이기도 하죠. 수행 공간이 확보되면 더 많은 분들한테 수행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악과 힙합의 조화처럼 불심으로 장기기증 서약

국악인 박애리 · 비보이 팝핀현준 부부



힙합만 추던 남자와 국악을 하는 여자가 만나 결혼했다. 국악과 힙합의 만남으로 화제를 뿌린 팝핀현준 박애리 부부는 판타스틱한 무대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며 부부애를 과시하고 있다. 두 사람은 얼마전 KBS '불후의 명곡'에서 아리랑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또 최근 두 사람은 불교계와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인연을 맺으며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3년 전 국립극장에서 기획한 '뛰다 튀다 타다'라는 퍼포먼스 공연에 함께 출연한 것이 이들의 첫 인연이다. 국악계의 이효리라고 불리는 박애리 씨를 처음 본 순간 팝핀 현준은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만남은 최근 '불후의 명곡'을 통해 명창 박애리의 소리와 춤꾼 팝핀현준의 판타스틱한 무대를 만들어 내면서 그 빛을 발했다.

부부는 요즘 산사음악회 출연 섭외도 많이 받고 있다. 수덕사 용문사 조계사 등의 음악회 무대에 함께 서고 있는 두 사람은 찬불가 보다는 대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리랑 공연을 주로 하고 있다고.

사실 박애리 씨는 오랫동안 산사음악회에서 찬불가를 불러왔던 명창이기도 하다. "안숙선 선생님께서 부모은중경을 교성곡으로 부르실 때 뒷소리(코러스)를 하기도 했는데 2005년부터 제가 직접 부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대만불광사에서 개최하는 무대에 서기도 했어요."

박 씨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탓에 부모은중경을 부르며 늘 어머니의 천도를 기도한다. 팝핀현준의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신을 기증할 만큼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아버지를 평소 좋아하던 사찰인 심불사 수목장에 모셨어요. 그래서 늘 절에 가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듯해 편하고 좋아요"

극과 극 대척점에서 예술활동을 하던 두 사람이 만나 가장 아름다고 조화로운 무대를 연출한 팝핀현준 박애리 부부. 두 사람은 진정한 조화를 통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행공동체 결성·환경운동 등 '공존·공생'의 삶 실천

교사 이성희 · 시민활동가 정재원 부부



공생과 나눔을 실천하며 보현행을 펼쳐가는 도반이자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정토회에서 만나 7년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도반에서 3년 연애 끝에 올 5월 결혼한 서른 한살 동갑내기 부부 이성희 정재원 씨.

인천 검암에서 뜻이 통하는 도반들과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은 최근 SBS스페셜 등에 소개 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달아오른 양은 냄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달궈지는 가마솥 같은 것이었다. "2003년 대학교 2학년 때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인도선재기행에서 둘이 처음 만났어요. 그 인연으로 정토회에서 계속 대학생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재원이는 대학생정토회 대표로 당시 휴학생이던 저는 운영위원이자 환경팀장으로 활동했죠."

이후 성희 씨는 학교로 복학해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재원 씨는 인도, 필리핀 선재수련 등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또 두 사람은 제 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대학생 봉사활동인 작은짜이집을 운영하고, 대학교 내 통일강좌와 열린 법회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나눔과 신행을 실천해 왔다. 이후 성희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원 씨는 군대 제대후 시민활동가로 활동하게 되었고 청년정토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을 키우게 되었다.

"성희는 교사로 에코캠퍼스 운동을 하며 지렁이 퇴비 만들기, 쓰레기 제로 운동, 빈그릇 운동을 펼쳤어요. 무아 무소유의 삶을 통해 공존과 공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이 시대 환경운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희를 보면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왔기에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는 두 사람. 끊임없이 소비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나눔을 통해 소박한 삶을 실천해 가는 이 부부는 매일 기도하고 1주일에 한번씩 가족 법회를 열며 공생과 공존의 의미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고 있었다.

현대불교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연꽃 같은 정수기, 시걸포!

연꽃이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듯 시걸포는 내 몸에 물을 정화합니다



www.seagull4.co.kr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고 객 문 의
080-007-0980